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4 卷

〈1993.11 ~ 1997.4〉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차 례

▣ 1993年	3
▣ 1994年	23
▣ 1995年	159
▣ 1996年	267
▣ 1997年	315

1993年

1993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p> <p>權寧海 국방부 장관 KBS-TV 對談</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우발적 도발 對應必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核問題는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되 북한의 자세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임. ○ 국제안보기구의 對北制裁時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우발적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한다는 것이 이번 韓美安保會議(11.3~4)에서 논의하려는 문제임.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國際的 對北制裁나 그것에 의한 도발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 것임.
<p>1993. 11. 2</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총회 決議案 수용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유엔결의를 존중하여 核開發疑惑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 ○ 이번 결의는 북한의 國際的 義務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세계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3 人民武力部 副部長 김광진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的 대응불사 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2 남조선 國防長官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核開發을 결코들면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이것은 北과 南의 특사교환과 조·미회담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려는 기도임. ○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음. ○ 우리식 社會主義를 철옹성같이 지켜선 인민군대는 우리에게 불질을 하는자들을 천백배로 징벌할 것임.
<p>1993. 11. 3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북측단장 박영수 對南電</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實務代表接觸 개최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國防長官은 11.2 특별기자회견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개발을 결코 들면서 군사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特使交換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자체를 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4</p> <p>特使交換 실무대표 접촉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電 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接觸에 즉각호응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간에 합의한 會談日字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은 북측이 과연 특사교환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 국제사회는 북측이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준수치 않고 의무 불이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북측은 우리측 國防部 長官의 발언을 시비하기 이전에 이같은 상황이 오지않도록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임. ○ 북측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루속히 실무대표접촉에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p>1993. 11. 4</p> <p>제24차 韓美安保 協議會議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 중단문제 「留保」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T/S 훈련 중단문제는 北韓의 NPT복귀, IAEA의 특별사찰 및 남북상호사찰 수용 등 획기적 태도변화시 검토키로 함. ○ 北韓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하며 주한 미군 2단계 감축을 유보함. ○ '53이후 韓美연합사령관의 관할 평시작전통제권을 94.12.1까지 한국군에 이양함. ○ 한반도 위기고조시 美國은 신속전개억제전력(FDO)을 즉각 전개키로 함.

■ 1993年 11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장 談話	<p>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南側이 국제공조체제를 계속 추구하려는 기도를 드러내 놓은데 이어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T/S訓練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사실임. ○ 우리는 對話에는 對話로 戰爭에는 戰爭으로 대답하는 것을 기질로 하고 있으며,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음. ○ 特使交換을 성사시켜 민족의 중대사들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며 우리는 앞으로 남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임.
1993. 11. 11 外交部 제1副部長 강석주 談話	核問題 일괄타결방식 主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NPT탈퇴 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킨 특수상황에서 담보연속성 보장과 담보협정의 완전이행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 ○ 美國이 우리 제도를 압살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담보하기 전에는 담보협정을 완전히 이행할래야 할 수 없음. ○ 제3단계 朝·美會談이 열리고 거기에서 일괄타결방식이 합의되는데 따라 美國이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실천적 행동을 취하고 우리가 담보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핵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임. ○ 國際原子力機構가 담보감시의 연속성이 파괴된 것처럼 사태를 조작해 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조약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신호로 간주될 것임.
1993. 11. 16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북측 대표단 聲明	독수리 '93 및 화랑訓練 中止促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은 15일부터 남조선 주둔 미군과 함께 독수리 '93이라는 대규모 핵전쟁연습과 도발적인 화랑훈련을 벌이고 있음. ○ 北南最高位級 특사교환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북측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북남대화를 거부하고 민족을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낙인함. ○ 우리는 對話에도 戰爭에도 준비되어 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를 파괴하고 평화를 교란하는 독수리 '93 합동군사연습과 화랑훈련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17</p> <p>金三勳 核問題 전담대사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핵사찰 · 南北對話재개」立場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먼저 IAEA 통상사찰을 수용하고 南北對話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며, 그런후에야 T/S훈련중단과 美 · 北韓 3단계 회담개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p>1993. 11. 23</p> <p>韓 · 美 頂上會談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관련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方式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大통령과 美 클린턴대통령은 北韓核問題와 관련한 정상회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IAEA 및 남북한 동시사찰 수용시 보상조치 강구 - 北韓核問題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 방식 채택 - 외교적 해결 실패시 북한 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한다는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p>1993. 11. 23</p> <p>金泳三 大總統 記者會見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T/S訓練 중지문제 韓國이 최종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에 대해서는 韓-美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키로 했지만 최종결정은 한국정부가 내리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합의하였음. ○ 北韓 核問題해결의 시한은 한계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4</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포로수용소 遺品관련 인수자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 5월 5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조선인민군포로들의 便紙와 遺物들을 넘겨줄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우리는 귀 赤十字社가 시급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아직 함구무언으로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 赤十字會는 오는 12월 14일 그 자료를 넘겨받을 해당인원 2명을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통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3 姜英勳 「韓赤」 總裁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人民軍捕虜 遺品 불관여입장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도 인민군포로들의 자료 인도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大韓赤十字社가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음. ○ 나는 귀하가 10월 14일 電話通知文에서 제기한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전쟁포로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임. ○ 나는 귀 적십자사가 본연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南北離散家族 문제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1. 29</p> <p>外交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탈퇴 再宣稱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美國大統領 클린턴이 그 누가 공격을 한다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폭언을 한데이어 미국의 공식인물들속에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대화에 역행하는 언동들이 나오고 있음. ○ 美國이 核問題解決을 바란다면 압력의 방법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담에 성근하게 나와야 할 것임. ○ 미국이 끝내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을 백지화하고 회담을 그만두겠다면 우리도 조약탈퇴 효력발생을 더이상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임. ○ 核問題의 평화적 해결의 성공여부는 美國이 對朝鮮 압살정책을 포기할 주견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
<p>1993. 12. 7</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인민군포로 遺品 거둬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귀하가 12. 3 電話通知文에서 적십자 인도주의이념에 어긋나게 無責任하고 진실치 못한 입장을 취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귀 赤十字社가 김인서·함세환 송환요구에 전면 거부태도를 취하는 것은 赤十字 人道主義 견지에서 극히 온당치 못한 책임회피로 된다고 인정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1</p> <p>南北連絡事務所 李俊求소장 대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官 접촉 提議</p> <p>○ 갈리 UN사무총장일행이 판문점을 경유 귀족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편의제공 등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連絡官 접촉을 1993. 12. 23 오전 11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3.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귀 적십자사가 거제도 인민군포로들의 便紙와 遺物들을 우리측에 넘겨주며 김인서·함세환 송환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무조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1993. 12. 9	<p>特使交換問題 早期協議 배제</p>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와 美國사이에서 제3단계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一括妥決案이 합의되면 기구에 신고된 대상에 한해 완전한 사찰로 이어지게 될 것은 명백함. ○ 미국이 北南特使交換問題를 조-미 회담의 전제로 제기한 것은 타당한 것이 못되며, 우리는 이를 실현시키자는 입장으로서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그 실현여부가 달려있음. ○ 美國側이 우리의 이런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美國이 더이상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1993. 12. 17	<p>特使交換問題 早期協議 拒否</p>
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북남 特使交換을 北-美 3차 회담 전제조건으로 거론, 고의적으로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會談에 임하는 그들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美國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對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 ○ 美國이 대화진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억압정책을 계속한다면 3차 北-美 會談이 열린다해도 포괄적해결의 공식에 대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3</p> <p>金泳三 대통령, 갈리 유엔사무총 장 회동시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해결시 對北經協 추진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경우든 北韓核開發은 중지돼야 하며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있음. ○ 北韓이 가장 우려하는 吸收統一에는 반대하며 대화를 통해 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함. ○ 核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南北對話가 반드시 진전돼야 하며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p>1993. 12. 23</p> <p>軍停委 비서장 접촉 (판문점 중감위 휴게실)</p>	<p style="text-align: center;">갈리 유엔사무총장 板門店 通過 관련 절차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위 유엔사측과 북측은 갈리 유엔 사무총장일행이 12. 24. 12:00 판문점 경유 入北한다는데 합의하였음.
<p>1993. 12. 27</p> <p>韓昇洲 외무부 장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남북대화, 後 3단계 美·北韓 회담」 闡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의 의미있는 진전이란 核問題를 논의할 책임있는 인사들의 교환을 말함. ○ 이같은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美-北韓 3단계 고위급회담은 열리기 어려움. ○ 북한은 南北對話에 응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 만큼 북한 핵문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타결가능성이 높아졌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2. 23</p> <p>軍停委 비서장 접촉 (판문점 중감위 휴게실)</p>	<p style="text-align: center;">갈리 유엔사무총장 板門店通過 관련 절차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위 북측과 유엔사측은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12. 24, 12:00 판문점 경유 訪北한다는데 합의하였음.
<p>1993. 12. 30</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施設 제한사찰만 可能하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접촉에서 美國側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제거 조치의 일환으로 T/S訓練 중지의사를 공식 표명하였음. ○ 우리는 이미 신고한 核施設들을 법적요구에 의한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허용키로 하였음. ○ 이런 진전에 토대하여 제3단계 회담을 열고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 종식, 朝·美 關係 개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 1993年 12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3. 12. 30	<p>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등을 일괄타결키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이 일괄타결 방식을 받아들여 쌍방이 동시에 움직여나가는데 뒤늦게나마 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만약 일부 세력들이 또다시 朝·美 會談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르는 선택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임.

1994年

1994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p> <p>金泳三 대통령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改革·開放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北韓核問題가 해결되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韓半島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함. ○ 북한의 동포들도 개방과 개혁의 세계적 조류와 신한국 창조라는 민족응비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p>1994. 1. 5</p> <p>李榮德 부총리겸 統一院長官 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離散家族問題 우선해결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도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南北間 和解와 공존공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되어야 함. ○ 人權問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離散家族이며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북한이 적극 나설것을 촉구함. ○ 南北關係는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 ○ 北韓이 대화를 제기해도 정부의 원칙에 맞지않을 경우 무조건 응하지는 않을 것임.
<p>1994. 1. 6</p> <p>金泳三 대통령 年頭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先 핵문제 해결, 後 남북정상회담 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開發은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큰 화약고로서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안됨. ○ 南北頂上會談과 관련 회담만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北韓核問題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며 다행히 北韓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 金日成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核問題, 美·北韓會談 통한 해결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해에 祖國統一을 위한 全民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 ○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軍事演習을 빈번히 벌이고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공조체제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협한 국면에 몰아 넣었음. ○ 南朝鮮의 文民政權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역대군부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으며 더이상 지켜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음. ○ 조선반도에 핵문기를 끌어들이고 있지도 않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나온 것도 미국이므로 核問題는 朝-美會談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2</p> <p>李基澤 민주당 대표 연두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 개선을 위해 金日成 면담응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核問題 해결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남북간 경제협력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 南北의 특정지역을 상호개방하며 서로의 經濟投資를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미 체결된 南北合意書는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離散家族의 상봉은 당장 실현되어야 함. ○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南北關係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 주석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
<p>1994. 1. 20</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故 文益煥목사 弔意訪問團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聯」은 이미 우리대법원 확정판결('92.7.28)에 의해 국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의 우리측 지역방문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北韓核問題 해결지연으로 南北關係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의 제의가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 ○ 北韓側은 하루빨리 核問題를 해결하고 남북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오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쌍방 주민이 자유롭게 南과 北을 오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15</p> <p>最高人民會議議長 양형섭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民主黨代表의 平壤訪問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基澤 민주당 대표의 平壤訪問意思是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함. ○ 지금이야말로 北과 南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民族內部的 切實한 對決상태를 해소하고 새국면을 열어나갈 方도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임. ○ 나는 李基澤 代表가 올해에 첫걸음으로 平壤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p>1994. 1. 20</p> <p>「汎民聯」 북측 본부 의장 백인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故 文益煥목사 弔意訪問團 파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故人의 영전에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에 弔意 訪問團을 보내기로 하였음. ○ 우리방문단이 서울에 가는 것과 관련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1. 21, 10 : 00 관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우리측에서는 北南連絡事務所 북측연락대표 2명을 내보내려하므로 남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바람.

■ 1994年 1月

轉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 20</p> <p>「汎民聯」 북측 본부 의장 백인 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故 文益煥牧師 葬禮式 참가통보</p> <p>* 수신 : 장례대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弔意 訪問團을 보내어 남측의 각계 인사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위문하기로 하였음. ○ 「汎民聯」 북측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조의 방문단이 판문점을 통과 文益煥牧師의 장례식에 참가하며, 오후에 귀로에 오를 예정임. ○ 弔意 訪問團의 판문점 통과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남측 統一院長官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기대함.
<p>1994. 1. 21</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臨時査察 促求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機構와의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査察範圍를 제기했음. ○ 國際原子力機構는 朝-美 사이에 합의된대로 이번 협상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에 상응하게 사찰범위를 확정하는데 긍정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임. ○ 擔保協定에 따른 定期 및 非定期査察 문제는 제3단계 조-미회담이 열려 일괄타결안이 합의되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p>1994. 1. 24</p> <p>朝鮮天道教會 위원장 류미영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東學革命 100주년 南北共同紀念 협의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최양·최왜, 보국안민」의 구호밑에 전개된 갑오농민전쟁 100돌이 되는 해임. ○ 쌍방이 이미 합의한대로 同 100돌에 관한 共同紀念問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2. 3, 10 : 00 판문점 중감회회의실에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함.
<p>1994. 1. 31</p> <p>外交部 代辯人</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核査察問題 관련 3개 立場 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서기국은 NPT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1 天道教 중앙총부 吳益濟 교령 對 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東學革命 100주년 共同紀念 협의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북측 인사의 남한 방문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남북천도교 관문점 실무접촉은 추후 3월초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오는 3월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것으로 확신하며 또 반드시 풀리도록 해야 할 것임.
<p>1994. 2. 1 外務部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IAEA査察 早速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북한이 IAEA사찰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인 입장을 알려오기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聲明</p>	<p>한 지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이 아니라 앞으로 朝-美 會談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 조약복귀에 맞먹는 전면사찰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會談을 통한 문제해결을 표방하면서도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버려는 지연술책이었던 것이 실증되고 있음. ○ 조성된 위기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함 <p>첫째, 美國이 우리와 한 약속을 끝내 뒤집어 었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미국과 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p> <p>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들에는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효력 발생정지, 흑연감속원자로 체계의 포기 등 모든 선의적인 조치와 공약들이 다 포함됨.</p> <p>둘째, 미국이 朝-美 會談을 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구태여 회담을 할 생각이 없음.</p> <p>셋째, 미국이 그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하겠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방도를 선택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강경보수파들은 도래할 파국적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남조선당국자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배치검토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994. 2. 11 韓昇洲 外務部長 官 記者會見	T/ S 訓練과 北韓核問題 連繫推進 表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트리엇 미사일문제에 관한 최종결정은 IAEA 이사회 이후로 미루기로 페리 美 국방장관과 합의했음. ○ T/S훈련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즉 핵사찰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는 실시한다는게 현재의 입장임. ○ IAEA이사회나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이를 존중, 협력할 것임.
1994. 2. 16 朱燧植 청와대 代辯人 聲明	北韓의 IAEA査察受諾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北韓이 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2. 15)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 ○ 北韓이 대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알찬 南北對話가 진행되기를 기대함.
1994. 2. 18 李榮德 부총리 겸 統一院長官, 基本合意書 발효	南北特使交換時 核統制共同委 再開 제의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特使交換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단중인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북한에 정식으로 제의할 것임. ○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南北關係 개선은 진전될 것으로 낙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12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관련 美國의 對北壓力 中止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에서는 IAEA사찰은 순수담보의 連續性 保障을 위한 사찰로 되어야한다는데 대하여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朝-美 3단계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와 朝-美關係改善 전반을 토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해 왔음. ○ IAEA에서도 종전의 전면사찰 주장에서 물러나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하겠다는 시사가 있었음. ○ 美國이 실제로 對話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행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반공화국 압력소동부터 중지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2주년 세미나 發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韓間 3단계회담은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특사교환이 성사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21</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 IAEA 査察合意(2. 15)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합의된 査察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NPT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한 지위에 상응한 사찰로서 지난번 사찰이후 核物質이 다른 목적에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사항으로 하고 있음. ○ 지난 朝·美 뉴욕접촉(12. 29)에서 쌍방은 核問題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당면조치로서 담보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을 받는 문제, 남조선측이 特使交換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해오면 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美國이 '94 팀스피리트 군사연습 중지를 선포할데 대한 문제, 3단계 朝·美會談 날짜를 공동으로 발표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이미 朝·美사이에 약속된 대로 차후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담보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구의 사찰을 속히 진행하며 나아가서 3단계 朝·美회담을 개최하고 핵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는 국면을 열어놓는 것으로 될 것임. ○ 우리가 NPT탈퇴를 선포하게 된 근본이유의 하나가 특별사찰에 있는 것만치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조약밖으로 떠밀어내자는 것이며, 정기 및 비정기사찰문제는 3단계 朝·美會談이 열리면 核問題의 일괄타결방식의 테두리내에서 논의될 문제임. ○ 만일 또다시 美國이 동시행동조치를 합의하는데 당치않은 조건을 붙이거나 압력에 매달리면서 核問題 해결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와 기구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없게 될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
<p>1994. 2. 24</p> <p>北韓赤十字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의 사찰린同胞 歸還推進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은 사찰린 거주 조선동포 문제가 純粹人道主義的 問題로 봤는데 靑년을 늘어놓으면서 일본 정부로 부터 몇푼의 여비를 받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2. 25</p> <p>金泳三 大統領 就任 1주년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透明性 保障前이라도 南北頂上會談 推進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확실하게 核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核開發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 ○ 核開發 저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 이라도 南北頂上會談을 추진하겠음. ○ 特使交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과 金主席이 가장 믿는 사람이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하자는 것임. ○ 頂上會談을 하면 核問題는 물론 남북한 共存共榮과 생존문제, 통일 문제, 경제협력문제는 물론 좀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임. ○ 北韓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진실한 대화의 길을 선택 한다면, 南北共存共榮의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경제공동개발을 서두를 용의가 있음. ○ T/S 訓練 중단문제는 IAEA사찰과 南北韓의 충실한 對話가 충족 이 되면 한국정부에서 조건부로 중지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것 임.
<p>1994. 2. 28</p> <p>特使交換 實務代 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實務代表接觸 3. 1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과 北이 특사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최고 당국자의 뜻에 따라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것임. ○ 實務接觸을 재개하여 빠른 시간내에 特使交換에 필요한 모든 절차 문제를 매듭짓고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94. 3. 1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최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4	<p>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결말지으려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동포문제는 현재 사할린에 居住하는 4만명의 동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以前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 전체를 상대로 일본정부가 사죄와 전후보상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임. ○ 우리는 以前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남조선과 일본당국자들의 교환한 移住策動을 반대배격하고 과감한 투쟁을 벌여 나가리라 확신함.
1994. 2. 28	제 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 3. 21 開催
北韓, 美·北韓 實務接觸 合意文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과 美國은 '94. 3. 1 다음 4가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음. - 美國은 남한의 T/S훈련 중지에 동의한다는 결정 발표 -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 시작 및 IAEA와 북한사이에 합의된 기간내 완료 -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재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8	당국자의 특사교환을 위한 제 4 차 實務代表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1994. 3. 2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의 修正제의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實務代表接觸이 중단되고 진전되지 못했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北側이 修正提議한 대로 3.3,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 나갈 것임.
1994. 3. 3 特使交換 제 4 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 13개조 28개항으로 된 「남북최고당국자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 ○ 북측의 4개항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이는 부당·부적절·불필요한 주장이므로 당장 철회하고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함.
1994. 3. 3 國防部·代辯人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94 T/ S 訓練 條件附 中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 양국은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南北韓 特使交換을 통해 核問題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올해 T/S 訓練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2. 28	- 3단계 朝·美會談을 '94. 3. 21 제네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
1994. 3. 1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實務代表接觸 3.3 개최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代表接觸을 재개하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모든 核戰爭演習을 중지하며 核問題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함. ○ 오는 3.3, 10:00 제 4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기 위하여 해당한 래왕절차에 따라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갈 것임.
1994. 3. 3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의 회담중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특사교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4개항을 제시하면서 오늘 접촉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의 핵전쟁연습 중지 ii) 국제공조체제 포기 iii)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무기 반입 중지 iv) 金泳三 대통령의 「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 공식취소
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團長 박영수 對南 電通文	
特使交換 제 4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9</p> <p>特使交換 제 5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使交換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北韓側의 「4개항 요구조건」 철회 및 특사교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함. ○ 金大統領의 발언 취소 요구와 관련, 북한측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 고 방송매체를 통한 비방 · 증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함.
<p>1994. 3. 12</p> <p>特使交換 제 6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이른바 「4개 要求條件」은 그 원인이 북한핵 의혹에 있음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4</p> <p>外交部 제1副部長 강석주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實務接觸 合意(2.25)關聯 立場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접촉 合意文에는 동시행동조치의 하나로 북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에 대하여 언급되었을 뿐 특사교환의 실현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음. ○ 特使交換이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교환의 의미를 순수 핵문제 토의 일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그를 통하여 朝·美會談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北南對決을 격화시켜 왔기 때문임. ○ 남조선 당국이 核問題 토의에 끼어들려는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데로 명백히 입장전환을 할 때에만 북남 특사교환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美國이 北南 特使交換과 IAEA 사찰문제를 '94 T/S 훈련중지와 제3단계 朝·美會談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엄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움직일데 대한 합의를 또다시 되집어엮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임. ○ 만일 IAEA와 남조선 당국이 이에 어긋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나오고 미국이 그를 구실로 '94 T/S 훈련중지 이행을 중도 중단하고 제3단계 朝·美會談 개최를 지연시키려 든다면 우리 역시 이미 시작된 IAEA의 사찰을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없음.
<p>1994. 3. 9</p> <p>特使交換 제 5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최고위급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수정안을 제시하면서도 「4개항 요구조건」에 대한 先입장표명을 요구함으로써 절차문제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였음. ○ 수정안에서는 특사의 임무로 기존 5개항 외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데 대한 문제」 등 2개항을 추가하였음.
<p>1994. 3. 12</p> <p>特使交換 제 6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측이 「4개 要求條件」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것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1994. 3. 16</p> <p>特使交換 제 7 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1994. 3. 17</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교환에 관한 의지와 필요성은 그동안 쌍방이 전통문 교환과 접촉을 통해 거듭 확인되었으므로 「共同報道」는 불필요하며 합의서를 즉각 타결하면 될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합의서 제목, 전문, 특사의 級 등 총 28개항 중 25개항에 합의 * 미합의 사항 :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 순차 및 교환 날짜, 체류 일정 등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이 4개 要求條件을 철회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순차 및 교환날짜, 체류기간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였음. ○ 特使의 임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문제」, 「南北合意書 이행문제」,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기초한 조국 통일 실현문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함.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完全査察 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이번에(3.3~12) IAEA가 사찰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찰이 지체없이 실시될 것을 촉구함. ○ 북한이 南北特使交換을 위한 실무접촉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특사교환의 실현과 이를 통한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게 되길 촉구함. ○ 정부는 美 · 北韓 3단계회담 개최 이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19</p> <p>特使交換 제 8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방사화확실험실에 대한 IAEA의 査察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우리측은 3개항의 조치를 긴급제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우리측 最高當局者에 대한 비방, 중상 중지 ii) 우리 국민에 대한 반정부투쟁선동 즉각 중지 iii) 핵문제 우선해결 입장에서 특사교환을 실현하겠다는 명백한 입장 표시
<p>1994. 3. 19</p> <p>李榮德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對話를 통한 核問題解決 立場 거듭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核問題 解決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 핵문제를 對話를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며 平和를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음. ○ 北韓이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18</p> <p>原子力總局 代辯 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 査察結果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범위의 査察活動을 전부 허용해주고 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었음. ○ 사찰단이 이번에 진행한 査察活動에서는 핵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증할 수 있으며, 담보의 연속성도 확고히 담보될 수 있음. ○ IAEA가 우리의 核問題의 공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사찰결과에 대해서 서둘러 내린 부당한 평가를 철회해야 함. ○ IAEA가 우리를 걸고들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소동을 벌이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로 그에 대응할 것임.
<p>1994. 3. 19</p> <p>特使交換 제 8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제 6차 實務代表接觸시 철회하였던 「4개 요구사항」을 다시 거론하면서 절차문제 토의를 회피하였음. ○ 남측은 美 · 北韓會談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무대표접촉을 악용하였다는 것을 인정, 사죄하여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1</p> <p>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宋榮大 수석대표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對話를 통한 核問題解決 呼應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대표단 聲明을 통해 實務代表接觸이 결렬된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왜곡·비난한 것은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핵 개발 의혹에 대한 國際的 壓力을 모면해 보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임. ○ 우리 내부의 혼란조성과 체제전복을 위한 냉전적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 核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의 문 또한 열려있음. ○ 북한측이 대화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의 평화의지와 힘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둠.
<p>1994. 3. 21</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問題 관련 決議案 採擇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특별이사회가 안보리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3. 21)한 것을 주목하며 국제사회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함. ○ 북한이 하루빨리 안전조치협정상의 제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핵개발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함.
<p>1994. 3. 23</p> <p>國會 外務統一委 決議案</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全面査察 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北韓 核疑惑을 조속한 시일내 해소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여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1</p> <p>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北側代表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결렬 責任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接觸의 전과정은 北과 南이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서로 다른 근본입장을 보여주었음. ○ 朝·美會談과 北南特使交換은 원래 별개의 문제로서 남조선이 조·미회담을 가로막는데 특사교환문제를 악용하는 것 자체가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임. ○ 우리에게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결정한 도발행위는 사실상 실무대표접촉 파괴선언이고 特使交換 포기 선언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적인 해결 선언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特使交換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끝내 북남실무접촉을 결렬시킨데 대해 단호히 규탄함.
<p>1994. 3. 21</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지난 2. 25 朝·美뉴욕접촉 합의문을 전면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를 하였음. ○ 美國이 뉴욕합의문을 뒤집어 엮고 朝·美會談을 결렬시키는 조건에서 우리도 동시행동조치와 관련한 우리의 의무를 더는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는 제 3 단계 朝·美會談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기구의 담보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더이상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음. ○ 美國이 朝·美會談을 끝내 회피하고 '94 T/S 훈련을 재개하거나 IAEA가 사찰결과를 왜곡하며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압력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는 지난해 3.12부 공화국정부 성명에서 천명한 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IAEA 査察活動을 즉각 수용하고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은 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여야 함. ○ 북한은 핵의혹 해소는 물론 南北會談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
1994. 3. 25	러시아의 「8자회담」提議 拒否
外務部 當局者 論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의 北韓核問題 관련 제의를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그 취지를 평가함. ○ 美·日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로서는 UN 安保理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3. 24</p> <p>原子力總局 代辯 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問題 安保理回附 決議案採擇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서기국이 장갑복스구역에서 묻혀내기 시료 한 두개를 자기들의 요구대로 채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사화학실험소에서 재처리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IAEA서기국은 이번 관리아사회 회의에서 또다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不公正性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음. ○ 만일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IAEA서기국의 不公正性 확대에 상응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1994. 3. 28</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패트리어트 미사일 韓國配置 中止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核威脅을 하지말데 대한 朝·美共同聲명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으로 단호히 규탄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p> <p>外務部 當局者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 安保理 議長聲明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해 이번 의장성명서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 ○ 政府는 앞으로 핵무기 非擴散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形上으로 놓고 볼 때 크지않은 조선반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음. ○ 美國의 이번 조치는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정전기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됨.
1994. 3. 29	李基澤 民主黨代表의 訪北表明 歡迎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代辯人 談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도들에 의하면 李基澤代表는 남조선당국의 방해가 거듭되는 속에서도 자신의 平壤訪問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3.20에는 빠른 시일안에 평양방문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음. ○ 이 기회에 李基澤 代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平壤訪問이 빠른 시일안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는 바임. ○ 남조선의 李基澤代表의 평양방문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非核化와 나라의 통일문제 등 북남사이의 현안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1994. 4. 1	러시아의 多者間協商 提議 拒否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가 제재와 압력을 반대하고 政治的 協商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모색하려는데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러시아의 多務的 協商提案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됨. ○ 조선반도의 核問題는 우선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할 정치군사적 문제임.
1994. 4. 1	IAEA의 追加查察 拒否表明
駐유엔大使 박길연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協商은 미국이 3단계 高位級會談을 향한 토대를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음. ○ 高位級會談 토대마련 문제는 2.25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것을 지키기만 하면 됨. ○ 안보리 의장성명의 추가사찰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행할 수 없음.

■ 1994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4</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安保理 議長聲明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보리는 우리 核問題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의장성명에 담보협정 이행문제를 꺼들임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하였음. ○ 우리가 朝·美會談을 위하여 NPT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순간부터 담보협정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따라서 담보협정이행이요, 추가사찰이요 하는 것은 공인된 특수지위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음. ○ 美國이 우리와 한 모든 公約을 뒤집어엮고 압력일변도로 나오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朝美會談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힘에는 힘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입장은 시종일관함.
<p>1994. 4. 9</p> <p>林業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시베리아 벌목공 歸順시 拉致行爲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勞動者들의 人權을 모독하면서 調查團 派遣이니 귀순공작이니 하고 소동을 벌이는 것은 북남대결을 해외에까지 확대하여 민족적 반목을 조성하고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훼손시켜 보려는 계획적인 민족반역 행위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떤 조사단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이거나 그들에 대한 당치않은 귀순공작따위의 놀음을 벌인다면 납치해간 것으로 인정하고 즉시 그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
<p>1994. 4. 11</p> <p>黨·政·社會團 體 聯合會議</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會」召集을 위한 對南便紙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오는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全民族의 대단결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2</p> <p>南北連絡事務所 李俊求 所長 對 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對南便紙 接受 拒否通報</p> <p>○ 북측이 우리측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는 정상적인 남북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현재 남북현안문제인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함.</p> <p>※ 북측은 4.13 동 편지를 방송으로 공개</p>
<p>1994. 4. 12</p> <p>統一院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統一선선전술 기도 中止要求</p> <p>○ 회담석상에서 까지 「서울 불바다」를 운위하던 북한이 과연 민족적 화해를 말하고 민족대단결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대회」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는 원탁회의로 할 수 있을 것임. ○ 대회에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90년대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는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비롯하여 온민족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임. ○ 「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소집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각각 5명의 대표들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5월 중순경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남조선 당국자들이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함으로써 「민족대회」소집을 위하여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p>1994. 4. 11</p> <p>南北連絡事務所 北側所長 이성덕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政·黨·社會團體 聯合會議 便紙傳達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단체, 개별적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겨주기 위하여 '94. 4. 13,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얽매어 이미 실패로 끝난 바 있는 범민족대회의 재판을 벌임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통일전략전술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함. ○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만 조장하는 정치선전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 ○ 하루속히 IAEA 추가사찰을 받아들이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p>1994. 4. 13</p> <p>朱墩植청와대 代 辯人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별목적 對策 多角檢討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북한이 南北對話에 응하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별목적문제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하여 왔음. ○ 그러나 北韓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기로 하였음.
<p>1994. 4. 15</p> <p>統一安保政策 調 整會議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先 特使交換 推進撤回 및 北韓別목적 歸順許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使交換은 정상간의 間接對話로서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태도는 특사교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特使交換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음. ○ 核問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함. ○ 南北相互査察 없이는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정부는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8</p> <p>韓·美 高位實務 會談(서울)</p> <p>* 金三勳 韓 閣 장관, 美 國務 장관 차관보</p>	<p style="text-align: center;">追加査察 받아야 美·北韓 3段階會談 開催기로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미·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제외키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존중함. ○ IAEA 追加査察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에 3단계 美·北韓 會談을 개최함. ○ T/S훈련의 중단여부는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함. ○ 南北對話와 미·북회담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추진토록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16</p> <p>金日成, 美 CNN 방송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核開發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불바다」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음. ○ 핵무기를 먼거리로 향해 쓸수 있는 운반수단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토가 좁아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수 없음. ○ 우리는 어떤 전쟁의사도 갖고 있지 않음. 여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며 따라서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제 정신이 아님.
<p>1994. 4. 18</p> <p>金日成, 日本 NHK 放送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協商 통한 核問題解決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核武器가 있었던 적도 없고 국제기관의 사찰까지 받은 우리에게 부당한 트집을 잡아 압력을 가하고 있음. ○ 남조선에 核을 반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미국이고 있지도 않은 核開發 疑惑을 초래한 것도 미국임. ○ 核問題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합의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 이행해 나가면 핵문제는 부드럽게 풀릴 것임. ○ 日·北韓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북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전환해야만 관계개선의 전망이 열릴 것임.
<p>1994. 4. 19</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명백히 전쟁포로들인 김인서·함세환의 送還問題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선정전협정과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송환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北南關係를 개선하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0</p> <p>韓·美 國防長官 會談(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2. 25 美·北 合意事項」不履行시 T/S訓練 11월 實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3단계회담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될 경우 '94 T/S훈련 중단을 고려함. ○ 그러나 北韓이 지난 2월 합의사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94 T/S훈련을 11월경에 실시키로 함. ○ 韓國軍과 駐韓美軍의 전투력 현대화와 연합작전 능력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0</p> <p>「汎民聯」北側 本部議長 백인준 對南電通文</p> <p>(수신: 통일원장 관)</p>	<p style="text-align: center;">文益煥牧師 100일 追慕祭 代表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측의 초청에 호응하여 北側代表團을 서울에 내보내기로 하였음. ○ 우리 대표단으로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성원들로 하고 여기에 약 10명의 수원, 기자들을 동행시키려고 함. ○ 귀측이 서울에 나가는 우리 대표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 ○ 우리 代表團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4. 22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p>※ 동 백인준은 문목사 장례위원회 앞으로도 전통문을 보내 4. 28 추모제에 참가한다고 통보</p>
<p>1994. 4. 20</p> <p>外交部 비망록</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完全査察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담보의 연속성보장과는 인연이 없는 시료채취와 측정을 허용해주면 IAEA서기국은 지난 시기처럼 불일치를 조작해내고 특별사찰이요 뭐요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NPT 탈퇴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앞으로 朝·美會談이 열리고 일괄타결원칙에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동시행동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우리의 특수지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임. ○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소동, IAEA서기국의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않는한 우리의 조약복귀란 상상할 수 없으며, 지금단계에서 담보협정의 이행이란 말도 되지않음. ○ 우리는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상응하게 그것도 朝·美회담의 진척여부에 따라 순수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받아들여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 만일 미국과 IAEA서기국이 계속 부당한 압력소동에 매달린다면 핵問題는 언젠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2</p> <p>姜英勳 韓赤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 · 함세환 送還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 3 電話通知文을 통해 이미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北側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부터 취해 나가야 함. ○ 북측이 人道主義 문제를 말하려 한다면 송환을 약속하고도 억류하고 있는 동진호 선원들부터 즉각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 ○ 北側은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離散家族問題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440여명의 납북된 우리측 인사들을 하루속히 송환하며,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6</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 · 함세환 送還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전쟁시기에 민병으로 활동한 김인서 · 함세환은 엄연히 전쟁포로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임. ○ 南側이 이와 관계없는 이산가족문제와 동진호 선원 송환문제, 적십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들고나온 것은 생억지에 지나지 않음. ○ 우리에게는 남측이 말하는 이른바 「拉北人士」란 없으며, 있다면 남조선에서 살다가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여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만이 있을 뿐임. ○ 南側赤十字社가 진정으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p>1994. 4. 27</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장기수 김병주의 딸 김지현 北送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에 우리는 몇년전에 사망한 비전향수 김병주의 맏딸 김지현이 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음. ○ 비전향수를 아버지로 두었다는 죄 아닌 죄로 냉대 받고 가난에 쪼들리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지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는 무상치료를 실시하는 공화국북반부에 그를 데려다 치료를 받게 하

■ 1994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4. 27	<p>는 것이라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김지현과 그의 형제들이 북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귀 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임. ○ 만일 그가 지금까지 갚지 못한 입원비와 약값, 치료비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리는 바임.
1994. 4. 27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	5MW 原子爐 시료채취 拒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에 대한 IAEA의 입회활동에는 노심연료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IAEA의 봉쇄와 감시, IAEA의 봉인 및 감시기재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들에 대한 검사 등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충분한 사찰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노심연료 교체과정에 만일 정기 및 비정기 사찰범위에 속하는 사찰 활동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朝·美會談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된 다음에 허용될 수 있을 것임. ○ 지난 3월 IAEA의 사찰활동에서 제기된 방사화학실험소에 대한 추가사찰문제도 美國과 IAEA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고찰하고 있음. ○ 우리는 최근 북남특사교환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맞게 美國과 IAEA의 차후 동향을 보고 추가사찰 문제도 특별로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이미 그들에게 통보해 주었음.
1994. 4. 28 外交部 聲明	「平和保障體系」수립을 위한 對美協商 提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들인 우리와 美國을 적대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제반 사태는 朝·美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4. 29</p> <p>外務部 當局者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平和保障體系」 제의관련 核問題 우선해결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한반도의 긴장 및 불안정요인은 北韓의 핵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 北韓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함. ○ 南北韓은 이미 '92. 2. 19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합의하였음. ○ 北側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
<p>1994. 5. 3</p> <p>統一院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停戰協定 遵守 및 군정위 조속 正常化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행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있는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 ○ 특히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와있는 시점에서 현 停戰體制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음. ○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無用化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南北韓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 北韓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함.
1994. 5. 3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p style="text-align: center;">5MW原子爐 핵연료봉 交替強行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가 노심연료를 선택 측정하겠다는 것은 NPT 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우리의 特殊地位를 무시하고 정기 및 비정기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음. ○ 우리가 이번에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과 지난 3월사찰시 제기되었던 완료되지 못한 사찰활동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査察團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IAEA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만일 IAEA가 우리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운영계획에 따라 노심연료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음. ○ 노심연료 교체는 기술적으로 보나 安全上 견지에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문제임. ○ 입회를 하던 안하던 시험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폐연료계수기와 열형광검출기 및 감시기제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료교체작업은 철저히 IAEA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함.
1994. 5. 9 姜英勳 韓赤總 裁, 세계적십자 의 날 紀念辭	<p>離散家族問題 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 再開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은 6.25 전쟁중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형기를 마친 후 자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온 사람들을 戰爭捕虜 운운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北韓이 진정으로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지난 4.22 대북전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십자 본연의 정신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함. ○ 北韓側은 1987. 1.21 약속한 동진호 船員들의 송환을 지켜야 하며, 동진호 선원 이외에도 강제 납북된 어부, 민간항공기 승객, 승무원 등 4백여명의 무고한 우리側 억류인원을 송환해야 함. ○ 1992. 5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離散家族老父母 訪問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교체된 모든 노심연료를 IAEA의 통제하에 들것이며 앞으로 朝·美회담에서 핵문제가 일괄타결되는 시점에 가서 그에 대한 측정도 허용해 줄 것임.
1994. 5. 6	<p>對美平和協定 協商 거둬 주장</p>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美國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데 있음. ○ 南朝鮮 當局者들은 평화협정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함. ○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 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朝·美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 ○ 北南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문제도 완전히 풀리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9	교환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적십자회담 또한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1994. 5. 12 李洪九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신 문편집인협회 懇 談會 發言	북한 핵개발땀 非核化共同宣言 무효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한다면 비핵화 선언은 無效化되는 것임. ○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핵과 경험과의 연계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 ○ 핵문제는 탈냉전 흐름속에 있는 北韓지도부의 선택에 달렸으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IAEA의 핵사찰·남북상호사찰·미-북회담·南北會談의 순서로 됨.
1994. 5. 14 外務部 대변인 聲明	IAEA의 연료봉 선별보관 허용 대북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사무총장이 추가사찰과 후속사찰 실시를 위해 수일내 IAEA 사찰팀을 北韓에 파견키로 한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 ○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통보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IAEA 사찰단 방북을 통해 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를 기대함. ○ 北韓에 대해 모든 연료봉 교체시 IAEA가 요구하는 연료봉 샘플의 선정 및 보관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함. ○ 北韓側이 IAEA가 요구하는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12</p> <p>北韓 林業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벌목공 歸順時 단호한 報復 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이 벌이고 있는 납치모략책동은 오늘 북남관계전망과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음. ○ 南朝鮮이 우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납치공작에 매달린다면 단단히 쓴 맛을 보게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 ○ 만약 그들중 단 한명이라도 잘못되는 경우 우리 벌목노동자들은 단호한 보복을 안길 것임.
<p>1994. 5. 12</p> <p>原子力總局長 박용남 IAEA 에 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5MW 原子爐 핵연료봉 交替始作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찰단원을 보내지 않아 부득불 연료교체를 시작할 수 밖에 없게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노심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0</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5MW 연료봉교체 即刻 中斷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연료봉 교체를 더이상 계속하지 않는 한 아직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IAEA의 발표에 유의함. ○ 北韓은 IAEA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p>1994. 5. 21</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벌목공 送還要求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벌목공들의 자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하고 있음. ○ 벌목공들은 자유와 복지를 찾아 우리측에 스스로 귀순해온 만큼 拉致 운운하며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p>1994. 5. 24</p> <p>李洪九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國 회 외무통일위 발언</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共同宣言 無效化 憂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한다면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현실임. ○ NPT 만료시한이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만큼 南北韓의 핵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시점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19</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함세환 등 送還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問題 보다 더 절박한 김인서·함세환 송환문제는 외면하면서 마치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임. ○ 北出身 비전향수였던 김병주의 딸 김지현을 북에 데려다 병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제의에 지금까지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우리側 人道主義的 提議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설 것을 촉구함.
<p>1994. 5. 21</p> <p>「祖平統」代辭人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歸順 북한벌목공 6명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은 정상적인 벌목노동을 하고 있던 우리의 공민 6명을 납치하여 서울로 끌여가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음. ○ 이번에 강제로 유인 납치해간 우리의 벌목노동자들을 무조건 당장 돌려보내야 하며 민족과 세계앞에 사죄해야 함. ○ 만일 돌려보내지 않고 납치행위를 계속 감행하는 경우 北南關係 전 반에는 엄청난 후과가 미치게 될 것이며 南側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임.
<p>1994. 5. 24</p> <p>北韓, 유엔軍側 과 接觸 (판문점)</p>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人民軍 판문점 대표부」設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協商機構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開設했음을 미군측에 통보함. ○ 중장 이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任命했음을 통보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7</p> <p>統一院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消耗的 정치선전 即刻中止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이 또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 ○ 北韓은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다해야 함. ○ 北韓이 핵문제 해결의 토대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를 하루속히 정상가동하는데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함. ○ 北韓은 소모적 정치선전은 물론,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하고 쌍방간의 신뢰를 조성해 나가야 함.
<p>1994. 5. 28</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核연료봉引出 即刻中斷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핵연료봉의 인출을 즉각 중단하고 NPT당사국으로서 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만약 北韓이 핵연료봉의 인출작업을 계속해 IAEA에 의한 계측 가능성이 상실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25</p> <p>「祖平統」書記局長 백남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8.15 民族大會」召集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側은 지난 4월 11일, 오는 8.15를 계기로 당국과 정당, 단체의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참가하는 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고 北과 南, 海外에서 5명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중에 제1차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가질데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우리는 貴 當局이 민족대회소집 제안에 긍정적 호응을 보일 뿐 아니라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남측대표들을 빨리 선출함으로써 우리와 보조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함. ○ 우리는 민족대회준비위원회 북측대표들로 정무원 사무국장 정문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백남준,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겸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영섭을 선출하였음을 알리는 바임.
<p>1994. 5. 28</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 北韓間 연료봉협상 決裂 合理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상에서 IAEA側은 노심연료의 선택 및 분리 보관 방법을 제기했으나 우리의 특수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수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쌍방 사이에 양해가 이룩되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5. 31</p> <p>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安保理 議長聲明 受容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安保理가 5.30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지지함. ○ 北韓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더이상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 것을 경고함. ○ 北韓이 연료봉 인출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IAEA가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수락함으로써 NPT당사국으로서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상에서 우리側の 방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 방법은 보다 보충 완성되게 되었음. ○ 우리는 이번 IAEA와의 협상과 입회활동을 통하여 平和的 核活動을 철저히 IAEA의 통제하에 두려는 우리의 선의가 최대한 표시되었다고 인정함.
1994. 6. 1 外交部 대변인 談話	<p>유엔安保理 議長聲明 受容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安保理가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이 IAEA가 그릇되게 내린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문제를 논의한 것은 천만부당한 것임. ○ 지금 노심연료 교체작업은 앞으로 우리의 특수지위가 해소되는 시점에 가서 IAEA가 要求하는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만일 IAEA가 노심연료의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선포하거나 UN안보리가 제재나 압력을 가한다면 그에 대응한 決定的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며, 평화적 핵활동의 연속적인 공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1994. 6. 3 美·北會談 北側 代表團長 강석주 談話	<p>美·北韓會談 開催 希望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존해 놓고 있으므로 朝美사이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노심연료의 측정은 물론 그보다 더한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4</p> <p>李承坤 南北核統 制共同委 委員長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一方的 연료봉交替는 非核化共同宣言 破棄行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이 5MW원자로 연료봉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破壞하는 행위임. ○ 北韓이 NPT탈퇴를 위협하고 한단계 더높은 핵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민족전체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朝·美會談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NPT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키고 있는 기초도 허물어지게 될 것임. ○ 우리는 우리의 핵활동의 다음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더욱 擴大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 우리는 경제제재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국들에게 통지한 바 있음. 이 경우 제재에 참가하는 側은 물론 뒷받침하는 側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p>1994. 6. 6</p> <p>原子力總局長 박용남, IAEA 事務總長에게 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特別査察 결의시 NPT 脫退威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安保理와 관리아사회에 제출한 보고에 연료봉의 차후측정은 실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사찰의 미명하에 우리의 군사대상을 하나하나 개방해 보려는 美國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계속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지난시기 IAEA의 부당한 處事가 우리로 하여금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빚어내게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음. ○ IAEA서기국이 불공정성을 확대하면서 UN에 끌고가 압력일면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IAEA의 부당한 구속을 받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平和的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8</p> <p>金泳三 大統領, 與野代表 招請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先 核問題解決, 後 對話 方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南北對話는 UN 안보리의 제재결정이 있는 뒤에나 가능할 것임. ○ 北韓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直面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6. 9</p> <p>李洪九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핵연료봉 單獨交替時 制裁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핵연료봉을 일방적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 왔음. ○ 제재내용에는 조총련의 송금, 中國의 원유와 식량의 禁輸는 최소한 중간단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 北韓은 IAEA가 요구하는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 들이고, 원자로 운전상황 일지 등의 자료제출이 불가결함. ○ 만약 北韓의 재처리 활동 등 핵무기 개발로 인해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도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6. 11</p> <p>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理事會 決議案 遵守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理事會가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6.10)한 것을 적절 한 조치로 환영함. ○ 北韓은 이 결의를 준수하여 과거의 핵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 핵투명성도 완전히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政府는 UN안보리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해 北韓 核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8</p> <p>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3段階會談 開催希望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美·北韓 협상이 재개된다면 우리의 핵시설에서 핵연료봉의 실험과 측정, 보존 등의 사찰을 보장하겠음. ○ 美國과 北韓은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p>1994. 6. 9</p> <p>金日成, 美 카네기재단연구원 셀리그 해리슨 面談</p>	<p style="text-align: center;">對美 一括妥結뎌 核開發 中斷用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대화에 의해 국교정상화 등이 일괄타결되고 경수로 전환을 위한 美國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현재의 원자력개발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 ○ 만약 美國과 다른 나라로부터 경수로를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방사화학연구소와 현재 건설중인 20만KW 원자로개발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 ○ 韓國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나라가 투자하고 있어서 많은 적을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불가능함.
<p>1994. 6. 11</p> <p>朝鮮人民軍 板門店 代表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側의 軍停委 召集提議(6.6)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한가. ○ 미국측은 정전기구를 되살리려하기 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로 나가야 할 것임.
<p>1994. 6. 13</p> <p>外交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脫退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로부터 즉시 脫退함. - 지금까지 우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해진 IAEA의 모든 부당한 결의들을 무효로 인정하며 금후 IAEA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4</p> <p>外務部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IAEA 脫退 憂慮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를 탈퇴할 것이라는 北韓 當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北韓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데 대해 경고함. ○ 北韓이 NPT당사국으로서 IAEA의 모든 사찰을 수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UN 안보리에서 對北韓 제재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욱 확고해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13	<p>도 拘束되지 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査察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宣稱함. - 우리가 NPT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어떤 不當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 - 이로부터 IAEA 사찰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게 될 것임. ○ UN制裁는 곧 우리에게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再確認함.
1994. 6. 17	南北頂上會談 開催 用意表明
金日成, 카터 前美 大統領과 會談(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핵개발을 凍結하는 조건으로 3단계회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 ○ 核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며, 전환에 대한 美國의 지원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공식보장해 줄 것을 희망함. ○ 북남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은 北南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남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임. ○ 金泳三 大統領이 전에 頂上會談을 제안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 주기 바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8</p> <p>金泳三 대통령, 카터 前 美大統領 接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의 관련 時間・場所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早速 개최할 것을 수락함.
<p>1994. 6. 20</p> <p>李榮德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관련 豫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의 제의에 대하여 민족의 염원으로 보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내외상황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동의함.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는 6.28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예비접촉 대표단은 副總理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代表로 구성하고 隨行員은 5명 내외로 할 것을 제의함.
<p>※ 1994. 6. 22</p> <p>클린턴 美大統領 特別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7월초 3段階會談 開催 對北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2 北韓으로부터 미·북 3단계회담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는 서한을 접수했음. ○ 美國은 다음달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통보함. ○ 北韓은 3단계회담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 원자로 핵연료 장전 △ 사용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과 △ IAEA 사찰팀 북한잔류 및 감시장비 계속 유지를 확인했음. ○ 美國은 3단계회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6. 17</p> <p>最高人民會議 議長 양형섭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民主黨代表의 訪北表明(6.14)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예한 정세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각계人士들이 속속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때에 南朝鮮 野黨 代表가 방문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 ○ 李基澤 代表가 평양을 방문하면 기꺼이 환영할 것이며 그와 남북관계를 전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평양방문이 조속히 實現되기를 희망함.
<p>1994. 6. 22</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관련 豫備接觸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北南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 가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방침임. ○ 오늘의 침예한 정세는 北南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 南側이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남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2	<p>치·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이 대화기간에 UN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제재노력을 유보할 것임.
1994. 6. 23	<p>南北頂上會談 豫備接觸 名單通報</p>
李榮德 국무총리 對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李洪九(부총리) 대표 : 鄭鍾旭(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표 : 尹汝雋(국무총리 특별보좌관)
1994. 6. 28	<p>南北頂上會談 開催를 위한 合意書 採擇</p>
南北頂上會談개 최를 위한 豫備 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을 '94. 7.25~7.27 평양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延長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에 의해 정함.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最高位級會談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 사변으로 될 것임.
1994. 6. 23 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	美·北韓 제3단계 회담 7월초 開催豫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2 클린턴은 우리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UN안보리에 서의 우리에게 대한 제재논의를 정식 철회하고 제3단계 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을 밝혔음. ○ 제3단계 朝·美 회담은 7월 첫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제3단계 조·미 회담이 진행됨으로써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朝·美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1994. 6. 25 政務院總理 강성 산 對南電通文	南北頂上會談 豫備接觸 名單通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대표 :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 대표 : 백남준(정무원 책임참사)
1994. 6. 27 外交部 대변인 「報道」發表	美·北韓 제3단계 회담 7.8 제네바에서 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쌍방은 제3단계 朝·美 회담을 '94. 7. 8 제네바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했음. ○ 회담에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朝·美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예견됨.
1994. 6. 28 南北頂上會談개 최를 위한 豫備 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南北頂上會談 개최를 위한 合意書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94. 7.25~7.27 平壤에서 개최함.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음.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함.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왕래절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8	<p>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代表接觸에서 토의, 합의함.</p> <p>대표접촉은 '94. 7. 1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담 氛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努力함. <p>* 남측대표 : 李洪九, 鄭鍾旭, 尹汝儂 북측대표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p>
1994. 7. 1 南北頂上會談 제1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	<p>南北頂上會談 實務節次問題 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團 구성과 규모, 會談形式,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협의 * 南側代表 : 尹汝儂, 具本泰, 嚴翼駿 北側代表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
1994. 7. 1 韓國林學會 '94 학술대회	<p>솔잎 흑파리 共同研究 대북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등 산림보호를 위해 남북한 학자가 만나 솔잎 흑파리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1994. 7. 2 南北頂上會談 제2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p>「南北頂上會談을 위한 實務節次 合意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 ○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 ○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 ○ 실무자접촉 : 7.13~16 평양, 각기 17명 참가 ○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 ○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 ○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집」 ○ 기타 실무절차 : 남북고위급회담 관례 준용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6. 28	<p>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代表接觸에서 토의, 합의함.</p> <p>대표접촉은 '94. 7. 1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 氛圍氣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努力함. <p>* 북측대표 : 김용순, 안병수, 백남준 남측대표 : 이홍구, 정종욱, 윤여준</p>
1994. 7. 1	<p>南北頂上會談 實務節次問題 協議</p>
南北頂上會談 제1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협의 <p>* 北側代表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 南側代表 : 尹汝儂, 具本泰, 嚴翼駿</p>
1994. 7. 2	<p>「南北頂上會談을 위한 實務節次 合意書」채택</p>
南北頂上會談 제2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구성과 규모 : 수행원 100명, 취재기자 80명 ○ 회담형식 : 단독회담,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 배석 ○ 체류일정 : 2박 3일, 필요시 연장 ○ 실무자접촉 : 7.13~16 평양, 각기 17명 참가 ○ 선발대파견 : 방문 3일전 25명 파견 ○ 경호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8, 판문점 「통일각」 ○ 통신문제 관련 실무접촉 : 7. 7, 판문점 「평화의집」 ○ 기타 실무절차 :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준용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5</p> <p>南北頂上會談 豫 備接觸 李洪九 首席代表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通信 및 警護 實務接觸 참가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익현(청와대 통신국장) · 박영환(청와대 공보비서관, 방송담당) · 정용대(청와대 통신심의관) ○ 警護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주(청와대 경호국장) · 정한유(청와대 경호부국장) · 정해창(청와대 경호부국장)
<p>1994. 7. 7</p> <p>南北頂上會談 通 信實務接觸 (판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實況中繼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 기간중 남북간 通信網 가동과 放送中繼에 따른 기술 적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細部事項은 실무접촉단 방북(7. 13~16)시 협의기로 함. * 南側代表 : 유익현, 박영환, 정용대 北側代表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림
<p>1994. 7. 8</p> <p>南北頂上會談 警</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警護節次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경호절차와 실무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6</p> <p>南北頂上會談 豫備 接觸 북측단장 김 용순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通信 및 警護實務接觸 참가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信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호(체신부 국장) · 한명환(체신부 부국장, 방송담당) · 이영립(체신부 과장) ○ 護衛實務接觸 名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 춘(호위총국 부장) · 리재웅(호위총국 참모) · 리금철(호위총국 참모)
<p>1994. 7. 7</p> <p>南北頂上會談 通 信實務接觸 (편문점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實況中繼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통신망 가동과 방송중계에 따른 기술 적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접촉단 방북(7. 13~16)시 협의키로 함. * 北側代表 : 김명호, 한명환, 이영립 南側代表 : 류익현, 박영환, 정용대
<p>1994. 7. 8</p> <p>南北頂上會談 警</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警護節次 原則的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북간 경호절차와 실무문제에 원칙적으로 합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護實務接觸 (판문점 통일각) 1994. 7. 8	의하고 세부사항은 실무접촉단 訪北(7.13~16)時 협의키로 함. * 北側代表 : 최 춘, 리재웅, 리금철 南側代表 : 김광주, 정한유, 정해창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北韓 · 美國, 3단 계 高位級會談 개최 (스위스 제네바) 1994. 7. 11	(北韓側 立場) ○ 경수로 최단시일내 도입 ○ 무력불사용 및 불위협 법적보장(추후 평화협정, 주한미군 논의) ○ 조 · 미관계 정상화 ○ 상기 해결시 NPT지위, IAEA사찰, 비핵화공동선언 실천보장 (美國側 立場) ○ 추가적 재처리중단, 폐연료봉 제3국 이관 ○ 경수로, 관계정상화, 무력불사용문제 협의가능 ○ 평화협정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며 주한미군문제는 논의불가
最高人民會議통 일정책위원장 김 용순 對南書翰 1994. 7. 11	南北頂上會談 延期 통보 ○ 우리측의 유고(7.8김일성 사망)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 會談을 연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하는 바임.
1994. 7. 11	「核凍結 政策」持續 표명
駐 유엔 副大使 김수만 記者會見 1994. 7. 14	○ 北韓의 核問題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은 金正日體制 출범후에도 변 함이 없으며, 장례기간이 끝나면 미 · 북한간 교섭이 재개될 것임. ○ IAEA사찰관 영변잔류, 폐연료봉 재처리중지, 연료봉재장진 중지 등 대미약속은 계속 유지될 것임.
「祖平統」대변인 談話 1994. 7. 14	南韓 弔問團 訪北 歡迎 ○ 남조선의 각당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哀悼의 뜻을 표하 고 弔問을 보내오며 平壤에 조문단을 파견하려 하는데 대하여 謝意 를 표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18</p> <p>李榮德 국무총리 國務會議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金日成은 民族不幸의 責任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은 民族分斷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責任者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음. ○ 최근 일부 재야 및 운동권학생과 사회일각에서 조건발송, 조문단 파견논의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임. ○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책기조는 一貫性있게 견지할 것이며, 南北頂上會談 개최의 원칙은 有效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음.
<p>1994. 7. 21</p> <p>統一院, 內務部, 文化體育部 공동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94 南北인간띠잇기대회 自制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에 개최코자 하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적극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위해롭지 않는 한 민간의 자율적인 통일운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p>1994. 7. 23</p> <p>韓·日 頂上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前提 경수로 支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입장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며,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當事者原則이 중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은 판문점을 통과하여 올 수 있고 제 3국을 경유하여 올 수도 있을 것임. ○ 남조선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의 身邊安全을 保障하며 모든 便宜를 提供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새지도부는 하루빨리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촉구함. ○ 現在와 未來는 물론, 過去에 대해서도 北韓核의 透明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非核化共同宣言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 核問題의 해결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경수로전환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7. 25</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會談에 南北關係改善 先決條件 不當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단계 朝·美會談에서 경수로제공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조·미사이에 적대관계해소, 신뢰조성문제 등이 해결되어 조·미관계가 실제로 개선되면 북남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 남조선당국자들이 제3단계 조·미회담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조·미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태도에서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에서 북남관계개선을 朝·美關係改善의 先決條件으로 내세우는 경우 核問題解決에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명백함.
<p>1994. 7. 31</p> <p>朝鮮宗教人協議會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인간띠잇기대회 관련 實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94남북인간띠잇기대회 남측본부는 올해 인간띠잇기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할데 대한 제안을 해왔음. ○ 우리는 이 제안이 거래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높이고 민족이 하나임을 과시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 ○ 우리는 이번 대회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8.5 10:00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본부 대표들과 마주앉아 공동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p> <p>金泳三 大統領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拉北抑留者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억류자 송환문제(고상문 등)는 인권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 국제사면위원회와 별도로 UN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사등 국제기구를 통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p>1994. 8. 5</p> <p>宋榮大 통일원 차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原則 有效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 개최 원칙이 여전히 有效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정책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p>1994. 8. 8</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吸收統一의 기회가 오면 實現 立場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政府 立場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 노동신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問題 해결이 核問題解決의 시금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朝·美會談이 성과적인 것으로 되려면 상호신뢰와 평등의 원칙하에서 회담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함. ○ 만일 제3자의 불합리한 요구가 회담에서 제기된다면 핵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가 될 것임. ○ 一括妥決方式이 3단계 朝·美會談에서 합의된다면 조선반도 핵문제는 해결될 것임. ○ 경수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임.
<p>1994. 8. 2 朝鮮人權研究協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고상문을 의거入北者로 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화국에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권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무슨 수용소라는 것도 없음. ○ 고상문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에 찾아온 의거자들 중의 한 사람임. ○ 남조선에서 파쇼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즉시 철폐하고 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들과 각계인사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함. ○ 특히 김인서·함세환을 무조건 우리 공화국으로 送還하여야 함.
<p>1994. 8. 8 朝鮮宗敎人協議會 대변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인간띠잇기대회 不許 對南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번 처사를 民族의 統一念願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으로, 우리 종교인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준렬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的 次元에서 흡수통일의 기회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 ○ 이왕 기울어져가는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안을 채택, 실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함.
1994. 8. 9	拉北人士 送還促求
國會 외무통일위원회 對北決議文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고상문씨등 남북인사들이 당장 송환되고 가족과 재상봉돼야 함. ○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인사의 생사확인 과 원상회복을 위한 송환을 달성하도록 함. ○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면위 등 인권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허용해야 함. ○ 북한은 이산가족재회와 억류자 송환등 인도적 문제를 위해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8	<p>규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조의표시를 탄압한데 이어, 종교인들의 인간띠잇기대회 마저 가로막음으로써 입버릇처럼 외어대는 和解와 統一이라는 것도 한낱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음.
1994. 8. 10 北韓赤十字會 대 변인 記者會見	<p>拉北人士를 의거 入北者로 捏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전래의 예의풍습과 인륜도덕마저 무시하고 弔意도 표시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人權을 떠들면서 의거자들에게 모독적인 언동을 일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응당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은 억류해 두면서 依據 入北者들을 그에 대치시키려 하는 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가로막기 위한 모략술책이며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임.
1994. 8. 11 「汎民族」북측본 부 代辯人 발표	<p>汎民族大會 北側代表團 서울파견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6 제2차 범민련 共同議長團會議 合意에 따라 8.14판문점을 통하여 10명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하며, 이보다 하루앞서 5명의 대표들을 도쿄에 보내게 됨. ○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탄압과 분열, 와해책동에 단결된 모습으로 대처하여 汎民族大會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리라고 확신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2</p> <p>姜英勳「韓赤」 總裁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 總裁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은 조속히 재개되어 서로 편지를 교환하고相逢하며 自由往來할 수 있는 인도의 가교를 놓아야 함. ○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단 교환도 다시 이어져야 하며, 합의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은 지체없이 교환되어야 함. ○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가 밝혀져야 하며 이제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같은 과제를 협의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아무런 조건없이 회동할 것을 제의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2 「祖平統」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이 南北頂上會談 無效化 시켰다고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業務를 주관하는 통일원 장관이라는 자가 이른바 政府立場으로 감히 吸收統一 운운한 사실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 ○ 文民을 표방하는 김○○일당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표방해 나선 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을 선포하고 北南最高位級會談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효화한 계획적인 행위임. ○ 남조선 통치배들이 이미 한달전에 벌써 頂上會談問題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며 김○○까지 나서서 회담을 서울에서 먼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한 것도 북남최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쌍방 合意事項을 백지화하고 吸收統一 야욕을 보여준 것임.
<p>1994. 8. 12 美 · 北韓 3단계 제 1차 고위급 회담 (8.5~12,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美 · 北韓, 「合意發表文」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93.6.11 朝 · 美 共同聲明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다음 사항들이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음. 1. 조선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is prepared to) 미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으로 2백만 KW(2,000M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며 그 동안 조선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에너르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음. <p style="margin-left: 2em;">조선은 경수로와 대용에너르기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차제로 5만KW, 20만KW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IAEA의 감시하에 두기로 하였음.</p> 2. 朝 · 美는 정치,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들(diplomatic representation)을 설치하고 貿易 및 投資 障壁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3. 조선반도의 非核化와 平和 및 安全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선은 조선반도의 非核化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3</p> <p>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間「合意發表文」 긍정 評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合意發表文이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상호 지향해야 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함. ○ 北韓이 NPT에 잔류, IAEA안전조치협정 이행, 한반도 非核化 共同宣言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판단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12	<p>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한 용의를 표명하였음.</p> <p>4. 조선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음.</p> <p>이번 會談에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음.</p> <p>쌍방은 조선의 흑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너지의 보장,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專門家級 協商들이 필요하다고 合意하였음.</p> <p>이에 따라 전문가급 협상들이 조선과 미국 혹은 합의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게 됨.</p> <p>朝·美는 회담을 휴회하고 94.9.23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 하였음.</p> <p>그때까지 美國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경수로 제공 담보를 주기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조선은 외교부 장석주 제1부부장과 미국무성 갈루치 차관보사이에 94.6.20, 6.22 교환된 메시지들에서 합의된 核活動의 凍結과 擔保의 連續性을 維持하게 됨.</p>
1994. 8. 13	特別査察 絶對不可 表明
外交部 副部長 장석주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非正常關係에 있는 우리와 미국이 도달해야 할 최종 종착점들을 확고히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룩한 것임. ○ 경수로發電所 提供과 補償問題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그 이행의 필수적인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미사이에 관계 正常化 조치들이 뒤따르게 됨. ○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 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 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補償措置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는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5</p> <p>金泳三 大統領 光復節 49주년 慶祝辭</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共同體 統一方案」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人間中心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 ○ 統一은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함. ○ 정부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民族 1國家로 統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 統一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함. ○ 北韓 當局은 구시대적 對南赤化戰略을 마땅히 拋棄해야 함. ○ 人權을 改善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하며,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억류자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안정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랍. ○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임. ○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책임지고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데 대해 우리와 합의하였으며, 미국이 경수로 提供問題를 어떤 나라들과 토의하여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임. ○ 우리는 特別査察에 대해 인정해 본적도 없고 절대로 접수할 수 없음. 핵활동의 투명성 보장문제는 IAEA의 不公正性이 완전히 해소되는가 안되는가에 전적으로 좌우됨. ○ 폐연료봉 처리문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며 이번 협상에서 합의본 것은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長期乾式保管하는 조건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외교대표부 설치에서 연락사무소로 하겠는가 연락대표부로 하겠는가 하는 것과 그 시기문제는 실무급협상에서 토의하기로 하였음. ○ 우리가 NPT에 언제부터 복귀하는가 하는 것은 IAEA의 不公正性이 완전히 해소되고 朝·美關係가 정상화될 때에 가서 결정될 것임.
1994. 8. 15	姜英勳 韓赤總裁의 회담제의 拒否
노동신문 論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당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人道主義의 문제들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왕래니 방문단 교환이니 회담재개니 하는 것은 여론에 대한 우롱임. ○ 이른바 拉北者問題란 남조선 사회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임. ○ 남조선 적십자사가 당장 관심하고 해결해야 할 人道主義 문제, 人權 문제는 남조선 안에 있음. ○ 파쇼당국의 시녀 나팔수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國家保安法 廢止를 주장해야 하며 김인서·함세환의 송환문제를 해결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8. 15	<p>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우리 民族共同體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18 노동신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共同體 統一方案」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이요 단계요 하며 統一을 늦잡은 것 자체가 거래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임. ○ 統一問題, 北南關係問題에 역점을 두었다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統一은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떠들은 것은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 예속체제, 파쇼독재체제를 北에까지 옮겨놓겠다는 것임. ○ 그 무슨 合意書와 共同宣言 履行이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느니 떠든 것은 분열주의적, 반역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역겨운 언동임. ○ 人權問題에 대해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하는 인권유린으로 하여 상전으로부터 책망까지 들어온 김○○으로서는 들고나 설 낯짝이 없음.
<p>1994. 8. 20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 전제 경수로 도입 不可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결코 경수로나 받겠다고 自主權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군사대상에 대한 査察을 허용할 수 없음. ○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면 特別査察을 수용해야 한다는 日本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주장에는 결국 朝美 合意聲明 자체를 뒤집어 엮고 또다시 조미사이에 대결을 고취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우리가 인정해 본적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른바 特別査察이라는 것을 문제해결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복잡성을 조성하려 한다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2</p> <p>韓昇洲 外務部長 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 名稱・形式 不拘礙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실질적으로 특별사찰에 준하는 과거해 투명성 보장을 해준다면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 ○ 특별사찰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주는 것은 사태해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음.
<p>1994. 8. 25</p> <p>통일안보정책 조 정회의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은 美北관계개선의 必須要件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南北關係 진전이나 美・北關係 개선에 필수조건임. ○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實質的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이며, 또한 우리정부의 입장이기도 함. ○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앞으로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韓・美頂上間에 合意된 사항임. ○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美・北會談과 관련하여 韓・美간의 긴밀하고 철저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북사이에 「의미있는」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제반문제의 해결에 필수조건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4</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 포커스렌즈訓練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를 공격목표로 정하고 진행되는 綜合的이고 立體的인 대규모 지휘훈련으로서 핵시험 예비전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임. ○ 美 군부 保守勢力이 남조선 파쇼일당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분명히 朝美合意精神과는 심히 어긋날뿐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 의식적이고 모험적인 적대행위이며 北南對話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대결소동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p> <p>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中國의 軍停委 撤收에 遺憾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정위의 自國 代表團을 召還기로 한데 대하여 遺憾스럽게 생각함. ○ 현재 北韓 核問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協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함. ○ 정부는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現 停戰協定體制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함. ○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合意에 의한 平和體制가 구축될 때까지 現 政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駐韓 유엔사, 북한에 정전협정 유효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協定은 체결당사자인 유엔사, 중국, 북한 3자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 중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체제는 유효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8. 27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경수로 拒否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제 3 단계 朝·美會談에서 한국형 경수로 支援問題가 낙착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경수로 제공문제는 철두철미 朝·美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간참할 문제가 아님. ○ 제 3 단계 朝·美會談에서 경수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조선 경수로 문제는 애당초 안중에도 둔 적이 없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경수로 문제를 공간으로 朝·美會談에 끼어들어 核問題 解決과 朝·美關係 改善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북남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
<p>1994. 9. 2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中國, 軍停委 代表團 撤收 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交部 송호경 부부장은 8. 30 중국 외교부 당가선 부부장과 조선 반도의 공고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서 지난 40여년동안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음. ○ 쌍방은 현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로 바뀌어야 할 절박성에 대해 인정했음. ○ 特使는 중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과 군정위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板門店 代表部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해 통보했음. ○ 중국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군정위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했으며 軍停委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상태를 고려해 군정위 중국측 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0 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發言</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對美 平和協定 제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하기 때문 에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됨. ○ 平和協定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 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p> <p>外交部 代辯人 「報道」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專門家會談 開催日程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2 朝·美 合意聲明에 따라 요즘 진행된 뉴욕 實務接觸에서는 전문가급 협상들을 시작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쌍방은 연락사무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 10 平壤에서, 경수로 제공 및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문가급 협상을 9. 10 베를린에서 각각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p>1994. 9. 9</p> <p>外交部 代辯人 談話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北美會談에서 平和協定問題 협의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제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한 절박한 문제중 하나임. ○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임.
<p>1994. 9. 13</p> <p>美·北韓, 평양 專門家 會談開催 (9. 10 ~ 13)</p>	<p style="text-align: center;">쌍방 連絡事務所 開設관련 「共同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전반적인 합의의 테두리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와 관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협상은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음. ○ 쌍방은 連絡事務所 개설에 관한 協商結果를 각기 자기 정부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4</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제 13회 離散家族의 날 격려사</p>	<p style="text-align: center;">拉北者 早速送還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우리와 함께 平和와 繁榮의 길을 걸어 나갈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北韓에 억류되어 있는 400여 拉北者들을 인도 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함. ○ 우리는 北韓이 離散家族問題를 비롯한 남북관계개선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協力과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14</p> <p>美·北韓, 베를린 專門家會談 개최 (9. 10 ~ 14)</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關聯 「共同報道」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 기술로 교체하는 문제,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분, 대용 에너지 보장을 포함하여 복잡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였음. ○ 쌍방은 포괄적이며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朝·美는 이 문제들을 앞으로 더 討議하기로 합의하였음. ○ 쌍방은 이번 협상결과를 자기 정부들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p>1994. 9. 16</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 拒否 거듭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査察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反共和國 압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음. ○ IAEA 서기국이 特別査察問題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IAEA의 不公正性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계속 침해하며, 핵문제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책동임. ○ 우리의 核問題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朝·美會談을 통해서만 解決될 수 있음. ○ IAEA 서기국의 일부계층들이 국제회의·국제기구 공간을 이용하여 계속 압력에 매달린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임.
<p>1994. 9. 23</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別査察 壓力댄 흑연감속로 凍結 철회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가 경수로에 목이 매어 군사대상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 ○ 만일 불순세력들이 특별사찰을 계속 고집하면서 경수로 제공에 난관을 조성한다면 우리는 흑연로체계를 동결시킬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않음. ○ 核問題의 근원적인 解決方途가 특별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있음.

■ 1994年 9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9. 25</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총회의 査察促求 決議案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23 채택된 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시도이며 그것을 단호히 배격함. ○ 만일 우리에게 대한 압력도구로 계속 악용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취한 선의적 조치들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p>1994. 9. 25</p> <p>北韓 政黨·社會 團體들 對南 便 紙</p>	<p style="text-align: center;">檀君陵 竣工式에 南韓人士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릉 개건이 완공되어 오는 10월 초순에 竣工式을 거행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을 招請함. ○ 平壤訪問路程은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하여도 무방함. <p>※ 초청인사(74명) : 이기택, 김상현, 이부영 이우정, 김대중, 김동길, 박찬중, 이종찬, 강영훈, 한완상, 김근태, 백기완, 박한상, 박용길, 권종대, 계훈제, 이창복, 김상근, 박순경, 강희남, 양규현, 윤정식 등</p>
<p>1994. 9. 27</p> <p>人民武力部 대변 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美航母 東海配置 위협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위선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음. ○ 미국이 무력대결로 나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음. ○ 우리 인민군대는 特別査察을 통하여 군사대상을 개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會談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미군부 보수세력들은 50년대의 치욕스러운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
<p>1994. 9. 30</p> <p>檀君陵 복구위원 회 대변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檀君陵 준공식에 南韓人士 방북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의 一部 人士들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하여 平壤 訪問 의사를 표시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3</p> <p>姜英勳 「韓赤」 총재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地域 콜레라 共同防疫措置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페스트가 東北亞 地域에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北韓地域에서의 콜레라 퇴치와 방역을 위해 南과 北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북한 적십자측에 제의함. ○ 우리는 일차적으로 필요한 醫藥品을 提供할 준비가 다되어 있음을 알림. ○ 우리 赤十字人들은 진정으로 人道主義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함.
<p>1994. 10. 5</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제의 有效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만큼 북측이 우리측에 제의하는게 순리임. ○ 회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협의해야 할 것임.
<p>1994. 10. 8</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 未타결시 安保理회부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會談에서 핵문제가 끝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UN 安保理에 회부하는 수 밖에 없음. ○ 北韓의 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경수로 지원과 기술·자본 지원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T/S 훈련도 재개할 수 밖에 없음. ○ 核問題를 해결하기 전에는 경제협력 등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正道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招請便紙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게는 이미 放送으로 보낸 우리의 초청편지가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림. ○ 우리는 10. 1 부터 板門店에 해당하는 영접인사들을 내보내 남측에서 오는 각계 인사들을 맞이할 것이며, 만일 베이징을 경유하여 平壤을 訪問하려는 인사들은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따듯이 영접할 것임.
1994. 10. 3 檀君陵 복구위원회 대변인 記者 會見	南韓人士 도착지연으로 檀君陵 竣工式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招請한 바 있는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도착할 시각을 기다리며 예정된 檀君陵 竣工式을 미루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檀君陵을 개건하여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도모하고 5천년 역사국의 위상을 선양하려는 金日成의 애국애족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됨.
1994. 10. 5 平壤放送 論評	南側의 콜레라 共同防疫措置 제의 拒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黨과 政府의 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졌음. ○ 오늘 우리 인민들은 콜레라라는 말은 보도를 통해서 듣거나 의학사전을 통해서만 알고 있음. ○ 무슨 콜레라 확산이요 뭐요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남을 몰고 넘어지는데 이골이 난 괴뢰들만이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수작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4</p> <p>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國監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 5개원칙 提示</p> <p>○ 北韓 核問題 해결을 위한 5개원칙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개발 중지·동결 - 한반도 전쟁재발 예방과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 남북당사자간 해결방향으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포함한 남북 對話의 재개 - 北韓 核의 과거·현재·미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IAEA의 기 준·판단을 중시 - 대북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韓國이 중심이 되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6</p> <p>당비서 김기남, 金日成 100일제 追慕辭</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聯邦制 統一方式 및 對南통일전선전술 등 고수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金正日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革命的 規律과 秩序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저버리고 동족의 불상사를 악용하여 民族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며 배신의 길로 나가는 남조선 문민통치배들은 北南關係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고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음. ○ 우리는 祖國統一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연방제방식으로 90년대에 기어히 祖國을 통일할 것임.
<p>1994. 10. 17</p> <p>美·北韓 3단계 제 2차 高位級 會談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을 위한 美·北韓 基本合意文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韓 쌍방은 基本合意文의 주요내용에 합의하였으며, 10. 21 서명 교환기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文 主要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査察등 과거책의혹 해소 · 핵활동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8</p> <p>韓昇洲 외무장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합의 韓半島平和 기초마련 評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금번 합의가 北韓 核問題의 근원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平和維持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함. ○ 이번 협상의 결과로 북한은 核擴散禁止條約에 완전 복귀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락하였으며, 現在와 未來의 핵활동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존 핵시설을 해체하기로 약속하였음.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게 되면 過去와 現在, 未來의 핵투명성은 보장됨. ○ 北韓은 또한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 이행과 南北對話의 재개에 합의하였음.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겨, 南北關係의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北韓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南北和解와 協力を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음. ○ 금번 美北合意는 대화에 의한 核問題 解決이라는 기본입장에 따라 그동안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공동노력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이해당사국 및 유엔, IAEA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임. ○ 政府는 이제 그동안 南北韓 關係와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되어온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외교정책과 통일노력을 펼쳐 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 연료봉 처리 · 北韓의 NPT 지위문제 해결 · 대체에너지 제공 · 北南對話 재개 · 경수로 지원 · 美·北韓 관계개선
1994. 10. 18	<p>未轉向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送還要求</p>
北韓赤十字會 위 원장 대리 이성 호 「北赤」 창립 48돌 紀念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赤十字會談을 비롯하여 北南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 반대화적 행위 때문임. ○ 南朝鮮 적십자사가 분열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들을 복송해야 함. ○ 남조선 적십자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남조선 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19</p> <p>李敏燮 文化體育 部長官 제35회 전국 민속예술경 연대회 개막식사</p>	<p style="text-align: center;">'95 民俗藝術競演大會 南北共同開催 對北提議</p> <p>○ 光復 50주년을 맞는 9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南北韓이 동시에 참가해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1994. 10. 21</p> <p>韓·美 國防長官 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 中斷合意</p> <p>○ 美·北 핵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T/S 訓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20</p> <p>外交部 대변인 「報道」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金正日, 北美會談 합의문에 署名 지시」 宣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최고사령관 金正日은 朝·美會談 우리측 단장에게 基本合意文에 서명하도록 지시를 주었음. ○ 基本合意文은 核연료체계의 경수로체계의 교체문제, 朝·美 사이의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전파방지체제 강화문제 등 核問題 解決을 위해 조·미 쌍방이 해야할 바에 대하여 공약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됨. ○ 基本合意文에는 核問題 解決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내놓은 주도적 발기들이 충분하고 만족하게 반영되어 있음. ○ 基本合意文이 이행되면 朝·美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임.
<p>1994. 10. 21</p> <p>美·北韓 3단계 高位級會談 종료 ('94. 9. 23 ~ 10. 21,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基本合意文」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쌍방은 朝鮮의 核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해 협조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美國은 2003년까지 총 200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함. 2) 美國은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동결에 따른 에너지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대용에너저기는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함. 3) 朝鮮은 核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함. 경수로 대상 건설기간 朝·美는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 1994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21	<p>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협조함.</p> <p>4) 朝·美는 이 합의문이 서명된 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함.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 에네르기와 관련한 연관문제들과 흑연감속로 계획을 경수로 대상으로 교체하는 데서 제기되는 연관문제들을 토의함.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함.</p> <p>2. 쌍방은 政治 및 經濟關係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감.</p> <p>1) 쌍방은 合意文 서명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완화함.</p> <p>2) 쌍방은 專門家協商에서 영사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함.</p> <p>3) 朝·美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킴.</p> <p>3. 쌍방은 조선반도의 非核化,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美國은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에 제공함.</p> <p>2) 조선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p> <p>3) 조선은 이 基本合意文에 의하여 對話를 도모하는 雰囲気가 조성되는데 따라 北南對話를 진행할 것임.</p> <p>4. 쌍방은 국제적인 核傳播防止體系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p> <p>1) 조선은 NPT의 成員國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것임.</p> <p>2) 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朝·IAEA 담보협정에 따른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됨.</p> <p>3)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조선은 IAEA와 핵물질 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IAEA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의 담보협정을 완전히 이행함.</p>

■ 1994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21</p> <p>外交部 부부장 강석주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美合意文 역사적 文件으로서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文은 조선반도의 核問題解決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역사적 문건으로서 朝·美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는 基本合意文에 우리의 정당한 입장과 주동적 발기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우리가 이번 核活動의 現在와 未來를 동결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核開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게 되었음. ○ 경수로 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朝·美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가서 우리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것임. ○ 우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金正日을 조선의 최고지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존칭하고 있음.
<p>1994. 10. 25</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감스럽게도 남측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하게도 회신조차 보내지 않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그들의 가공한 정상을 외면하고 오늘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은 남측적십자사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고 당국의 압력과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음. ○ 남측적십자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무조건 시급히 송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
<p>1994. 10. 29</p> <p>中央放送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94 T/S訓練中止 기만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수리 '94 합동군사연습은 朝·美 基本合意文을 불사르고 정세를 대결과 긴장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임. ○ 마지못해 朝·美 合意文을 받아들이고 T/S '94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와 맞먹는 독수리 '94 합동군사연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0. 31</p> <p>金泳三 大統領, 中國 李鵬총리와 회담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실질적인 南北對話 早速再開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合意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南北韓 사이의 실질적인 對話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음. ○ 金 大統領은 「북한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공존공영의 정신에 호응해 온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4. 10. 29	<p>을 벌여놓음으로써 그것이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음.</p> <p>○ 戰爭演習이 강행된다면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전쟁집경으로 차단 게 될 것이고 北南關係는 더욱 더 침예한 대결국면으로 나가게 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2</p> <p>韓·中 外務長 官 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合意 이행위해 南北對話 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핵합의의 이행을 위해 南北韓 當事者간의 對話가 중요 하다는데 합의하였음. ○ 韓昇洲 장관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완료되면 남북한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약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1</p> <p>外交部 대변인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基本合意文 이행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朝·美合意文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음. ○ 政務院은 11월초부터 5만KW, 20만KW 흑연감속로 등의 건설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금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해당부문에서는 5MW 실험용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준비해 놓았던 새 연료봉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음. ○ 방사화학실험실을 비롯한 연관시설들의 동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이미 朝·美 基本合意文에 따르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p>1994. 11. 1</p> <p>「職盟」중앙위원회 聲 明</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出所者 송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轉向 장기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부당한 처사를 준렬히 규탄함. ○ 남조선 당국이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등을 무조건 즉시 송환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함.
<p>1994. 11. 2</p> <p>「祖平統」대변인 聲 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 霧圍氣 조성역행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基本合意文이 발표된 시점에서 '94독수리 훈련이 감행되는 것은 중지키로 한 T/S합동군사연습과 간판만 바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음. ○ 조·미 기본합의문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이행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매우 심상치 않은 도발임. ○ 南朝鮮 當局者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4</p> <p>韓昇洲 外務部 長官 발언</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平和協定 체결후 관련국 追認方案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의 정전협정에는 UN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음.
<p>1994. 11. 5</p> <p>外務部 대변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安保理 의장성명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에 대하여 安保理가 IAEA에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치(11.4)라고 평가함. ○ 북한이 美·北 合意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p>1994. 11. 7</p> <p>金泳三 大統領, 經濟人 초청 만찬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核·經協 連繫 완화방침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남북관계는 핵문제에 얽매어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으나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나갈 시점에 이르렀음. ○ 南과 北이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당국간 협의를 거쳐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 허용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 ○ 光復 50주년인 되는 내년을 계기로 『民族發展共同計劃』의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를 희망함. ○ 北韓이 APEC등 지역공동체와 국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7 外交部 대변인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專門家會談 일정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朝·美는 基本合意文 이행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뉴욕에서 일련의 실무접촉을 가져왔음. ○ 廢燃料棒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11.12~19 평양에서, 경수로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11.30 북경에서, 그리고 連絡事務所 개설을 위한 전문가 협상을 12.6~10 워싱턴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음.
<p>1994. 11. 7 「女盟」중앙위원 회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出所者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轉向 장기수들의 송환은 이제 더는 지체시킬 수 없는 가장 절박한 人道主義的 문제임. ○ 남조선 당국이 송환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8 統一關係長官會 議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 기업인 방북,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 등 남북경제인사의 상호 방문 추진 — 기술자 방북,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허용 및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시범적 고용, 제3국에서의 합작 및 현 지법인을 통한 투자 허용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 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
<p>1994. 11. 9 韓國記者協會 對北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記者交流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남북기자 교류를 시 작할 것을 제의함. ○ 남북기자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빠른 시일내 판 문점이나 서울·평양 등에서 갖기를 희망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10 「祖平統」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經協 提議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에게는 그 무슨 協力과 和解를 논의할 명분도 없으며 때늦게 던지는 그의 미소를 받을 사람도 없음. ○ 對內外的 孤立과 危機를 벗어나기 위한 한갓 연극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결정책의 파산을 자인한데 불과 함. ○ 經濟協力을 운운하는 이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음. ○ 김○○은 응당 자신의 엄중한 반자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민족앞에 사죄하여야 함. ○ 北南 協力과 交流가 호상 신뢰에 기초해서 착실하게 이루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12</p> <p>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理事會의 「議長 要約」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特別理事會가 IAEA사무국에 대해 대북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11.11)한데 대해 이를 환영함. ○ UN안보리가 核安全措施協定 이행과 북한의 핵동결감시 수행을 위해 IAEA에 부여한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p>1994. 11. 14</p> <p>韓·美·日, 3국 頂上會談 개최 (자카르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 改善이 美·北合意 履行에 艱요</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國 정상은 韓半島의 安定이 역내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지역의 安保를 확고히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3국 정상은 核問題解決을 위한 미·북합의가 역내안정과 번영 증대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함. ○ 3국 정상은 南北對話 再開 및 南北韓 關係改善이 미·북 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미·북합의 이행의 모든 측면과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24</p> <p>南北交流・協力 推進協議會 개최</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經協 後續措置 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제반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질서있게 추진되기 위해 관련규정과 구체적 대책방안 등을 심의하고 확정함. — i)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ii)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iii)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 3개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19</p> <p>北韓, 美·北 專門家會談관련 報道文</p>	<p>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조·미합의문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 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IAEA가 朝·美合意文을 환영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국제공약으로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廢燃料棒 처리문제 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전문가들은 '94.11.14~18 平壤에서 5MW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꺼낸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음. ○ 협상과정에 영변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와 폐연료 보관시설에 대한 참관을 포함하여 광범한 통보 교환이 진행되었음. ○ 廢燃料 保管施設의 물처리를 위한 계획이 토의되었으며, 쌍방 전문가들은 '94.12월에 미결된 기술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다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
<p>1994. 11. 24</p> <p>로동신문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美 보수세력이 美北合意 이행방해」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강경보수세력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며 北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력증강을 주장하고 있음. ○ 이는 그들이 군사우위와 힘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을 방해하려는 기도로써 이는 잘되어가고 있는 일을 그르치게 할 것임. ○ 南朝鮮에서의 武力增強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에도 군비축소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임.
<p>1994. 11. 28</p> <p>中央放送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대표단, 北韓核凍結 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基本合意文에 따라 원자력총국 대표단과 IAEA대표단은 '94.11.23~28 平壤에서 우리 나라와 IAEA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協商을 진행했음. ○ IAEA 대표단은 영변과 태천을 방문하고 조·미기본합의문에

■ 1994年 11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1. 29</p> <p>「民主朝鮮」論評</p>	<p>지적된대로 核施設들이 정확히 凍結되어 있고 건설작업이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우리 나라에서 IAEA의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으며 일부 문제들은 다음번 협상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했음.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이 美北合意 履行妨害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朝美基本合意文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안에서는 대결과 전쟁소동을 피우고 밖에서는 공조체제 청탁능음을 벌였음. ○ 괴뢰들이 對話요 經濟協力이요 떠들어댔지만 이것은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그들의 반민족, 반통일적, 사대매국행위를 감싸기 위한 여론오도 술책이었음.
<p>1994. 12. 1</p> <p>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 再開 불가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基本合意文 이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그 타개책은 우리와 미국만이 찾을 수 있음. ○ 만일 제3자가 그 이행에 부질없이 끼어들려 한다면 그것은 북잠성과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 ○ 北南對話問題는 그 누구의 개입이나 중재역할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김○○이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을 사죄할 때 고려될 문제임.
<p>1994. 12. 2</p> <p>美·北 경수로 專門家會談 (북경)</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 경수로 提供 再確認</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는 '94.11.30~12.2베이징에서 조선의 흑연감속로와 연관 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 제공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 사항들에 맞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協商은 복잡한 문제들을 진지하고 유익하게 취급하였으며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7 (株)湖南精油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에 병커 C유 5만톤 供給</p> <p>○ 미·북 핵협상타결에 따른 대북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미국측 제공분의 5만t 규모의 화력발전소 연료용 병커 C유를 12.15~31 공급키로 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6</p> <p>「祖平統」書記局 진상공개장 발표</p>	<p>다음번 협상은 '95.1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核武器開發 凍結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現在와 未來의 핵결백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무기개발 동결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함. ○ 核武器 제작 실상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현존 핵무기 개발 수단들을 완전히 동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의 非核平和地帶化를 실현하기 위한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임. ○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에 상응하게 핵무기개발에 악용되고 있는 월성중수로와 대덕 다목적연구로, 조사후 시험시설등 일체 관련수단들에 대한 폐기 및 봉인조치를 하여야 함.
<p>1994. 12. 9</p> <p>美·北 連絡事務所 所 專門家 會談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連絡事務所 開設 具體案 接近</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발표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代表團은 基本合意文에 따라 '94.12.6~9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교환과 관련한 領事 및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領事問題들과 거의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을 보았으며, 남은 문제는 연락사무소의 적합한 부지를 확정하는 것임. ○ 쌍방은 '95년초에 부지조사를 위한 전문가대표단을 각기 상대방 수도들에 보내기로 합의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16</p> <p>韓·美·日, KEDO 설립 高位 實務會議 (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KEDO 創立 등 共同目標 설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발표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國은 조속한 시일내에 多國籍 컨소시엄 KEDO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뉴욕에 두기로 결정했음. ○ 3國은 KEDO의 창립멤버로서 이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은 韓國標準型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데서 재정과 건설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임. - 日本도 경수로 프로젝트의 관리와 재정분야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의향을 표명했음. - 美國 역시 중유제공을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폐연료봉의 안전 보관 및 처리를 원할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밝혔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12</p> <p>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呼訴文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콘크리트 障壁 철거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장벽은 우리 民族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統一을 반대하며 정치 군사적 신뢰조성을 가로막는 물리적 차단물임. ○ 군부독재시기의 차단봉을 아직도 걷어치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현 남조선당국자들 역시 대결과 분열정책에서 정권유지의 출로를 찾고 있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줌. * 콘크리트장벽 구축 15돌즈음
<p>1994. 12. 14</p> <p>外交部長 김영남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弔問謝過 없으면 南北對話 不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韓側이 조문금지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한 南北對話는 결코 속개되지 않을 것임. ○ 金正日에 대한 인민들의 추도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 ○ 金正日이 아직 국가주석직을 승계치 않고 있는 것은 3년상을 치르는 전통예법을 따른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17</p> <p>韓美聯合司 대북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國은 '95.2월에 KEDO創立總會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참가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停戰委員會 召集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軍헬기의 12.17 DMZ북방지역 불시착과 관련하여 군정위 소집을 요구함.
<p>1994. 12. 24</p> <p>金 應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就任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의 실질적 進展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적 民族共同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임. ○ 統一問題를 현실로 끌어내려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19</p> <p>駐유엔 副大使 김종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停戰協定の 平和協定 代替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軍 헬기가 北韓領空에 들어 왔을 때 경고사격을 했으나 착륙하지 않고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격추시켰음. ○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
<p>1994. 12. 21</p> <p>黨·政·團體 代 표협의회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國家保安法 撤廢 對策委員會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의 元年 1995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당면대책에 대해 협의했음. ○ 國家保安法 철폐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이기 위한 조직적 대책으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철 부총리)를 내오기로 결정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25</p> <p>孔魯明 외무부 장관 就任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 개선은 美北合意 이행에 必須前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合意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됨. ○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南北關係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임.
<p>1994. 12. 30</p> <p>韓·美 頂上 電話 通話</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體制는 南北當事者間 問題 強調</p>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 발언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當事者間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韓·美가 함께 노력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클린턴 大統領 발언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헬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미국의 어떤 성명도 미 북간의 양자협상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韓半島 平和問題는 남북한 두 당사자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미·북간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26 中央通信「詳報」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韓 直接接觸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실은 美軍 직승기에 의한 우리측 領空侵入이 우리의 자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의도적인 정탐행위라는 것을 실 증해 주고 있음. ○ 美군부가 새로운 협상기구를 내올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행동이 아 닌가 하는 의심마지 갖게 하고 있음. ○ 사태의 엄중성으로 보아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자기의 軍法에 따르는 조 사를 계속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처리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30 外務部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의 早速再開 및 南北關係의 進展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에 억류되어 있는 보비 홀 준위가 송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은 韓半島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의 실체를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음. ○ 우리는 북한측이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의 제거를 위해 南北對話의 조속한 재개와 南北關係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 남북한간 협의에 의해 現停戰體制가 平和體制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군정위 활동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4. 12. 30 中·平放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美헬기 조종사 送還관련 「諒解文」등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국무성 부차관보 허바드가 대통령 특사로 12.28~30평양을 방문하고 공화국 관계일꾼들과 會談을 진행했음. ○ 쌍방 사이의 회담들과 호상 합의한 諒解文에서 미합중국측은 미군 직송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불법침입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시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담보했음. ○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조미사이에 軍部接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했음. ○ 미국측은 남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측의 전쟁포로들인 非轉向장기수들이 빨리 송환되도록 지대한 협력을 할데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응했음. ○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요청을 고려하여 공화국 정부는 관용성과 인도주의를 발휘하여 미군 직송기 조종사 보비 홀을 돌려 보내기로 했음.

1995年

1995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1</p> <p>金泳三 大統領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和解 協力を 통한 民族繁榮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南과 北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 ○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키워 우리의 오랜 염원인 민족통일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것임. ○ '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번영, 민족의 統一과 榮光을 앞당긴 참다운 광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p>1995. 1. 3</p> <p>金 惠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 방송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의 實質改善 方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對北政策 기조는 現實主義的 觀點에서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임. ○ 북한은 아직 변화를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임. ○ 가공적인 논리나 당위성 차원에서의 논의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라도 實踐해가는 통일과정을 시작해야 함.
<p>1995. 1. 6</p> <p>金泳三 大統領 연두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經濟協力 活性化 조치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임. ○ 우리는 「民族發展 共同計劃」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것임. ○ 민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南北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1</p> <p>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平和保障體系 樹立 對美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民族의 大團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함. ○ 나라의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임. ○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하며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 朝·美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될 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로 이어지게 될 것임.
<p>1995. 1. 6</p> <p>中央通信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日本 「觀光協定」 締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 국제체육문화축전(4. 28~30)과 관련한 觀光協定이 최근 조선국제여행사와 日 쯔카이여행사·일본교통공사 사이에 서명되었음. ○ 쯔카이여행사와 일본교통공사는 관광객 모집 단일창구가 될 것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을 비롯한 남북한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南北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수적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9</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이며, 관광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독립적으로 취급하게 됨.</p> <p style="text-align: center;">美國商品 搬入制限 및 貿易船舶 入港禁止 解除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은 朝·美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美國 商品の 우리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 무역선박의 우리나라 입항을 금지하던 조치를 1월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해제조치로서 우리는 朝·美 基本合意文에 명시된 무역투자장벽 완화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 지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됨. <p>*美 國務部,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1. 20)</p>
<p>1995. 1. 16</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輕水爐 明記 拒否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남조선 3자 실무협상에서 경수로 제공계약서에 경수로의 型을 남조선型이라고 명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함. ○ 여기에는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韋방을 놓으려는 남조선 당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음. ○ 남조선형을 계약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朝·美 합의에 따르는 경수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음.
<p>1995. 1. 20</p> <p>美·北韓 폐연료봉 전문가 회담(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廢燃料棒 協商 「共同報道文」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18~20 진행된 폐연료봉 전문가협상은 유익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의의있는 진전을 이룩했음. ○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 처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1 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의 進展이 있어야 追加的 緩和措置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의 核活動 凍結등 의무이행에 맞추어 취해진 초보적 조치임. ○ 美國은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서는 南北對話의 진전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금번 완화조치가 북한의 개방 및 성실한 美·北 合意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3</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東北亞 多者安保對話 反對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北亞地域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났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복잡성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후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대한 일부 세력들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집에서 우리는 동북아지역에 그 어떤 다무적 성격의 安保對話 출현도 반대함.
<p>1995. 1. 24</p> <p>정당·단체 연합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8·15 共同慶祝 및 「大民族會議」 개최 對南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 50돐을 南北, 海外的 各당 各派 各계各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을 제의함. ○ 8·15 민족공동의 경축행사를 계기로 北과 南, 海外的 各당 各派 各계各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大民族會議」를 열고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기함. ○ 北을 방문할 것을 원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정치인들과 인사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 개별인사들과도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 ○ 온 민족이 8월의 대축전장에 자리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5 統一院 次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8·15 共同慶祝行事 및 懸案問題 협의 次官級 會談 수정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大民族會議 개최제의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북한측이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의해 온 것을 환영함. ○ 光復節 共同慶祝行事를 포함한 南北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쌍방 당국의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주앉게 되기를 기대함. ○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北韓側이 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 될 것임.
<p>1995. 1. 25 李基澤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 및 關係改善을 위해 訪北用意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계구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천명해 놓은 北韓訪問을 조속히 실현 시키도록 하겠음. ○ 남북 정부사이의 對話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야당대표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4</p> <p>外交部 代辯人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美國의 重油 5만톤 引受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은 중유 5만t을 1.17과 1.19 선봉항에 운반해 왔으며 1.23까지 하선작업을 전부 끝마쳤음. ○ 1.20 美국무성은 재산동결 해제 등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7</p> <p>孔魯明 外務部 長官 연설</p> <p>* 지역정책연구 원 조찬 강연 회</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경수로 제공에 南北對話 必須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필수적임. ○ 現정전체제는 南北韓間 直接對話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 27 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次官級會談 提議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 當局이 당사자들인 政黨·團體들과 各계대표들이 의사 표시도 하기전에 제일 먼저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언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분별없는 망동임. ○ 남조선 당국이 8·15 共同慶祝行事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大民族會議는 통일전선방식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공동경축 자체도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임. ○ 남조선 당국이 이번 성명에서 취한 태도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p>1995. 1. 28 社會民主黨 代 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民主黨 代表 平壤訪問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방문 의사를 다시금 밝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기회에 이기택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 ○ 平壤방문이 실현되면 공화국 북반부의 책임있는 정당대표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統一問題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결상태에 있는 北南관계를 개선하는 출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
<p>1995. 2. 1 社會民主黨 김 병식 위원장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李基澤 민주당 대표에게 南北政黨會談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統一大祝典과 大民族會議를 실현하는 여기에 '90년대 통일의 열쇠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는 北과 南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만나야 함. ○ 北과 南의 정당들이 우선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게 되면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같은 견지에서서 귀당에 접촉을 실현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 ○ 시일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로는 평양·서울이나 혹은 板門店도 좋고 제3국도 무방할 것임. <p>*「祖國戰線」 중앙위, 민자당·신민당·새한국당에도 유사내용 便紙 발송</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3</p> <p>金 憲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當局者會談 對北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해외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이산가족들도 함께 참관케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이산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물자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쌍방 당국이 함께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빠른 시일안에 한국 언론인들의 非政治的 分野에 대한 방북취재활동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함. ○ 우리기업들의 經濟活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나진·선봉지역만이 아니라 그 어느지역도 방문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함. ○ 우리 기업인들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 줄것을 촉구함. ○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평양·판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앉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1</p> <p>제2차 美·北韓 경수로 專門家 會談 (1.28~,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경수로 協商 「共同報道文」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는 '95. 1. 28~2. 1 베를린에서 조선에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발전소 제공에 관한 제2차 협상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의 사항들에 부합되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하기위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쌍방은 協商에서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경수로提供協定 締結을 위하여 합의되어야 할 주요문제들에 는 원자로型과 제공범위, 재정문제들, 계약체결방식, 핵안전과 책임 그리고 경수로 대상과 관련한 필요한 담보들이 포함된다 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음. ○ 핵안전문제에 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수로 대상에 관 한 다음번 협상은 '95. 3월중에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기로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3</p> <p>孔魯明 外務部 長官 記者會見</p>	<p>을 수 있기를 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당국자의 수준과 회담개최시기 및 장소의 선정문제는 북측에 일임함.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경수로 供給協定은 南北對話 없이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對話에 진전이 없어도 제네바 북·미합의에 따라 오는 4월 21일 이전에 對北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될 수 있음. ○ 北·美合意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가 조화있게 병행돼야 하지만 둘 사이에 직접연계가 있는 것은 아님. ○ 공급협정이 체결되면 南北對話가 촉진될 계기가 될 것임. ○ 北·美연락사무소 개설은 南北關係改善 등 모든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임.
<p>1995. 2. 6</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當局者會談 수용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動新聞 논평(2.6)은 아직까지 비난 자체일뿐, 공식적인北韓 당국차원의 거부 의사로는 볼 수 없음. ○ 북한측은 우리측 부총리의 對北聲明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한 사람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호응해 오길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6 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일원장관이 행사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니하며 끼어들어보려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수에 맞지않는 상식이하의 무례한 행동임. ○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에 누구를 초청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인인 우리가 필요한 때에 가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임. ○ 우리의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이미 내놓은 조국해방 50돐 통일대축전행사 및 대민족회의 소집과 관련한 제안을 실현하는데 제방을 놓는 행동이나 하지 않아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해 대방의 유고에 조의예절마저 지키지 않고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 응당사죄하여야 하며,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p>1995. 2. 8 「祖平統」代辯 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대화 분위기조성 대남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 4일 외무부장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어 南北對話 재개문제를 구결하는 이른바 청탁외교를 벌이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9</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從軍慰安婦 관련회의 北側參加問題 긍정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차중군위안 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2. 27~3. 1)」에 北側代表團의 參席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중임.
<p>1995. 2. 10</p> <p>金 應 副總理兼 統一院長官 관 훈토론회 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原子力 協定」 必要性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가 경색되고 있는 1차적 이유는 북한권력 체계의 불안정에 있으며, 남북정상회담문제는 북한에 새 主席이 선출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임. ○ 北韓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으며,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는 北美合意 이행과 연계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8</p> <p>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 代辯人 談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의 對話問題는 民族內部 問題로서 남에게 청탁할 일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해서 해결될 問題도 아니고 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對話를 再開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사죄하는 일부터 해야하며, 동시에 國家保安法과 같은 반대화, 반통일악법을 폐기함으로써 대화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서울 從軍慰安婦問題 관련회의 參加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과 南의 여성들이 조국해방 50돐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죄행을 폭로하고 피해보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일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함. ○ 제3차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우리측에서 전 종군위안부를 포함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보낼 것임. ○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16</p> <p>金 應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연설</p> <p>*「민주평통」 자문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問題를 미북간의 논의로 생각할 수 없으며, 2+2 方式 타결문제는 우선 남북한 체결후 문제이며, 국제적 보장문제는 그 뒤의 일임. ○ 韓國이 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자가 되면 南北間 「원자력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하며, 그 時期는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5년이내가 될 것임. ○ 실질적인 한국형 採擇이 보장되면 기종을 표현하는데 있어 明記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형 이외의 다른 것으로 誤解될 소지는 없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當局者會談 호응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가 光復 5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북한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南北對話의 재개와 실질적 개선에 성의있게 호응해오기를 기대함. ○ 韓國型경수로를 거부하는 것은 美·北 合意구도의 이행에 장애로 될 것이며 한국형경수로를 받는 것이 안정성은 물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함. ○ 北韓이 계속 美·北韓평화협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15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경수로 강요시 美·北合意 파기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무조건 한국형이라는 이름까지 강요하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경수로型 문제와 관련한 압력수단으로 T/S 훈련 재개 소문까지 내들리고 있음. ○ 이때문에 설사 朝·美合意가 깨진다해도 그리고 T/S훈련때문에 모든것이 조·미회담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간다해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음. ○ 美國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基本合意文이 이행되지 못할바에는 경수로 제공논의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초기단계에서 합의문이 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을 수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평양축전에 해외동포와 외국의 언론인들은 초청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참관과 우리측 언론인의 방북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다시한번 촉구함.
1995. 2. 22	南北經協 통한 南北關係개선 方針 闡明
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就任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美간의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추진을 통한 南北關係 개선을 트는데 주력해 나가겠음.
1995. 2. 23	從軍慰安婦 연대회의의 관련 連絡官接觸 제의
李俊求 南北連絡 事務所 南側所 長 對北 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요청에 위해 제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의 판문점통과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편의제공 등에 관한 협의 및 신변안전보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20</p> <p>北韓 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 對南 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서울從軍慰安婦 연대회의 參加名單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은 종군위안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함. ○ 2월 26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하여 나가려하며, 신변안전담보 각서를 속히 보내주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단 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홍선옥(상무위원) - 성원 : 최금춘(상무위원), 리은심(위원), 박성옥(부서기장), 강덕순(위원), 김성립(위원), 박영심(종군위안부)
<p>1995. 2. 21</p> <p>아시아太平洋平和委 김용순委員長 對南 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大民族會議關聯 金大中 「亞太財團」 이시장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족회의 소집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안에 우리 위원회와 귀이사회 대표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을 제의함. ○ 상봉 장소로는 평양도 좋고 서울이나 제3국도 무방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24</p> <p>外務部 代辯人 論評</p>	<p>장각서 수교를 위하여 2. 26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 2명이 나갈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基本合意書 및 現停戰協定 준수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의 폴란드 중감위대표단 강제철수 위협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기본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것임. ○ 우리는 북한측의 이와같은 정전체제 와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 체제를 확고히 준수해 나갈 것임. ○ 우리는 북한측이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일방적 철수위협을 즉시 철회함으로써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
<p>1995. 2. 25</p> <p>國防部 代辯人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95 팀스피리트 訓練 中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그간 美國과 긴밀한 협의하 북한 핵관련 제네바 협의이 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95 T/S 훈련의 실시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음. ○ 제네바 合意事項은 현재 이행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韓·美 양국은 북한의 동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서 금년 3월중 실시기로 계획되었던 T/S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
<p>1995. 2. 26</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人的 왕래시 板門店 連絡官接觸은 쌍방당국간 慣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우리측이 身邊安全保障覺書 대신 訪問證明書를 발급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이를 불참 사유로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24</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保障體系樹立에 南韓排除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停戰協定을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임. ○ 더욱이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임. ○ 만일 미국이 법률적 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태의 견지에서보나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1995. 2. 25</p> <p>從軍慰安婦 및 태평양전쟁피해 자 보상대책위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서울 從軍慰安婦 연대회의 不參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표단이 회의성격상 판문점에 있는 적십자통로를 이용하여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함. ○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나서서 신변안전담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며 회의참가를 방해하였음. ○ 우리 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같은 불순한 책동을 반민족, 반통일 행위로 인정하며 강력히 규탄함. ○ 우리측이 부득이 회의에는 참가 못하지만 준비된 토론문들과 결의문 초안을 주최측에 보낼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28</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體制는 當事者가 解決할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판문점을 통한 인원왕래시 連絡官接觸을 갖는것은 20여년간 지속되어온 오랜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당국개입 운운하면서 연락관접촉 자체를 시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북측이 모처럼 마련된 민간교류행사에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體制는 當事者가 解決할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외교부대변인 담화(2.24)를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에 있어 大韓民國의 當事者 地位를 부정하고 美國과 平和協定 策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북한 주장은 法的, 現實的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인 우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음. ○ 정부는 當事者解決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해 나갈 것임.
<p>1995. 3. 1</p> <p>金泳三 大統領 제76주년 3·1 절 기념사</p>	<p style="text-align: center;">誹謗·中傷 中止 對北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이제 統一의 큰길을 활짝 열어야하며 먼저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함. ○ 우리는 이미 北韓의 경수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經濟 協力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北韓과 교류, 협력態勢를 갖추고 있음. ○ 이제는 北韓이 변화해야 하며, 민족자존과 민족단합의 3·1정신에 반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中止해야 함.
<p>1995. 3. 3</p> <p>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KEDO 設立協定에 韓國標準型 明示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輕水爐 공급협정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하고, KEDO는 다시 한국과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될것임. ○ KEDO 設立協定 문안에는 한국표준형이 적절하게 표기될 것이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2. 28</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停戰機構 無實化 策動 合理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해 4월 공고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제안을 내놓고 그 과정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軍停委에서 자기 대표단을 주동적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 中監委에 와있던 빨스카 대표단의 철수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필수적 요구임. ○ 빨스카 정부가 우리의 권고에 이해를 표시하고 中監委에 와있던 자기대표를 철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7</p> <p>金泳三 大統領 演說 *독일 외교단체 초청연설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에 穀物·原資材 提供 표명</p> <p>며,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에도 한국형은 명확히 들어가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에 제공될 원자로는 한국회사가 설계·제조·건설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이며, KEDO의 주계약자가 한국기업이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韓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北韓에 곡물을 비롯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用意가 있음. ○ 北韓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불신과 반목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交流·協力하는 길을 터나가야 함. ○ 정부는 南과 北이 급격한 통일에서 오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고 3단계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임.
<p>1995. 3. 7</p> <p>崔東鎮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KEDO 지원은 輕水爐에 局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제네바合意 문안대로 경수로 支援에 국한할 것이며 송배전시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KED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는 韓·美·日 3국이 각각 거부권을 갖는 전원합의제로 運營될 것이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나 자문위원회는 권고적 기능만 가짐.
<p>1995. 3. 8</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p>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穀物提供관련 當局者 對話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大統領의 대북 곡물, 원료, 물자제공 용의와 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적극 권장 등은 남북간의 實質的 關係改善과 화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7</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輕水爐 拒否 거듭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금 輕水爐 提供協定이 조·미사이에 합의된 4. 21까지 체결될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경수로에 대한 기대마저 허물어지고 있음. ○ 우리 核施設들의 동결과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정기 및 비정기사찰의 재개, 담보협정의 완전이행, 폐연료의 안전한 보장과 궁극적인 처분, 핵연료와 연관시설들의 해체 등 조·미기본합의문 이행 전반은 경수로 협정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고 상호 맞물려 있음. ○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 태도로 말미암아 경수로 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결심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p>1995. 3. 7</p> <p>政黨·團體 대 표협의회 進行</p>	<p style="text-align: center;">8·15 統一大祝典 北側準備委員會 結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통일대축전을 北과 南, 海外가 공동추진하려는 염원에서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성원을 선출했음. — 준비위원장 : 김용순 부 위원 장 : 4명의 정당·단체 책임일꾼 위 원 : 20명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9</p> <p>崔東鎮 경수로 기획단장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 지원 韓國의 中心的 役割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이란 韓國이 경수로 공급에서 中心役割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기업이 설계와 제작·건설을 담당하고 외국기업은 하청만 가능함. ○ 미북경수로 專門家會談은 베를린에서 3월하순 만나기로 한 합의사항이므로 美國이 KEDO의 위임을 받아 協商에 임하고 다음부터는 KEDO가 협상주체가 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10 平壤放送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의 對北物資 提供提議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北南關係 문제를 장사꾼의 더러운 솜씨로 해결해 보려는 김○○이나 나○○의 너절한 처사는 온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며, 통일문제·북남관계문제는 결코 물건잔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님. ○ 부총리 나○○가 기자간담회에서 北에 대한 그무슨 물자지원 제의라는 말갈지도 않는 수작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느니 呼應을 期待한다고 입방아를 찧었음. ○ 김○○이 北南和解와 協力を 바란다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각종 형태의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야 함.
<p>1995. 3. 11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輕水爐 수용불가 및 KEDO와 協商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남조선型 경수로를 반대하는 입장을 끝내 무시하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구의 목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실상의 도전이며 조미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같음. ○ 만일 美國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機構를 우리와 맞붙혀 놓으려하거나 그 무엇을 강요하려 한다면 경수로 협정은 아무때 가서도 성사될 수 없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20</p> <p>統一院 代辯人 聲 明</p>	<p style="text-align: center;">굴업도 核廢棄物 처리장의 立地妥當性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의 平和的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安全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북측이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입지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檢證과 確認을 받은 바 있음. ○ 北韓이 「남북합의서의 전면백지화」 운운은 남북당국간 對話를 계속 회피하고 기존의 남북합의사항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意圖에도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람. ○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장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15</p> <p>「祖平統」書記 局長 백남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合意書 전면 白紙化 威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모자를 씌운 경수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납입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경수로 사업에 美國만을 기본협상자로 간주할 것임. ○ 남조선 당국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함. ○ 만일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여 북남관계를 파국 에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생 존과 후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 임.
<p>1995. 3. 16</p> <p>8·15 統一大祝 典 북측준비위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 「全國聯合」측에 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결정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를 환영함. ○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고 보면서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제3국에서 접촉을 가질 것 임 제의함.
<p>1995. 3. 20</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駐韓美軍 장비증강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남조선 미군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 이미 20 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량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앞으로 500 대의 고속이동 차량을 더 끌어들인다고 함. ○ 이러한 대대적인 무력증강 책동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 와 안전을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 동임. ○ 美國은 긴장완화의 현 국제적 추세와 朝·美 基本合意文 정신 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시도를 포기하 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전이며,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엄숙한 민족적 약속으로 이를 破棄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p> <p>○ 북한은 우리측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선동행위를 중단하고 當局間 對話에 呼應해 나올 것을 촉구함.</p>
<p>1995. 3. 22</p> <p>金泳三 大統領 연설</p> <p>* 육사 임관식 치사</p>	<p style="text-align: center;">核合意 不履行時 세계의 對北膺懲 경고</p> <p>○ 北韓이 만약 核合意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p> <p>○ 北韓은 오래전부터 올해를 統一의 해로 정해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최근에는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우리 政府에 대해 격렬한 非難과 군사정전협정의 무력화 기도를 계속하고 있음.</p>
<p>1995. 3. 22</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記者懇談會</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經協은 南北關係 진전에 따라 擴大 表明</p> <p>○ 南北經協은 임가공·생필품 교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되, 다소 엄격한 현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가 進展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21</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國의 對北유엔제재시 自衛措置 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합의문 이행의 첫단계에 불과한 지금 대화상대방에 대한 제재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누구의 충동으로 입장을 변경시켰음. ○ 美國이 남조선型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 ○ 경수로 협정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核동결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만일 이 문제와 관련 부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에 대처해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 우리는 경수로 공급에 관한 3단계 協商에서 올바른 자세로 나오기를 주시할 것임.
<p>1995. 3. 22</p> <p>朝鮮反核平和委 員會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굴업도 핵폐기물 處理場建設 沮止 共同鬭爭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업도 核廢棄物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는 것은 北과 南의 반핵운동가들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절박한 과제이며 민족적인 의무임. ○ 우리 조선자연보호연맹과 반핵평화옹호단체들은 남조선 전국반핵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 및 환경보호단체들에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 ○ 雙方代表들의 협의장소는 양측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되, 귀측이 제기하는 임의의 장소라도 무방할 것이며 접촉날짜는 빠를수록 좋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29 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的交流는 김일성 생일과 평양축전 등이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5월 이후 추진이 바람직함. ○ 당분간 停戰協定을 지켜 나가되 남북간에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정착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 拒否時 對北輕水爐 지원 不可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型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며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확고한 입장임. ○ 한국은 비용부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경수로 문제와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23</p> <p>美北 輕水爐 會 談 北側團長 김 정우 記者會見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4·21」은 美·北 輕水爐 協商 최종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채택문제는 의제조차 될 수 없으며, 협상진전 여부는 경수로 선정에 관한 미국측 태도에 달려있으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일자인 4.21은 완료일자임. ○ 이번 협상의 진전여부는 경수로 爐型 선정문제가 어떻게 해결 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北美 기본합의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임. ○ 美國의 이번 협상은 실제로 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될 것임.
<p>1995. 3. 28</p> <p>평양시 행정경 제위원장 박남 기 연설</p> <p>*평양시 군중 집회</p>	<p style="text-align: center;">金日成 弔問관련 對南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이 統一院 代辯人을 내세워 지난해 우리의 유고당시 저들의 대응태도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다느니,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느니 하고 도전해 나선데 대해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거세찬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음. ○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저들의 죄행을 사죄할 대신 조의예절 문제마저 정치화하여 사람들을 위협공갈하는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직맹」위원장 주성일·「사로청」위원장 최용해·「농근맹」위원장 최성숙, 조문관련 남측행위 비난 담화 각각 발표
<p>1995. 3. 29</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輕水爐 協商에서 「劃期的 提案」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한 협상(3. 25~27 베를린)에서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았으며, 미측은 우리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30</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발언</p> <p>* 이코노미스트 클럽연설</p>	<p>관련한 대화채널은 KEDO가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頂上會談은 北韓측이 유고로 연기했던 만큼 권력승계절차가 끝난후 먼저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순서임. ○ 經協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의 보장과 제도적 틀이 필요하며,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가 필수적임.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 排除時 對北輕水爐 事業 不可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 비용을 대부분 대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면서 민족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최근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한국참여를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하청수준에 불과하며, 정부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북한은 우리를 소외시킨채 북미간 교섭만으로는 경수로 사업 자체의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p>1995. 4. 1</p> <p>南北基督敎人 共同發表文 채택</p> <p>*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8·15 南北韓 共同禮拜 板門店 개최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오충일)·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의 날로 선포한 올해 광복절에 南北韓 敎會가 「8·15회년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드리로 합의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3. 29</p> <p>8·15 民族統一 大祝典 北側準 備委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祝典 관련 民間級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따라 양측은 협상을 일시중지키로 하고 다음 협상은 4월 중순에 베를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 ○ 우리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문제해결은 대화 상대방의 진지한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p>*대상자 : 이회창, 신창균, 이영희, 이우정, 최지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이 마련되면 90년대 통일을 위한 길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임. ○ 8·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중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함.
<p>1995. 3. 30</p> <p>8·15 民族統一 大祝典 북측준 비위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祝典 關聯 民間級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김상현, 이현재, 백낙청, 박용길, 박형규 ○ 북과 남, 해외가 다같이 참가하는 조국해방 50돐 경축 민족 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통일의 길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임. ○ 남조선 여러인사들과 8·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중에 제3국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함.
<p>1995. 4. 1</p> <p>南北基督教人 共 同發表文 채택</p> <p>*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8·15 南北韓 共同禮拜 板門店 개최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독교도연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의 날로 올해 광복절에 북남의 교회가 「8·15 회년 공동 예배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음. ○ 8·15공동예배에는 해외의 다른 교단들도 참가할 수 있으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일본 교토)</p> <p>1995. 4. 1</p> <p>8·15 民族統一 大祝典 北側準 備委 代辯人 談話</p>	<p>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쌍방의 실무대표들이 준비회의를 갖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 政黨·團體들에 接觸提議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조국해방 50돐 경축 民族統一大祝典을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3.7 정당·단체대표들로 민족통일대축전 北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전 준비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 민족통일대축전을 거래의 염원에 맞게 개최하자면 北과 南의 정당·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직 民族愛와 自主의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접촉하고 협의하여야 함. ○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단체들이 우리의 민족통일대축전 제의에 호응하여 쌍무적 및 다무적 접촉의 길에 나설 것을 기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14 統一院 代辯人 發表演</p>	<p style="text-align: center;">不法訪北 安浩相 사법처리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 발표에 의하면 安浩相 일행은 단군릉을 돌아보고 어천절 기념제를 가졌다고 하나 당초 방문 예정지인 구월산 방문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政府는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는 대로 訪北경위와 방북시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처리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13 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平和協定 우선해결 對美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베를린 경수로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朝美合意文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음. ○ 朝美合意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와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부터 해소 시켜야 함. ○ 美國이 합의문 이행을 원한다면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의문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p>1995. 4. 14 天道教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 安浩相 4.16 板門店 경유 歸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행은 건강한 몸으로 방문일정을 뜻깊게 보내고 있으며,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4.16 11:30에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게 될 것임.
<p>1995. 4. 17 中放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韓美合同軍事 훈련은 합의문 違反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이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북침을 위한 또한차례의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려 하고 있음. ○ 朝·美기본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장애를 조성하는 도발적인 합동군사 훈련을 벌이지 않아야 함. ○ 우리는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선불질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백배의 보복을 안길 것임.
<p>1995. 4. 19 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先 평화협정, 後 경수로협상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 의하면 4.14 美국방성은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들이 합동군사 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21</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輕水爐 會談에서 南北對話는 必須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경수로 회담 결렬은 당초 제네바합의 이행의 구도가 美北간 회담 형식으로만 진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南北韓 및 美·北韓間 회담구도로 진행되었어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었을 것임. ○ 제네바합의의 기본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의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南北對話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럴경우 北韓이 필요로 하는 바를 지원할 수도 있음.
<p>1995. 4. 22</p> <p>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核凍結 해제시 對北制裁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美·北간 협상이 심각한 膠着狀態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政府는 4.21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목표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따라서 北韓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核凍結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함. ○ 韓美양국은 북한이 核凍結을 유지하는 한 언제든지 協商문호는 열려 있음을 闡明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21</p> <p>「平祝」 준비위 事務局長 김관 철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聯」南側本部 의장등 訪北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미국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응당한 대응조치를 고려치 않을 수 없음. ○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는 朝美間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며 美軍을 철수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 경수로 제공을 비롯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도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평양축전 준비위를 대표해서 汎民聯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단체 인사들을 명예손님으로 초청함. ○ 일행의 평양방문은 판문점을 경유해도 좋고 제3국을 거쳐도 무방할 것임.
<p>1995. 4. 22</p> <p>美 · 北 경수로 회담 北側團長 김정우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 · 北 경수로회담 결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수로 문제의 타결을 위해 획기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음. ○ 그러나 미국측은 있지도 않은 남조선형 경수로를 계속 강요함으로써 협상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그 책임은 美國側에 있음.
<p>1995. 4. 22</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國側의 高位級會談 제의 檢討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부당하게도 있지도 않은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까지 내려먹이려 한 것으로 해서 협상은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27</p> <p>國防部 對北 警告文 발송</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線에서의 停戰協定違反 對北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최근 휴전선 18개 지역에서 40여차례 정찰활동을 펼치면서 두차례나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나 我軍은 美北핵협상과 南北對話 등을 고려 즉각 대응을 자제해 왔음. ○ 北韓軍의 최근 남측지역 침범과 관련 停戰協定違反이 재발될 경우 北韓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對北警告文을 유엔사를 통해 北側에 발송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4. 26</p> <p>國家環境保護委員會 대변인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DMZ 管轄權은 美·北韓만 가능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美 국무성 순회대사 갈루치는 우리에게 5월 첫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기했음. ○ 우리는 정부급에서 美國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임. ○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
<p>1995. 4. 27</p> <p>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輕水爐 協商결렬 美國側에 責任轉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며 우리에게 부담한 요구사항들을 강요하여 나선것은 核問題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끼고 우리를 압살하자는 것임. ○ 美國이 그 무슨 제재설을 내돌리면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없음. ○ 우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주권이 사소하게나마 침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자적인 결심과 응당한 자주적 권리에 따라 강한 자위적 대응조치로 맞설 것임. ○ 美國이 우리에게 정치협상을 제기해 왔는데 우리는 그 진의를 알아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2</p> <p>外務部 當局者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韓國型」固守 闡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미국의 高位級會談 제의에 先제조건없이 同意(5.1)해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회담개최시기, 장소에 관해서는 미·북한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 정부는 동 회담에서도 對北경수로 제공에 있어서 「한국형」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 입장을 固守할 것임.
<p>1995. 5. 3</p> <p>宋月珠 조계종 총무원장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佛敎人 접촉 對北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조선불교도 연맹이 오는 8.15 판문점에서 「조국통일기원」 合同法會를 갖자고 提議해 왔음. ○ 오는 5.23일 北京駐在 北韓大使館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명칭·참가대상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의함.
<p>1995. 5. 4</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中監委事務室 閉鎖는 停戰協定 違反行爲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의 5.3 中監委사무실 폐쇄조치는 現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를 美·北간 교섭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 ○ 남북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 제5조에 現軍事停戰協定을 준수하기로 合意하였음. ○ 따라서 南北當事者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 위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전협정 무효화 策동을 즉각 중지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3</p> <p>朝鮮人民軍 板 門店 대표부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板門店 中監委事務室 閉鎖措置</p> <p>○ 조선인민군 板門店대표부는 美國側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 계 수립제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p> <p>i) 판문점 중감위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을 완전히 廢鎖함.</p> <p>ii) 美軍側 성원들과 기자들, 중감위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 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일체 금 지함.</p> <p>iii) 美國側이 비무장지대 남측지대에서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11</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記者懇談會</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韓國型』『中心的 役割』固守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는 韓國型을 의미하며, 참조발전소로 올진 3·4호기가 명시되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主契約者로 되어야 함. ○ 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을 양보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다면 표현법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 ○ 평화협정문제는 南北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美·北 고위급회담서 다를 사안이 아님.
<p>1995. 5. 15</p> <p>金泳三 大統領 演說</p> <p>* 국제언론인협회(IPI) 제44차 총회 개최식</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에 穀物, 原料, 物資提供 用意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보의 단절』이 반세기나 지속되고 있고, 수백만 南北離散家族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며 편지 한장, 전화 한통 주고받을 수 없음. ○ 北韓 주민은 외부세계와의 철저한 차단속에서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통제와 억압의 삶을 살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11</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고위급회담 再開關聯 立場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美國側의 立場을 고려하여 회담에 응하기로 했으며, 현재 쌍방은 회담장소와 시일문제에 대해 討議중에 있음. ○ 우리는 앞으로 열리게될 회담에서 朝美基本合意文 이행에 관한 美國측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 ○ 미국측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가에 따라 회담결과가 좌우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잠정적』으로 核凍結을 더 유지하게 될 것임.
<p>1995. 5. 12</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平和保障體系 樹立을 위한 必要措置 強行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국무성대변인과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을 내세워 마치 우리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아닌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우리의 조치를 결코 든 것은 어이없고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시기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보다 더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는 미국이 바라든 바라지않든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함. ○ 미국이 우리의 평화보장체계수립 제안을 무시하고 남조선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응조치가 있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21</p> <p>國防部 代辯人 발표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의 人權問題는 국제언론인협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북한체제의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 ○ 우리는 南과 北이 함께 번영하는 한민족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北韓核問題에도 불구하고 對北經濟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기로 한 것도 이런 취지임.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 對北 將星級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19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장성급 접촉』을 5.23 軍停委 회의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유엔사 스미스 소장의 駁翰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음.
<p>1995. 5. 25</p> <p>(유엔사 관계관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단독 將星級接觸 提議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사측은 판문점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단독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음.
<p>1995. 5. 26</p> <p>羅雄培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穀物 支援關聯 쌍방 當局代表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北側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提供할 用意가 있음. ○ 제공할 곡물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수송 및 운반 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해 南北間에 協議하기를 희망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24 (*5.25 한국 국 방부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단독 將星級接觸 逆提議</p> <p>○ 北韓側은 판문점 일직장교접촉을 통해 UN사측 제안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이찬복 중장과 UN사 스미스 소장이 5.25 만날 것을 提議하였음.</p>

■ 1995年 5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를 協議하기 위해 쌍방 당국 대표들이 北側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만날 것을 提議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27</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名稱拒否, 輕水爐 生產地 不問 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언론들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우리측이 아예 통째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잘모르는데서 출발한 억측에 지나지 않음. ○ 우리는 첫시기부터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제품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해오는 것이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데는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음. ○ 문제는 美國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경수로에 남의 이름을 따라 우리에게 提供하겠다고 固執하는데 있음.
<p>1995. 5. 29</p> <p>外交部長 김영 남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型』輕水爐 拒否 再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경수로가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제품인가에 관심을 돌리고 있을 뿐이며, 경수로가 어디서 제작되었는가는 개의치 않음. ○ 남조선은 미국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하여 제작된 경수로를 저들의 이름을 붙여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음. ○ 남조선제 경수로라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5. 31</p> <p>姜英勳「韓赤」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p>	<p style="text-align: center;">被拉「86 우성호」 및 乘船漁夫 送還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당국에 의하면 5.30 하오 12:50경 백령도 북서방 25마일 지점 해상에서 우리측 민간어선 「86우성호」가 귀측의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함. ○ 이번 사건은 선장 김부곤 외 7명의 어부들이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 항로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귀 赤十字會가 적십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86 우성호」와 그 승선어부들이 즉각 送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p>1995. 6. 6</p> <p>宋榮大 統一院 次官 發表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穀物提供 관련 北韓側의 직접호응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일본 정당측으로부터 북한이 한국의 쌀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으나, 오늘 현재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직접 받지 못했음. ○ 어떠한 정치적 조건없이 쌀과 다른 식량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 ○ 우리는 쌀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에게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국자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측이 직접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바람.
<p>1995. 6. 7</p> <p>외무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會談의 「원칙적 합의」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준고위급회담 「發表文案」에 대해서는 韓·美·日 3국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서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 ○ 북한측 외교부 발표와 달리 현재 美·北 양측이 회담전체 윤곽에 합의하였거나,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7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準高位級 會談에서 「原則的 合意達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 오후 쾰라룸푸르 회담에서는 드디어 경수로형 선정, 계약체결방식, 미국의 책임문제, 부지정리, 비용부담문제 등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룩되었음. ○ 우리는 대화 상대방이 이미 합의된 원칙들을 존중하는 한 朝美 會談은 곧 계속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8</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穀物支援 관련 日本側에 신중대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쌍방 당국자 접촉을 제의하고 북한측이 직접 통보 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北韓으로부터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이 곡물을 북한에 먼저 제공할 경우,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韓·日關係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 南北 당국사이의 직접 접촉에 의해 우리의 對北穀物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日本측이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함.
<p>1995. 6. 13</p> <p>姜英勳 「韓赤」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赤十字連絡官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31 귀하에게 『제86호 우성호』와 그 선원들이 즉각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그 선원들이 순수 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전달을 위해 6.15, 10:00 板門店 中監委員會의실에 2명의 赤十字 連絡官을 내보낼 것이니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8</p> <p>平壤放送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再開 拒否立場 再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에게는 北南對話를 재개할 의사도 없거니와 대화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음. ○ 지난 3월 동족의 유고와 관련하여 감행한 반민족적 야만행위를 다시금 정당화해 나선 것은 공공연한 反統一 대결선언임. ○ 역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신성한 대화마당에 절대로 마주 앉을 수 없음.
<p>1995. 6. 10</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會談 지연때 폐연료봉 再處理 警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연료봉 보관문제는 반드시 경수로 제공문제의 진전과 병행해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임. ○ 지금 계절변화로 말미암아 폐연료의 부식작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망을 가늠할 수 없는 會談에 발목만 묶여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 ○ 朝美會談이 지연되는 것으로 하여 우리가 폐연료봉과 관련하여 취하려는 조치는 부득이하고 당연한 것으로 될 것임.
<p>1995. 6. 13</p> <p>美·北 準高位 級會談 (5. 19~6. 12 칼라룸푸르)</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공동보도문」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미국 주도하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사업의 재정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함. ○ 경수로사업은 각각 2개의 냉각계 유로를 가진 1천 MWe 경수로 2기로 구성되며, KEDO선정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함. ○ KEDO는 경수로사업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부지조사와 부지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공급범위에 포함됨. ○ 쌍방은 중유의 단계적 공급문제와 폐연료봉의 안전보관문제를 협의, 실천하기 위하여 6월중에 북한에서 접촉기로 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5. 6. 13 尹汝雋 青瓦臺 代辯人 發表文	<p style="text-align: center;">美 클린턴 大統領, 對北輕水爐 『韓國型』, 『韓國의 中心的 役割』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美대통령은 오늘 팔라룸푸르 경수로 회담관련 金泳三 大統領에게 친서를 보내왔음. ○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對北輕水爐 제공은 『한국형』이 될 것이며 『참조발전소』는 올진 3·4호기임을 확인하였음. ○ 『主契約者』는 한국회사로서 설계, 제작, 시공, 사업관리,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1995. 6. 13 外務部 聲明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 『韓國型』, 『韓國의 中心的 役割』 貫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미·북합의는 대북경수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지지함. ○ 우리 정부의 2대 원칙인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관철되었음. ○ KEDO와 북한간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궁극적으로 북한핵문제의 완전 解決을 기대함. ○ 경수로 사업의 이행관련 南北對話의 조속 재개가 필수불가결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함.
1995. 6. 15 姜英勳 『韓赤』 總裁 對北聲明	<p style="text-align: center;">『제86 우성호』 및 船員 早速送還 거듭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이 5.30 나포한 『제86 우성호』는 민간어선으로서 赤十字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의 입장에서 지체없이 送還되어야 함. ○ 나포과정에서 발생된 사상자의 신원통보와 시신을 가족들에게 즉시 인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임. ○ 北韓側은 오늘 판문점에서 전달하려했던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접수마저 거부하였음. ○ 피납선원들이 순수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신상자료와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北韓赤十字會側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13</p> <p>美·北會談 北側團長 김계관 記者會見 (콜라롬푸르)</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 『韓國型』, 『韓國의 中心的 役割』 거듭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 쌍방은 경수로 제공에서 심각한 논점들을 討議하고 合意 하였음. ○ 경수로형의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며 朝美사이에 결정할 문제임. ○ 『韓國型』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경수로형은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으로 합의하였음. ○ 朝·美合意에서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p>1995. 6. 15</p> <p>外交部 代辯人 談話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輕水爐 『韓國型』 거듭 否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제공될 경수로는 미국설계와 기술의 개량형이라고 명기된 것으로 하여 『한국형』이란 실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해도 미국의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대상이 될 것임. ○ 미국이 KEDO를 어떻게 운영하든 관여치 않을 것이며, 우리는 KEDO를 대표하는 美國을 『기본상대자』로 대할 것임. ○ 우리는 지금까지대로 동결 의무만 이행하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5. 6. 21 제1차 北京會談 ('95. 6.17~ 비공개)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쌀제공 관련 『合意』 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t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함. ②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선박을 출항시키며, 남측 선박으로 해상을 통해 청진, 나진항 등에 인도함. 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음. ④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南側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함. ⑤ 南과 北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함. ⑥ 南과 北은 '95.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함. ⑦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함. <p style="text-align: center;">* 李錫采 재경경제원차관-북한정무원 산하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고문 손쥬철 서명</p>
1995. 6. 25 南·北韓, 비공개 실무접촉 『契約書』 채택 (6.23~, 북경)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쌀제공 15만t 全量 8.10 이내 提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과 동시에 첫선박을 출항시키되, 對北쌀제공 15만t 전량을 오는 8.10 이전까지 北側에 제공키로 함. ○ 쌀의 품질은 습도 1.5% 이하, 파쇄율 5%이하 등 국내 농산물 검사 규격에 준함. ○ 수송은 5천톤급 이상의 南側船舶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제3국 선박을 이용할 수 있음. ○ 우리측은 출항 5일전에 선박의 제원, 선원명단, 쌀의 품질 및 수량 등을 北京駐在 북한대사관에 통보함.
1995. 6. 29 統一院 代辯人 브리핑	<p style="text-align: center;">『시 아펙스호』 人共旗 揭揚關聯 公式謝過 없으면 쌀支援 中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6.26 『시 아펙스호』가 북한측의 강요로 인공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북한측은 『북한 항구에 입항시 쌍방의 깃발을 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21 제1차 北京會談 (’95. 6.17~ 비공개)</p>	<p>※ 북측은 쌀제공 관련사항 일체 미발표</p>
<p>1995. 6. 25 南·北韓, 비공 개 實務接觸 『계약서』 채택 (6.23~, 북경)</p>	<p>※ 북측은 『합의사항』 일체 미발표</p>
<p>1995. 6. 29 外交部 『備忘 錄』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 對美促求</p> <p>○ 정전체제는 복구할 수도 재생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었으며 이 제는 새로운 체제로 교체하는 길밖에 없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3</p> <p>宋榮大 統一院 次官 發表文</p>	<p>두 달지않기로』한 北京會談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경 당국간회담 당사자인 전금철 명의의 공식사과가 없는 한 추가 선적과 출항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회항토록 지시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 쌀支援 再開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측의 회신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온 결과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일단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하였음. ○ 현재 중단되고 있는 對北 쌀지원을 위한 도정, 포장, 선적, 수송 등 모든 작업은 곧 再開될 예정이며, 회항한 운송선박에 대해서는 다시 출항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 정부는 이번 對北 쌀지원이 南北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6. 30</p> <p>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 高문진금철 對南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아펙스호』人共旗 계양관련 公式謝過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단을 내려야 함. ○ 미국이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이 이를 외면하는 길로 나간다면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냉전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나 하나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南側의 첫 선박이 우리측 항구에 입항하면서 서로 合意事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일꾼들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함. ○ 앞으로 호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대하여 言明하는 바임.
<p>1995. 7. 3</p> <p>外交部長 김영남,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駐韓 유엔司 召喚 協調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낡은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세우는데서 방해로 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유엔이 개입되어 있는 것임. ○ 유엔 성원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유엔과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임. ○ 연합군으로 하여금 유엔 깃발을 사용토록 허용한 조건에서 그것을 내리우고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p>1995. 7. 4</p> <p>朝鮮人民軍 板門店 代表部 대표 이찬복 對유엔司 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장성급접촉 實務接觸 결렬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측이 실무접촉을 결렬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10</p> <p>李洪九 國務總理 國會答辯</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새指導者 등장시 南北頂上會談 期待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그동안 긴장완화와 상호신뢰회복, 특히 核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南北頂上會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왔음. ○ 北韓의 새 지도자 등장이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11</p> <p>사회민주당 중앙위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8·15 統一大祝典』同參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 ○ 美國측이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도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그무슨 적화통일이니 내부교란이니 하는 황당한 구실로 8.15 민족통일대축전으로 향하는 남조선의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음. ○ 이념이 다르고 주의주장이 같지 않다고 하여 대축전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투쟁에서 발걸음을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남조선의 民主黨이 北과 南, 海外의 광범한 통일애국역량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p>1995. 7. 14</p> <p>『祖平統』書記局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쌀제공 관련 『불순한 목적추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되지도 않는 쌀을 제공하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는 것처럼 생색을 낼 필요는 없음. ○ 우리측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겠다고 하고 제공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임. ○ 우리는 쌀문제를 등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수수방관할 수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18</p> <p>제2차 北京會談 (’95. 7.15~ 비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측의 「發表文」 內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차 회의에서 쌀 追加支援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2. 우성호문제에 대해 北側은 관계당국의 조사절차가 끝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하기로 약속하였음. 3. 쌀 제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4. 제3차 당국간 회의는 8.10 개최하되 장소는 우선 잠정적으로 北京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쌀문제와 南北간 경험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음.
<p>1995. 7. 19</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演說</p> <p>*도산아카데미 연구원 주최 세미나</p>	<p style="text-align: center;">「接觸」을 통한 對北政策 積極推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가능하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接觸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함. ○ 北韓이 안정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南北關係 改善에 도움이 되고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첩경이 될 것임. ○ 北韓에 대한 추가적인 쌀지원 협의는 남북관계 개선, 국내 쌀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p>1995. 7. 19</p> <p>李錫采 財政經 濟院 次官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北京會談 協議內容 일부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자간 승인을 전제로 경공업분야의 투자확대, 비료와 농약제공, 무연탄 제공문제 등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北側은 제공받은 쌀은 民生用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18 제2차 北京會談 (’95.7.15~ 비공개)</p>	<p>○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불필요한 言動을 계속하며 우리를 자극한다면 그들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을 것임.</p> <p>※ 북측은 일체 미보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20 유엔司 對北 便紙</p>	<p>○ 對南 비방증상 중지에 대해 北側은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將星級接觸 拒否</p> <p>○ UN司 스미스 소장 명의로 北韓 이찬복 중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美·北간 군사접촉은 군정위 틀내에서만 가능하며 직접적인 접촉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p>
<p>1995. 7. 21 統一院 代辯人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8.15 「板門店 紀念行事」 不許</p> <p>○ 정부는 5.16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8.15 민족공동행사」 南側準備委의 판문점 기념행사를 위한 접촉 신청을 不許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21</p> <p>統一大祝典 北側準備委 부위원장 백남준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海外 準備委 『共同合意文』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족통일대축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2. 민족통일대축전은 95.8.12~17까지 진행하며, 北·南·海外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8.15에 함. 3. 3자 공동행사는 판문점에서 하며 그밖의 행사들은 北·南·海外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함. 4. 민족통일대축전의 명칭은 행사의 계기와 거족적 성격, 통일지방의 뜻을 담아 각지역 실정에 맞게 정함. 5. 공동행사로는 개·폐막식, 통일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별·부문별 행사로 하며, 이와함께 공동행사의 하나로 대민족회의 또는 통일대토론회를 가짐. 6. 南側준비위원회에 汎民聯 남측본부를 참가시킴.
<p>1995. 7. 23</p> <p>統一大祝典 北側準備委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板門店 共同行事 不許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열주의적 흥심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은 것으로서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파쇼폭거임. ○ 김○○일당이 민족통일대축전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임. ○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축전행사의 어느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것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는지 똑똑히 밝혀야 함. ○ 北과 南, 海外를 망라한 민족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이상 판문점 통일대축전은 반드시 성황리에 개최될 것임.

■ 1995年 7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7. 28</p> <p>『祖平統』代辯 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안승운 목사 義舉入北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이 안승운의 의거를 납치나 뭐니하고 우리 共和國을 모해하려고 책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궤변임. ○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불순한 책동을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음. ○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反共和國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 방 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모해하면 할수록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
<p>1995. 7. 29</p> <p>『祖平統』등 7 개 단체 聯合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朴容吉 歸還關聯 對南威脅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길 여사(6.28~7.31 밀입북)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 됨. ○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 일방에게 감히 악행으로 도전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北南關係를 보다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갈 것임. ○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박용길 여사를 체포 구속한다면 백배 천배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임.
<p>1995. 8. 1</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 재개 거듭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북남관계 진전과 朝·美관계 진전에 보조를 맞추기로 하는 한편 우리에게 핵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음. ○ 이는 核問題와 朝·美간의 관계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 이행에 새로운 전제조건을 제기하는 하나의 기도임. ○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北南對話 재개와 미군유골 반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朝·美關係가 진전되면 北南關係도 자연히 진전될 것임. ○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朝美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8</p> <p>統一院 代辯人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北京會談에서 經協問題·우성호 送還問題 논의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회담에서는 對北 쌀지원 문제를 비롯, 경제협력문제와 우성호 송환문제 등 기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임. ○ 우리측은 15만t의 대북 쌀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한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할 것임. ○ 우성호 송환 등 南北사이의 현안문제들이 북한측의 상응조치로써 하루빨리 해소되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임.
<p>1995. 8. 9</p> <p>統一院 次官 發表文</p>	<p style="text-align: center;">抑留 『삼선 비너스호』早速 送還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8.2 청진항에 입항한 『삼선 비너스』호의 1등항해사 李良天씨가 8.2 12시 카메라로 청진항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필름을 빼앗기고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 北韓측은 계획적인 정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政府는 현지 점에서 사실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3</p> <p>『祖平統』代辯 人 聲 明</p>	<p>는 朝·美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 (* 7. 27 워싱턴, 韓美頂上會談 關聯)</p> <p style="text-align: center;">不法訪北 朴容吉 拘束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朴여사에게 탄압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일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共和國과 직접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 ○ 우리와의 對話를 운운하면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찾아왔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것도 자가당착적인 행위임. ○ 남조선 당국자들은 朴장로를 우리와 연결시켜 체포·구속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대화를 전면 부정하고 대화에 대해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朴여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며 무조건 석방해야 함.
<p>1995. 8. 9</p> <p>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祝典 참가 南側·海外代表 身邊安全 保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판문점 지역에 오는 남측과 해외 대표들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따뜻이 맞이할 것이며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것임. ○ 통일대축전행사를 성과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9</p> <p>李錫采 財政經濟院 次官 對北 電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측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에 따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할 것임. ○ 정부는 李良天씨 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대표간 접촉을 제의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정부는 이미 합의된대로 北韓에 쌀을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나머지 쌀지원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임. <p style="text-align: center;">쌀수송선 抑留關聯 南北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제3차 北京會談마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는 쌀수송을 위해 귀측에 간 선박과 선원 전원이 귀측 당국이 보장한 신변안전보장각서에 따라 지체없이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함. ○ 쌀수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대표단 사이에 협의해결키로 한 제1차 북경회담 합의사항 제7항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協議를 위해 南北대표간에 즉각 만날 것을 提議함. ○ 이를 위해 우리측은 8.10 대표 1명을 북경에 내보낼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0 『祖平統』 서기 국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朴容吉 구속 對南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길에게 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탄압과 박해를 인륜 도덕을 무참히 짓밟는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로 준렬히 규탄함. ○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처형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 스스로가 우리와의 對話를 부정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을 北에 왔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와 對話를 하려는 의사도, 하려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2 姜英勳 「韓赤」 총재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會談 早速再開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적십자회측이 南北적십자간의 접촉과 대화를 다시 여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南北의 적십자인들은 이제라도 남북이산가족들이 서로 안부소식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 ○ 작년 8.12 남북적십자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板門店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北韓적십자회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함. ○ 우리측 어선 제86우성호 선원들을 포함한 400여명의 拉北者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북한적십자회측이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요청함.
<p>1995. 8. 12 李錫采 財政經濟 院次官 對北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삼선 비너스호』 抑留관련 遺憾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1</p> <p>北韓 政府, 備 忘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용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高麗聯邦制 發表 15돌즈음 備忘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인 남조선의 國家保安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진정한 통일의사가 있다면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함. ○ 北과 南은 1991년 北南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평화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北南대화가 재개되면 이미 세워진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응당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 정전체제를 平和保障體系로 바꾸는 문제를 담당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5</p> <p>金泳三 大統領 8. 15 光復節 경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북경회담에서 합의된 쌀 협력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임 ○ 李良天 1등 항해사를 포함한 선원전원과 선박을 조속히 돌려보내 주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定着 基本原則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南北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함. ○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3</p> <p>中央通信社 報道文</p>	<p style="text-align: center;">抑留『삼선 비너스호』送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적대 행위는 어느 개인의 실책에 의하여 빚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의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위임. ○ 그럼에도 우리가 취한 관용은 깊은 동족애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北南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해를 바라는 우리의 대범한 입장의 증거임.
<p>1995. 8. 14</p> <p>外交部 代辯人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對北平和協定 제의설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이 8.15를 계기로 北과 南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들이 담보하는 『2+4』요 『2+2』요 하는 평화구축안이란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함. ○ 이것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北南합의서를 집어던지는 것으로 됨. ○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며 南北합의서의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p>1995. 8. 15</p> <p>北韓 大民族會議, 『呼訴文』 採擇</p>	<p style="text-align: center;">聯邦制를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로 確定하자고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이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일치하게 확인하였음. ○ 대민족회의에서는 연방제통일론에 배치되는 제도통일론을 한결 같이 반대하고 배격하였음. ○ 대민족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19</p> <p>政府合同調查班 調查結果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 ○ 南과 北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함. ○ 북한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고 남북간에도 신뢰가 존중되기를 기대함. <p style="text-align: center;">『삼선 비너스호』 抑留事件은 북한의 政治的 利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건은 1등항해사 李良天(33)씨가 개인적 호기심에 따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진촬영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빚어진 것임.
<p>1995. 9. 5</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記者懇談會</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北京會談 9. 27 開催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회담을 9. 27 북경에서 갖기로 南北韓이 합의하였음. ○ 의제는 대체로 南北經協 문제를 다룰 생각이나 현안문제로서 우성호 송환문제, 안승운 목사 사건, 비방중지 문제와 김용순 발언건 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8. 23 勞動新聞 論評</p>	<p>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족회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가 연방제 통일의 기본열쇠로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의 『平和定着 基本原則』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식민지 꼭두각시 집단으로서 거기에 끼어들 하등의 자격도 없음. ○ 北南당사자간 해결을 떠들던 그 입으로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임. ○ 北南합의서 존중과 신뢰구축이니 하는 소리는 北南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北南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임. ○ 美國이 군사통수권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있고 또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조건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은 우리와 美國이 할 일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7</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현재로서는 쌀 추가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水害支援問題는 北側의 피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있고, 또한 북측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임.</p> <p style="text-align: center;">朝·蘇條約 廢棄發表 歡迎</p> <p>○ 러시아 정부가 韓·러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구소련과 북한간 군사동맹관계를 법적으로 완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러시아 정부의 러·北韓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 폐기조치를 평가하며 이를 환영함.</p> <p>* 러 외무부, '61년체결 朝·蘇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이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9.7)</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6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홍수피해 死亡 68명, 被害額 150억불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산간지대들에서는 집중 폭우와 산사태, 저수지 파괴 등으로 68명의 사망자와 일부 실종자들, 부상자들이 났음. ○ 큰물피해후과로 많은 살림집, 학교, 탁아소, 병원과 기타 공공 건물들, 그리고 도로, 철길, 교량, 제방, 통신, 체신, 전력, 급수망, 탄광, 광산, 공장 등 생산 및 하부시설, 농토와 산림자원,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 유실, 파괴, 손실되었음. ○ 피해는 12개도 및 직할시에 있는 145개군 주민 520여만명에 달하며, 현재 초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은 150억 달러임.
<p>1995. 9. 7 外交部 代辯人 답화</p>	<p style="text-align: center;">駐韓美軍撤收 및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樹立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도 정치군사적으로 대결관계에 있고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임. ○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우리와 美國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면, 北南합의서의 이행도 추동하게 될 것임.
<p>1995. 9. 8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朝·蘇 조약 폐기문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그 조약은 의의를 상실하고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측에도 밝혔으며 그후 조약에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았음. ○ 러시아측이 최근 새로운 친선관계의 기초에 관한 條約締結 문제를提起해 오면서 그 草案을 보내왔으며,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14</p> <p>羅雄培 副總理 景 統一院 長官 기자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공식요청시 水災支援問題 검토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대한적십자사가 자체 재정으로 5만달러의 의약품, 의류, 모포 등 생필품을 적당한 통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음. ○ 정부는 國內 민간차원의 구호물자지원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시기와 규모,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黨·政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것임.
<p>1995. 9. 15</p> <p>姜英勳 「韓赤」 總裁 對北 放送 通知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 水災物資 提供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우리 국민들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북녘 동포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약품과 모포를 北側에 支援하기로 하였음. ○ 大韓赤十字社는 우리 국민들이 北側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전달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모아 북한적십자회 앞으로 보내고자 함. ○ 우리측의 물품을 北側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20 中央通信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 문제 北韓法에 따라 처리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은 해상분계선으로부터 20.8해리 북쪽 해상에서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 선박은 파손되고 일부 사상자들이 났음. ○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한 86 우성호와 불법행위를 지휘한 南朝鮮 당국에 있음. ○ 남조선 당국과 여기에 가담한 86 우성호의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됨. ○ 86 우성호 문제는 마땅히 共和國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21</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船員 즉각 送還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측이 우리의 순수한 민간 어선을 나포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 北韓측은 이제라도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p>1995. 9. 25</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發言</p> <p>*국정감사</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支援과 拉北者 問題 連繫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對北지원과 북한에 억류중인 拉北者問題 등을 연계시켜 해결해 나가겠음. ○ 북한 核問題와 함께 북한 人權問題를 국제사회와 공동해결하는 것은 내부분제 간섭이 아님. ○ 북한의 현재 태도로 볼 때 정당대표의 訪北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임.
<p>1995. 9. 28</p> <p>孔魯明 外務部 長官 유엔總會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人權保障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韓國정부는 북한주민이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25</p> <p>北韓, 拉北 우성호 선원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船員의 이른바 犯罪行爲 自白強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다시금 솔직히 자백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선장 박재열)과 이남 당국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함. ○ 지금 우리들은 이남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좋은 조건에서 불편없이 지내고 있음. ○ 저희들의 죄과는 용납될 수 없고 마땅히 共和國의 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인정함. ○ 사건 현장에서 항해사인 신흥광과 갑판장인 심재경이 사망하였으며, 이복에 들어와 이일용씨는 병사했음.
<p>1995. 9. 27</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日 修交會談 관련 實務接觸 開催確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外務省은 지난 3월 조선 노동당과 일본 연립여당간 협정을 채택한 이후 몇 번이고 공화국 외교부에 접촉을 가질 것을 요청해 왔음. ○ 회담재개를 위한 日本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實務接觸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음. ○ 최근 양국 외교부간 接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본측 요청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접촉중 하나임.
<p>1995. 9. 28</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輕水爐 供給協定締結 협상관련 立場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側이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의무이행을 태만한다면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核凍結 의무를 계속 이행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30</p> <p>제3차 北京會談 (9. 27~, 비공 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측은 마땅히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하부구조 건설은 물론 공사전반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난 수십 년동안 자립적 핵동력 공업 창설에 돌려진 우리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할 것임. ○ 소유자인 우리가 장차 자기의 것으로 될 경수로 발전소가 똑똑한 것인가를 검토 확인해 보는 것은 마땅한 권리에 속하는 문제임. ○ 만약 美國이 제 할 바를 KEDO에 넘겨놓고 경수로제공협정 체결을 지금처럼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로서는 부득불 美國과 단독으로 마주앉아 정치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음. <p>※ 북측은 일체 미보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30</p> <p>李錫采 北京會 談 수석대표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 계속 門戶開放 闡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회담의 장소·날짜 등은 합의하지 않았으나 문호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北韓側도 우리의提議에 호응해 오리라고 기대함. ○ 北側은 쌀 추가지원을 가장 크게 희망했으나 우리측은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協議할 수 없으며 회담 장소 및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p>1995. 10. 3</p> <p>孔魯明 外務部 長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 送還문제 유엔통해 解決摸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성호 送還문제와 안승운목사 拉北事件에 대해서는 국제인권 관계기관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용도 고려하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9. 30 平壤放送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84 水災支援 선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년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5만석의 쌀과 50만미터의 천, 10만 톤의 시멘트와 759지함의 의약품을 보내주는 우리의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취해졌음. ○ 1천8백만달러분의 구호물자는 남조선 당국이 友邦이라고 믿고 섬기는 미국과 일본의 2만, 10만달러와는 대비도 안되는 막대한 양임. ○ 우리의 동포애적 구호조치가 실현됨으로써 처음으로 北과 南사이에 서로 돕고 도움받는 훌륭한 先例가 마련되었음. ○ 우리 민족은 11년전 구호물자 인도인수과정에 있었던 선례를 잊지 말고 北과 南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한 형제라는 同族意識으로 더욱 합쳐져야 함.
<p>1995. 10. 2 北京會談 수석 대표 전금철 記者會見 (北京)</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내에서의 南北對話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이 쌀회담에서 정치적 조건을 달지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왔으나 회담이 깊어가면서 정치적 조건이 살아나고 정치대결의 희생물이 되고있음. ○ 갑자기 장소를 조선반도내로 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논리 비약이며, 北南關係 및 對話가 정상적 궤도에 오를 때 국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임. ○ 議題는 쌀문제 단 하나이며, 기본의제에 충실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히 따라올 것임. ○ 우리는 쌀 때문에 정치적 자주성을 희생하지 않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11</p> <p>羅雄培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記者懇談會</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正常通路가 없는한 對北經協 擴大不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金正日의 권력승계 지연 등 대내정세의 불안정, 對南·對外 政策이 변화되지 않는한 對北經協을 확대하지 않을 것임. ○ 남북간에는 통신과 대화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협력(경제인 방북규모, 대북투자 상한선 등) 확대는 더이상 하지 않을 것임.
<p>1995. 10. 16</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뉴욕타임스紙</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時期 論議 不適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韓의 약속위반에 대한 배반감과 실망만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은 매우 다루기 힘든 상대임. ○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북한 頂上會談을 이야기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 韓國이 쌀 수송을 재개하고 화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먼저 납치한 우성호 선원들을 풀어주고 對南 비방 방송을 中止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4 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孔魯明 外務長官의 유엔總會 演說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블모지로 만든 김○○ 일당에게만 있음. ○ 우리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을 美國의 생화학무기 저장고로 전락시킨 저들의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술책임. ○ 진정으로 對話와 協力을 바란다면 반민족적 반인륜적 야만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對話에 대한 誠意를 보여야 함.
<p>1995. 10. 11 外交部 副部長 최수현 演說 * 제50차 유엔총회</p>	<p style="text-align: center;">美·北 平和協定 締結 거듭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간 평화보장체계문제는 91년 12월의 합의서 채택으로 사실상 문건으로는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음. ○ 이제 남은 것은 우리와 미국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반인륜적인 대죄를 지고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현 남조선 당국자와 마주 앉는 것을 전체 조선인민들은 허락하지 않음. ○ 우리는 北南對話의 좋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對話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음.

■ 1995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17 中央放送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金泳三 大統領의 NYT紙 회견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신감이요 뭐요 하며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우리는 약속할 것도 없고 또 약속한 것도 없음. ○ 우성호로 하여금 共和國 領海 깊이 불법침입하도록 한 김○○ 역도로서는 배의 석방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음. ○ 할것이 있다면 우성호를 침입시켜 北南關係를 惡化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뿐임.
<p>1995. 10. 18 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95 독수리 訓練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본질상 팀스피리트의 재개나 다름없는 독수리 '95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임. ○ 이는 北南關係를 더욱 격화시키고 남조선 정권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주는 반평화적이며 반대화적인 행위임. ○ 美國은 이제 더는 北南對話 재개문제에 대하여 말할 체면조차 잃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美國이 계속 협상거부적 행동을 취하면서 긴장격화로 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를 대표하는 주된 요소인 케케묵은 정전체제를 뿌리채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1995. 10. 21 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拉北 우성호 送還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의 영해깊이 침범한 86우성호의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김○○일당이 석방이요, 뭐요하며 감히 우리에게 사대질하려 드는 것은 공연한 생트집이며 우리에게 대한 도발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24</p> <p>金泳三 大統領 美國 유엔協會 演說</p> <p>* 世界指導者賞 수상</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定着 基本立場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 ○ 첫째, 정전체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확고히 유지, 준수되어야 함. ○ 둘째,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교섭되고 합의되어야 함. ○ 셋째, 남북한은 상호관계를 대화를 통해 정상화 함으로써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21</p> <p>北韓 · KEDO, 輕水爐 供給協 定 관련 고위급 회담 (뉴욕)</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言論 發表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및 전문가회담을 내주에도 계속 개최, 공급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번 회담은 실무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부 주요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았음.
<p>1995. 10. 23</p> <p>勞動新聞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武裝間諜 浸透事件은 南韓 自作劇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간첩 침투사건(10. 17, 임진강)이라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필요에 따라 어느때나 꾸며내는 계획적이고 상투적인 모략극임. ○ 미제와 괴뢰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 있는 투쟁기운을 무마하고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하고 있음. ○ 사건조작과 때를 같이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는 정전기구에 사건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릇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27</p> <p>吳隣煥 公報處 長官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武裝間諜 도발 즉각 中斷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하며, 이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가 재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0. 26</p> <p>비전향장기수 구원 대책 조선 위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장기수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이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 면 대화니 교류니 하는 것을 떠들어대기에 앞서 김인서·김영 태·함세환 노인들을 공화국 북반부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
<p>1995. 10. 30</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日 修交關聯 接觸再開 用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번에 일본이 朝·日會談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임 하겠다고 공식표명한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고 있음. ○ 朝·日 두나라 사이에 불미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선린 우호관 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함. ○ 朝·日會談 재개를 위한 현 접촉실태를 놓고 볼 때 공은 이제 일본측에 넘어가 있음. ○ 모든 것은 이제 일본측이 다음 걸음을 어떻게 떼는가에 달려있 음. <p>* 10. 30 하야시 日외무차관 기자회견 관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1. 3</p> <p>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회의 의 공동성명문</p>	<p style="text-align: center;">현 정전협정 유효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협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하였음. ○ 과거·현재·미래의 북한핵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p>1995. 11. 14</p> <p>金泳三 대통령- 江澤民 중국주 석, 한·중 정 상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시까지 현 정전체제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문제를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하에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p>1995. 11. 18</p> <p>金泳三 대통령- 무라야마 日總 理, 한·일 정 상회담(오사카)</p>	<p style="text-align: center;">일, 대북수교교섭 관련 3원칙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삼대통령은 일본의 대북 쌀지원은 북한의 한·일 양국 이간전술에 일본이 말려들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언급 ○ 무라야마총리는 대북수교교섭과 관련 ① 한·일관계를 손상치 않는다는 대원칙아래 추진 ② 남북관계 진전과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③ 수교이전에는 대북경제지원 배제등 3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
<p>1995. 12. 15</p> <p>외무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KEDO-북한 경수로공급 협정서명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경수로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며 이를 환영함. ○ 금번 공급협정을 통해 韓國標準型 발전소 제공과 한국의 中心的 役割이라는 2대원칙이 재확인된 것을 평가함. ○ 향후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1. 3</p> <p>조선인민군 판문 점대표부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군 유골발굴 보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슬한 비용을 지출하여 미군유골을 발굴하고 미군측에 넘겨준만큼 미군측이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도 온당함. ○ 미군측이 끝내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불 이미 조직되어 있는 유골 실무그룹을 해산해 버리고 합의서의 이행도 포기할 수 밖에 없음.
<p>1995. 12. 15</p> <p>KEDO-북 경수 로 공급협정</p>	<p style="text-align: center;">협정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조건 : 각호기 완공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에 걸쳐 무이자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현물상환 가능) ○ KEDO 공급 범위 : 경수로 발전소 2기에 필요한 발전소 체제, 건설전 하부구조, 부지조사, 부지준비 ○ 북측 의무 사항 : 부지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존항만·철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2. 21</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취임사</p>	<p>속한 대화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정책 추진관련 3가지 지침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지침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세계화에 어울리는 통일 ii) 북한주민을 시야에 넣는 複眼的 통일 iii) 各論이 강화된 통일
<p>1995. 12. 22</p> <p>통일원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 선원 송환 환영 및 사망자 발생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비무장한 순수민간어선을 무력에 의해 나포하고 7개월 동안이나 억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그동안 우리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해 어선과 선원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조속송환을 촉구해 왔음. ○ 늦게나마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5. 12. 22 「중방」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도·공항시설에의 접근, 골재원 및 채석장 확보</p> <p style="text-align: center;">우성호 선원 송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해당기간들에서는 86우성호 선원들의 엄중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기로 했음. ○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따뜻한 동포애의 표시로 되며 민족적 화해와 나라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평화애호적 입장의 발현으로 됨. ○ 나포된 배는 돌려보내지 않으며 나포당시 사망한 2명의 시체와 병사한 1명의 시체는 86우성호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화장해 보냄. ○ 86우성호 선원들을 '95. 12. 26. 16:00경에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임.

1996年

1996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 9</p> <p>金泳三 대통령 새해국정운영에 관한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의 대남적대자세 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 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임. ○ 북한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북한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 협조할 것임. ○ 남과 북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며, 幻想的인 統一論은 경계해야 함.
<p>1996. 1. 15</p> <p>金壽煥 추기경 등 6대 중단지도자 호소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동포 구호 동참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생활난과 수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민족애의 입장에서 범국민적 지원을 펼쳐야 할 것임. ○ 북한동포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 1</p> <p>「당 보」·「군 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려연방제통일방안 및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임.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인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해체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 26</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주요현안보고 * 국회 통일의 무위</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쌀지원을 위한 북측 태도변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쌀 지원문제는 북측의 공식적인 지원요청, 남북회담의 한 반도내 개최등 북측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북한의 식량지원은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 ○ 미·일 등 국제적 지원문제는 i) 실태파악을 선행, ii) 주민들에게 투명한 전달, iii)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p>1996. 2. 12</p> <p>姜英勳 「韓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0대영호」선원 승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0대영호」는 성산포항 출항시 8명이 승선하였으나 귀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 25</p> <p>「汎民聯」 북측 본부 백인준의 장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한 국제적 운동 확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족공동위원회를 시급히 내오고 전 민족적이며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켜 북·남·해외의 3자가 연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p>1996. 1. 26</p> <p>「祖平統」 대변 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도 고성 핵발전소 건설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핵발전소들이 건설되면 세계적 명승지인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우발적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도 온겨레가 무서운 핵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 ○ 대규모 핵기지를 건설하려는 김○○ 일당의 책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규탄함.
<p>1996. 1. 31</p> <p>「정당·단체연 합회의」, 남한 ·해외의 인사들 에게 보내는 편 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정당·단체, 각계인사들간의 광범한 접촉·대화」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에는 북남·해외가 다같이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어야 함. ○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인 억압체제를 청산하여 전민족 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함. ○ 평화와 민족대단결로 연방제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을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해 북남·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접촉과 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인정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총재 대북방송 통지문</p>	<p>보도에 의하면 선장 김정연등 4명만 월북한 것으로 발표되고 나머지 4명의 행방과 안위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방송은 의거 월북하였다고 하나 가족들은 그들이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믿고 있으며 조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음. ○ 귀적십자회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4명에 대한 사실확인파 「제707대영호」 선원 모두가 조속 송환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p>1996. 2. 14 國防部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96 T/ S 훈련 중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북 합의서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신뢰 증진 차원에서 '96 훈련을 중지키로 했음. ○ '97 T/S 훈련관련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치 않거나 심각한 군사위협을 가할 경우 재개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2. 13 「평방」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주민 대량 탈출 대비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住民大量脫出說을 집요하게 유포시키면서, 대규모 난민수용소를 설치, 부·처별로 통합대비계획을 마련한다 하며 일대 분주탕을 피우고 있음. ○ 대량 난민탈주는 공화국의 주민들 속에서가 아니라 남조선 어선 707대영호 선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거한데서 명백히 드러났음.
<p>1996. 2. 22 외교부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위한 대미 잠정협정체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음. ○ 첫째로,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잠정협정」이 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2. 23</p> <p>통일원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잠정협정의 비현실성 지적 및 「군정위」 복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제의는 현 정전체제를 무실화하고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한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는 남북 당사자가 주체가 된 상황에서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등 기존합의를 존중하며 관련국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따라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될때 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軍停委」에 하루속히 복귀해야 함.
<p>1996. 2. 27</p> <p>남북종교 대표 자회의 공동합 의문(북경)</p>	<p style="text-align: center;">종교인의 책임과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이 우리민족의 최상과제임을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는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종교인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였음. ○ 남북 종교대표자들은 조국통일의 성업실현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대를 굳게 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운동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북 양측은 종교인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정례적으로 번갈아 개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차회의를 6월중 도쿄에서 갖기로 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2. 28 「汎民聯」 북 ·</p>	<p>결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로, 잠정협정을 이행 · 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 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군사기구」가 조직 · 운영되어야 함. ○ 셋째로, 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 군사공동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쪽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애국인사석방투쟁 대책협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1월말 체포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부의장들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3. 1</p> <p>金泳三 대통령 3.1절 기념사</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대화 조속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와 당당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잘못된 역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바로잡아야 됨. ○ 북한도 불신과 반목의 자세를 청산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광장으로 나와야 하며, 진정한 민족의 화해를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음.
<p>1996. 3. 4</p> <p>姜英勳 「韓赤」 총재 대북전통 문</p>	<p style="text-align: center;">「염분진」호 선원 송환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 동해상에서 우리측 해군경비함에 의해 구조된 귀축 화물선 염분진호 생존선원 2명을 치료·보호 중이며 사망자 시신 2구도 안치하고 있음. ○ 본인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들을 '96. 3. 5 11:00 판문점을 통해 귀축에 송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며, 귀축의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 ○ 아울러 동진호, 대영호 선원등을 포함하여 귀축에 억류하고 있는 우리측 인원들도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3. 30 국방부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도발 단호 대처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자신의 체제내부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기정사실이라는 등 호전적 발언으로 큰 물의와 우려를 일으키고 있으나, 북한의 어떠한 책동과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처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3. 8</p> <p>조선인민군판문 점대표부 비망 록</p>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보장체계 수립 관련 최종적 조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정전협정 서명 직후부터 동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군정위를 마비시키는 한편 중감위의 중립성과 공정성까지 파괴해 버렸음. ○ 이결과 조선반도에는 정전을 담보할 군사적 제동장치가 결여된 상태에 있으며 도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임. ○ 만일 미측이 우리의 협상제의를 응해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우리는 낡은 정전체제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로 나갈 것임.
<p>1996. 3. 29</p> <p>인민무력부제1 부부장 김광진 대남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조치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는 최근 우리의 軍事的 모험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연발하면서 남북한 문제는 군사적 힘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폭언하였음. ○ 우리의 平和保障體制案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대화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의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된 상황에 따르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임.
<p>1996. 4. 4</p> <p>조선인민군 판</p>	<p style="text-align: center;">DMZ 유지 · 관리임무 포기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4. 5 國防部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停戰協定체제 嚴守 재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의 담화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우리는 현 정전협정이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간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수되어야 함을 재차 분명히 하며, 만약 북한이 이를 위반하여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의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
<p>1996. 4. 5 통일원 대변인, 대남전문관련 기자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양면전술 비난 및 대남비방 중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현재 북한측이 전금철 명의로 보냈다는 팩스전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북측이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전쟁위협등 긴장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칙적 대화를 주장하는 양면전술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내에서 당국회담으로 열려야 하며, 대남 비방·중상의 중지를 거듭 요구함.
<p>1996. 4. 16 한·미 정상회 담(제주) 「공</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4자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 하였으며, 항구적 평화협정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동발표문」 *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미대통령</p>	<p>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 협정이 유지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恒久的 平和體制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 한국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국·북한·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함. ○ 4자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한국의 이와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로서 평가하고 미국의 계속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4. 18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제의 취지 및 목적 불분명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 미대통령 클린턴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 개시를 위해 북과 남,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제안을 발표했으나, 그의 제안은 이이상 더 구체화된 것이 없음. ○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미국측이 왜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치 않음. ○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 및 화해와 협력에 관한 합의는 이미 이룩되어 있으며,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 원인은 남조선 당국자들 때문에 북남대화가 중단된 데 있음. ○ 4자회담 제안이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쨌든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기도가 깔려 있지 않은지,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4. 26</p> <p>한국대학교육협 의회 대북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총장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의 일환으로 남북한 대학총장회담을 개최(8.15 전후)할 것을 제안하며, 同 회담의 성사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로 쌍방이 동수의 총장을 선임하고 장소·시간, 일정·운영방식 등은 양측 실무회담을 통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p>1996. 5. 14</p> <p>한·미·일 고 위협의회 공동 언론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관련 북한 설득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대표단은 對북한 정책 수행에 따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점검하였음. ○ 또한 4자회담 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호응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번 협의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開放 및 接觸증대·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는 건설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5. 7</p> <p>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관련 「說明會」 개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목적·모종의 기도·현실성등을 따져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즉시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식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 사이 적지 않은 시일이 무뎠하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인내성과 자제력을 발휘 미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기를 좀더 기다려 보고자 함. ○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결정되어야 함.
<p>1996. 5. 24</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공동설명회」 관련 한국측 태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4 제주도 협의회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큰물피해로 인한 국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6. 11</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발표문</p> <p>* 통일관계 장 관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人道的차원의 對北食糧支援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WFP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을 호소하였는바 정부의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동참할 방침임. ○ 지원규모는 300만불 상당의 상징적 수준이며 지원품목은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배합분말과 분유가 될 것임. ○ 앞으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광범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 추진될 수 있을 것임.
<p>1996. 6. 12</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촉구</p> <p>* 「평통」 제7차 서울지역 회 의</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호응 대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구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치임. ○ 4자회담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분명한 것은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임. ○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며, 정부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열리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6. 5. 24	<p>제적 인도주의적 지원문제를 4자회담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제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의심을 크게 해 주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4자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공동설명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임. ○ 우리는 미국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기해 왔음으로 그 취지·목적·다른기도·현실성 등을 따져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였으나, 남조선 괴뢰들이 나서서 공동설명이요 하면서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6. 14</p> <p>「韓赤」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대북 수재민 지원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중 대북 밀가루 572톤(약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종교단체등 각계 성금으로 사들인 것임.
<p>1996. 7. 8</p> <p>金泳三 대통령 연설</p> <p>* 제15대 국회 개원</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經濟協力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4자회담의 실현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 계기가 되고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北韓이 될 것이며, 북한은 우리민족은 물론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4자회담에 호응하기를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6. 21</p> <p>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추가쌀지원에 사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우리나라 큰물피해와 관련 유엔 인도국의 최근 새로운 식량기증 호소와 관련 6.11 미국은 620만달러분의 식량을 우리에게 기증하기로 했음. ○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추가적인 식량기증을 결정한데 유의하였으며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음.
<p>1996. 7. 25</p> <p>조선인민군 판 문점대표부 대 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對美 장성급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선반도의 정세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도발적 무장충돌을 막고 정전상태 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군사접촉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인 조·미 군부사이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한 잠정기구를 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장령급회담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를 미군측에 제기함. ○ 조·미 사이에 현안문제인 유골문제, 미사일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해서도 충돌방지대책이 시급함. ○ 최근 남조선과 일본이 4자회담문제로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는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7. 29</p> <p>통일원 대변인 기자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참가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오는 9.13~1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및 유엔개발계획(UNDP) 후원하에 개최되는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에 우리 기업인, 정부관계자 및 언론인이 참가토록 할 방침임. ○ 우리측 참가단 규모는 추후 결정할 것이며, 기업인의 참가신청서 배포 및 접수창구는 KOTRA로 하고, 참가기업인의 선정은 대북투자에 적합한 건실한 중견기업중에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항목(식·음료부문, 의류·직물·신발·피혁 부문등)과 관련된 업종 위주로 함.
<p>1996. 8. 1</p> <p>姜英勳 「韓赤」 총재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선박·시신 송환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지난 7.26~29까지 4일간 서해상에서 표류중 발견된 북측 선박 3척과 시신(女) 2구를 인양·보존하고 있는바,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 선박과 시신들을 북측에 송환하려고 함. ○ 송환에 필요한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南北赤十字 連絡官 接觸을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7. 27</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남전통문</p>	<p>것을 보면 미국의 진의도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발기에 심사숙고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김영길 승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 02:00경 임진강 부근에서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군인 김영길이 집중폭우로 실종되었음. ○ 귀측지역에 떠내려간 우리 군인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측에 돌려 보내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
<p>1996. 8. 2</p> <p>「북적」 전화통</p>	<p style="text-align: center;">시신 인수 관련 連絡官 接觸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신 2구를 지체없이 넘겨 받으려고 함. 8.6 10:00 전중감위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8. 5 姜英勳 「韓赤」 총재 대북전문문</p>	<p style="text-align: center;">김영 송환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중국 연변지역을 단체관광을 하던중 지난 7.30 행방불명되었음. ○ 본의아니게 귀족지역에 들어가게된 김영이 조속히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
<p>1996. 8. 7 국방부 · 한미연 합사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9~30 연례 전투지휘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실시함.
<p>1996. 8. 12 통일원 대변인, 기자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나진 · 선봉 投資說明會 참가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규모는 49명으로 24개 기업, 전경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등 경제단체 4명, KOTRA · KDI등 전문가 5명, 통일원 · 재경원 등 정부관계자 8명과 취재기자 8명으로 구성되었음. ○ 참가기업 선정기준은 북한이 제시한 투자대상과 대북투자에 적합한 중견기업으로 식 · 음료 3, 의류 · 직물 9, 화학제품 · 수지 5, 전자 · 기계 5, 목재 · 가공 1, 종이 · 인쇄 1 등으로 선정하였음. ○ 앞으로 북한이 발급하는 초청장(신변안전보장 포함) 접수 및 방북 승인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p>1996. 8. 12 姜英勳 「韓赤」</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적십자 총재(부총재) 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가 협력한다면 수재로 인한 북한동포들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지문	<p>의실에서 쌍방 연락대표들이 만나 인도·인수 절차를 협의하자는 의견임.</p> <p>○ 배는 해당 부문에 알아보았는바 용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므로 넘겨받지 않으려 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8. 13</p> <p>「北赤」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 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김영 송환조치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31 우리나라 북부국경을 불법 침입한 남조선 사람 김영을 조사한 결과 매우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판명되었음. ○ 그러나 그가 자기본질을 솔직히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곧 해당경로를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였음.
<p>1996. 8. 19</p> <p>범청학련 북· 남·해외본부대 표 연합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총련」 탄압행위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정부의 한총련과 그 소속학생들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분노함. ○ 자생적 통일운동 연합체인 범청학련을 북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적단체니, 범민련의 청년학생조직이니, 한총련의 배후세력이니 하며 매도하려는데 대해 규탄함. ○ 한총련에 대한 외해책동을 중단하고 체포 투옥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2 통일원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미군 철수주장 반박 및 4자회담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96. 9. 2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를 되풀이 주장하였으나, 이는 매년 9.8~14간 주한미군철수 투쟁기간을 앞두고 되풀이 하여 오던 주장에 불과함. ○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주한미군 철수 등 非現實的인 주장에 집착하지 말고 4자회담에 호응함으로써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임.
<p>1996. 9. 2 姜英勳 「韓赤」 총재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쌍방 적십자단 총재(부총재)회담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서 노인은 지금 광주에서 한방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 ○ 우리측은 '93 이인모 노인 무조건 송환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人道的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귀측은 이를 政治宣傳에 이용해 왔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8. 28</p> <p>「조평통」 부위원장 양형섭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한총련」 대응 태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8.15 통일투쟁에 대한 대응, 특히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우리와 연관시켜 친북행위니, 이적행위니 하는 반민족적 입장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음. ○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가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대결관계로 몰아가고 있는한 그 어떤 대화나 화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함.
<p>1996. 8. 30</p>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긴급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送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29 심한 뇌출혈로 김인서 노인은 왼쪽 전신마비에 중풍 현상까지 나타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중태에 빠져 있다 함. ○ 나는 귀측이 뇌출혈로 신음하는 김인서 노인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공화국 북반부로 즉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함.
<p>1996. 9. 2</p> <p>외교부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에서 미군철수문제 의제 채택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4자회담을 들고나와 우리의 잠정협정제안에 대치시키려 하고 있음. ○ 미국은 4자회담의 목적이 항구적인 평화협정마련에 있다 하였으므로 회담 주의제는 미군철거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회담은 쓸모가 없음. ○ 현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의 잠정협정 체결 제안에 응해나오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됨.
<p>1996. 9. 2</p> <p>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치료진 파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측이 우리의 김인서 송환요구를 실제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의 구급치료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며 두 딸도 보내어 돌보도록 할 것임. ○ 우리는 남조선의 해당기관이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담보 및 편의를 보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3</p> <p>통일원 대변인 기자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치료단 파견 의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相互主義원칙에 따라 지난 8.12제의 이산가족 재회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적십자단체 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에 지체없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 북측의 김인서 구급치료 및 간호를 위한 의료진과 두 딸을 보낼 것이라는 방송보도는 우리사회에 인도적 문제를 제기 국론 분열 등을 조장하며 특히 한총련 체결 분위기를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임. ○ 북한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맞대응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임.
<p>1996. 9. 7</p> <p>통일원 대변인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나진·선봉 投資說明會 선별초청 움직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선봉 투자설명회(9.13~15) 우리측 참가자들에 대한 초청장이 아직 오지 않음에도 정부는 국제기구등과 긴밀 협의 참가문제에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북한측이 우리 참가 기업들을 선별 초청하고 정부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이는 북한측이 모든 나라의 지위등에 상관치 않고 참가를 보장하겠다는 UNIDO 등과의 약정서를 스스로 어기는 일임. ○ 정부는 현재 이같은 북한측의 입장을 최종적인 것인가를, 그리고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확인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난후 참가 여부 결정할 것임.
<p>1996. 9. 10</p> <p>통일원 대변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나진·선봉 투자설명회 不參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당초 이번 투자설명회에의 참여를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간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측 참가단을 파견키로 한 바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3</p> <p>천도교회중앙위 위원장 류미영 대남편지</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천도교 교령·대종교 총전교 방북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배달겨레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슬기로운 단일민족으로서 개천절을 다같이 기념하는 것은 북과 남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의의있는 일로 될 것임. ○ 나는 10.3 개천절에 거행될 단군제를 단군릉이 있는 평양에서 북과 남의 민족종교인들이 공동으로 지내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귀하를 비롯한 귀측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함. ○ 귀측 대표들의 평양 체류기간 우리의 해당기관에서는 모든 편의와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해 드릴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16</p> <p>통일원 대변인 대북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53명 참가단 신청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인 25명만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음. ○ 우리는 북한측의 이러한 選別招請과 約束破棄 행위를 수락할 수 없으며, 이번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참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안승운 강제 납치 사과 촉구 및 납북자 즉각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당국은 안승운 납치주범, 리경춘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불법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9.13 알려 왔음. ○ 리경춘에 대한 실형확정으로 안승운이 자유의사로 입북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강제납치가 분명한 이상 그의 즉각 송환·관계자처벌·불법감금 납치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고상문씨와 동진호 선원등 그동안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함.
<p>1996. 9. 17</p> <p>姜英勳 「韓赤」 총재 대북전통 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적십자회담 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여러차례 김인서 문제관련 우리측 입장을 밝혔음에도 귀측이 9.16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김인서 노인은 한때 하반신 마비증세가 있었으나 매우 빠른 속도로 치유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 ○ 지난 8.12 성명과 9.2 전통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조건없이 개최할 것을 거듭 제의함.
<p>1996. 9. 18</p> <p>국방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잠수함 동해상 浸透事件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새벽 북한군의 잠수함 동해안 침투사건은 명확한 대남도발 행위로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16</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 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서 노인문제는 전쟁포로에 관한 문제로서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이산가족문제와 성격이 다른 문제임. ○ 귀측이 김인서 긴급송환 제의를 탄 문제와 억지로 결부시켜 거부한 것은 그의 귀향을 반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불순한 기도에 추종한 것임. ○ 김인서 送還問題는 어떠한 부대조건도 없이 무조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그의 송환 및 의료진·두 딸 파견제외에 조속 호응할 것을 촉구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23 국방부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함 침투인원 송환 요구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위협적인 잠수함 침투행위는 우리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행위임. ○ 발견된 잠수함에는 승무원 6명과 침투요원 5~6명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은 침투한 북한공작원 사살 및 체포를 위해 철저한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음.
<p>1996. 9. 23 국회, 대북결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무장공비 침투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도발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정상적 훈련」 운운하면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규탄 여론을 회색시켜 보려는 기만책략임. ○ 이번 사건은 훈련중에 일어난 단순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意圖的 挑發事件임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사실은 잠수함 동원, 중무장 전투요원으로 구성, 생포공비 「이광수」의 진술등 제반정황에 의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났음. 북한측이 「훈련」이라는 구실을 붙여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22</p> <p>인민무력부 대 변인 답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잠수함 및 무장공비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8 한군부대가 훈련용 소형잠수함을 타고 원산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훈련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강릉앞 해상에서 좌초된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군인들은 배가 좌초되자 부득이 육지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며 적지대이므로 무장총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잠수함에는 훈련용 저격무기만 있었음. ○ 남측은 우리의 소형잠수함과 생존 군인들과 사망자들을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문 채택	<p>무장공비를 침투시킨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군용합정에 의한 무장병력 침투행위는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니라 무력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軍事挑發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국회는 모든 자유우방국가는 물론 아직도 북한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이같은 책동을 억제하는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9. 27 「중통」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함 및 승무원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배의 것으로도 될 수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은 훈련중 좌초된 우리 배를 가지고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 책동을 중지하고 잠수함과 함께 승조원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
<p>1996. 10. 6 「중통」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인 현지크 간첩첩의 체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4 우리 사회안전기관에서는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북한 미국 공민 에반 칼 현지크를 체포 구류하고 있음. ○ 지금까지 조사한데 의하면 그는 남조선 안기부로부터 간첩임무를 받고 정탐행위를 목적으로 비법 침입하였음. ○ 그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해당한 형사처분을 지게 될 것임.
<p>1996. 10. 9 「중통」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최덕근영사 피살사건 관련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안기부는 이번 테러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을 살해한 남조선 만행에 대한 보복과 연결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보복은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정정당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보복조치로 될 것임. ○ 러시아의 일부 출판물들과 원동지방 사법당국자들도 남조선과 함께 우리에게 테러협의를 넘겨 씌우려고 소동을 벌리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0. 12</p> <p>국회 결의안</p>	<p style="text-align: center;">무장공비 침투사건 사과 및 보복협박 중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정권은 하루빨리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각종 도발 책동의 즉각 중지를 거듭 촉구함. ○ 북한정권은 명백한 무장공비침투사실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의 재발방지를 온 세상에 다짐할 것을 촉구함. ○ 국회는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대하여는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p>1996. 10. 21</p> <p>金泳三 대통령 국회연설</p> <p>* 제181회 정기 국회 시정연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무장공비 침투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북한이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의거 단호 조치할 것임. ○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약속을 지켜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복귀하는 동시에 4자회담에 조속 호응할 것을 촉구함.
<p>1996. 11. 18</p> <p>통일원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함 사건 관련 북측의 시인·사과 및 再發 防止 보장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최근의 무장공비 침투관련 잠수함과 승무원 시신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재차 위협해 나왔음. ○ 이번사건은 북한이 중무장 잠수함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 정탐행위를 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유린한 무력도발 행위임. ○ 북한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면서 상습적으로 보복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明示的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1. 18 「중통」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함 등 송환 거부시 대남 「보복」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우리측 인원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륙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희생된 우리측 인원들과 잠수함을 빠른 시일안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 ○ 우리는 빈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보복을 한다면 하고 피값을 받아낸다면 받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1. 19</p> <p>통일원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조치 철회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락사무소는 「南北基本合意書」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대화 중단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남북당국이 함께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려는 행위임. ○ 북한은 이를 즉각 철회하고 북측 연락사무소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비이성적 행위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재차 촉구함.
<p>1996. 12. 13</p> <p>통일원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관련 기본합의서 성실 이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일은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북한은 기본합의서 실천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으며 핵위협과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음. ○ 최근에는 잠수함을 이용, 무장공비 남파 및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 ○ 우리는 잠수함 침투사건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등 남측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p>1996. 12. 29</p> <p>통일원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 사과성명 관련 信賴回復에 審與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뒤늦게나마 사과성명을 통해 시인·사과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북한의 재발방지 이행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1. 19</p> <p>「중통」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관문점 연락사무소」 철수 및 업무중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남북폐쇄정책을 방침으로 확정한 남조선 당국자는 지난 11.9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우리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이러한 형편에서 북과 남 사이의 대화연락과 실무적 협의를 말아보는 관문점 연락사무소도 그 존재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우리는 관문점 북측사무소를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96.11.20부터 잠정적으로 관문점 우리측 연락사무소 대표들을 철수하고 그 업무를 중지할 것임.
<p>1996. 12. 13</p>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남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送還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말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인서노인이 그동안 전문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10월 중순에 이르러 겨우 병원에 옮겨졌으나 병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함. ○ 김인서 노인의 병이 계속 악화되는 형편에서 만일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북남관계 개선에도 이롭지 못하고 적십자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임. ○ 나는 이미 우리가 제의한 대로 김인서 노인의 두 딸과 의료진이 현지에서 나가 응급치료하도록 하며 그를 송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p>1996. 12. 29</p>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잠수함 침투사건 사과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96. 9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 북한이 남북대화와 4자회담에 하루속히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6. 12. 31 「조국전선」· 「조평통」 대변 인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측들과 함께 힘쓸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유해 송환 관련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시인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가 조·미협상을 통해 인도된 것은 우리측의 일관된 평화애호노력의 결과임. ○ 이번 유해인도는 사실상 남조선 당국이 자기들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사죄한 것으로 됨.

1997年

1997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1 金泳三 대통령, 신년사</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해와 협력을 통한 平和的 統一 노력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전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람. ○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7천만 동포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있는 힘을 다 해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1</p> <p>「당보」, 「군보」, 「청년보」 신년공 동사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붉은기 사상 및 「유훈」 통치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의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온사회를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며, 붉은기 사상사업은 영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임. ○ 김일성 3년상이 되는 올해에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해야 함. ○ 올해에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관철해 나가야 함. ○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연방제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할 조국통일의 3대기등, 3대헌장이며,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해야할 국제적 문제임. ○ 미국은 시대착오적 대조선 압살정책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함.
<p>1997. 1. 3</p> <p>로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김○○일당은 저들이 실시해온 사대매국과 파쇼대결, 전쟁책동의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공화국 대결 전쟁 책동, 남북폐쇄정책을 철회하여야 함.
<p>1997. 1. 3</p> <p>「사민당」 부위원장 김영호등 답화</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폐쇄정책 철회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 군인들의 유해가 우리측에 인도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저들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임. ○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그 어떤 모략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동족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남북폐쇄정책을 지체없이 철회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7</p> <p>金泳三 대통령 연두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호응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나아가 통일도 결코 이룰 수 없으며 강력한 힘을 가질때 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그들을 민족공동체의 큰 길로 이끌수 있는 것임. ○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再發防止努力을 다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임. ○ 올해는 4자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에 平和定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나오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임.
<p>1997. 1. 22</p> <p>유종하 외무장 관 기자 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쌀지원은 긴장완화 차원임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차원에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할 것임. ○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는 대가로 쌀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며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3</p> <p>조선종교인 협의회 서신</p> <p>* 수신: 한국종교인 평화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水害復舊 問題 論議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렸던 제5차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유감임. ○ 수해문제등을 통신으로 토의하거나 북경과 같은 가까운 곳에서 만날 것을 제안함.
<p>1997. 1. 14</p> <p>「중통」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朝·美 暫定協定 締結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완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긴장완화 분위기는 항구 평화와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장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조·미 잠정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28</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기자회견 * 서울신문특별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經協再開 用意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설명회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음.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곧 「한적」을 통해 북한에 밀가루가 갈 예정임. ○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적응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설이 갖추어지면 북한이탈 주민 전체를 우리사회로 안내하게 될 것임. ○ 統一費用은 分斷費用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우리 경제뿐만아니라 북한의 경제에도 이익이 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1. 30</p> <p>「정당·단체연합 회의」 호소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외의 각 정당·단체 「연대회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통치배들에 의하여 초래된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는 민족 자주와 통일을 수호할 책임적인 민족적 과제를 제거하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연대하고 단합할 것을 요구함. ○ 올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25돌이 되는 해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당·단체들의 연대회의를 제의함. ○ 「연대회의」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 민족자주 실현, 나라의 평화수호의지를 가진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다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시일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쌍무적이던 다무적이던 接觸과 對話를 期待함.
<p>1997. 2. 1</p> <p>「북적」위원장 대리 이성호 편지발송</p> <p>* 수신 강영훈 「한적」총재</p>	<p style="text-align: center;">김인서 승환 재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서 노인이 뇌출혈후과로 쓰러진 후 우리 의료진과 그의 두 딸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응답조차 않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를 취하였음. ○ 적십자인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돌려 보내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를 촉구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2. 2</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언급</p> <p>* KBS-TV 정책 진단출 연</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당국 요청시 대북식량지원 검토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고, 95년 대북 쌀 지원시 발생했던 불상사에 대한 재발방지 보장이 있을 경우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음. ○ 또한, 대만 核廢棄物을 반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일이며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임.
<p>1997. 2. 12</p> <p>유광석 외무부 아태국장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黃長燁 전 비서 망명 사실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비서가 2.12, 10:05 김덕홍 조선여광무역회사사장(59)과 함께 베이징주재 한국총영사관으로 찾아와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총영사관에 머무르고 있음. ○ 駐中韓國大使館은 이 사실을 중국측에 통보했으며 정부는 中國 정부와 협조해 황비서의 희망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2. 8 「조평통」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L·A 김정일 사진전시회장 피습 한국 시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괴뢰도당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조종 밑에 있는 한인회등 반공화국 패당등을 동원하여 사진전시회장을 습격하여 전시물을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감행하였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미국 당국은 남조선 괴뢰들의 범치파괴행위를 조사하고 범죄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함.
<p>1997. 2. 13 외교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黃長燁 전 비서 拉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오늘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조선노동당 중앙위 황장엽 비서가 북경에 있는 저들의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를 내들리고 있음. ○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황장엽 비서가 북경에 있는 남조선대사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적들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2. 19</p> <p>李洪九 신한국 당 대표 연설 * 국회본회의 당 대표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정책 재정립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련에 직접 책임을 졌던 저로서도 자금의 북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그 방안의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음. ○ 북한의 급격한 궤도이탈과 추락을 감안, 냉전시대의 대응·균형 관계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에서 불균형을 전제로한 통일정책으로 근본적인 재고와 수정이 필요함.
<p>1997. 2. 20</p> <p>통일원 대변인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WFP를 통한 對北 食糧支援 參與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WFP(세계식량계획)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 하기 위한 3차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WFP의 대북지원에 동참할 방침임. ○ 지원규모는 600만불 상당의 식량으로, 구체적 지원품목·시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2. 17</p> <p>외교부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p>	<p>의하여 납치된 것 이외의 다른 것 일 수 없으며, 해당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알아보고 있는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남조선 당국자들이 황장엽비서를 납치해놓고 그것을 망명이라고 떠든다면 우리는 지금껏 있어보지 못한 중대사건으로 간주하고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 주리라 기대함. <p style="text-align: center;">황장엽 망명 허용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난 2.12 중국의 베이징에서 황장엽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측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백함. 즉, 납치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참을 수 없으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나, 그가 亡命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변절을 의미하므로 變節者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3. 5</p> <p>4者會談 共同說 明會 개최 * 뉴욕</p>	<p>는 유엔기구와 협의·결정하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제의·주장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信賴構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식량문제를 포함한 南·北經協 추진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공동설명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을 상호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회담대표는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급을 교체수석 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회담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의제로 하되 필요시 의제를 세분화하여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음. ○ 미측은 韓半島 平和定着 문제는 미·북간의 별도 협상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직접 관계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4자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북한간에는 불가침합의가 있으므로, 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2. 21</p> <p>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 「중통」 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조·미 고위급 회담 개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식량제공 문제등 지난해 12月 조미협상에서 합의된 동시 행동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와 미국 사이에서의 입장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부득불 공동설명과 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최근 조·미사이에는 제기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있었으며, 그 결과 3.5 뉴욕에서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이어 조·미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임.
<p>1997. 3. 5</p> <p>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설명회 결과 긍정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오래전에 미국측에 요구했던 4자회담 제안에 대한 공동 설명을 들었음. ○ 설명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 조선반도의 안정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라면 다 들을 용의가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3. 6</p> <p>국방부 대변인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97 한·미 틱스퍼리트 취소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양국정부는 '97년도 T/S 연습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결정은 최근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동 결정으로 한·미 양국군의 방위태세에 영향은 없을 것임. ○ 한·미 양국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뢰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p>1997. 3. 6</p> <p>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회 발언 * 국회 통일외 무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 지속추진 노력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설명회에서 낙관적 생각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4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국의 협조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直接對話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1997. 3. 17</p> <p>국회 결의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 동아시아대회 북한참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당국은 순수한 스포츠제전인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해 남북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함. ○ 중국, 일본등은 북한의 대회 참가가 東아시아지역의 올림픽운동 및 이념증진이라는 대회창설 목적에 부응함을 깊이 인식하고 北韓 參與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것을 호소하며, 국회는 북한의 대회 참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
<p>1997. 3. 18</p> <p>외무부 대변인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황장엽씨 제3국 출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양국은 황장엽씨의 망명사건과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계가 존중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3. 31</p> <p>통일원 대변인 기자회견</p>	<p>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칙하에 긴밀히 협의해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장엽씨는 양국의 협의하에 오늘 제3국으로 떠났으며 행선지 및 금후의 관련 동향은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당분간 밝히지 않을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支援 유화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그동안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서 제외해온 쌀을 지원 품목에 포함시키고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들의 지원참여를 허용할 방침임. ○ 그러나 당분간 외국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허용하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한적」으로 단일화한 종전의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3. 31</p> <p>남조선의 비전향 장기수 구원 대책 조선위원회 고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비전향 장기수 送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서는 박해와 탄압속에 수많은 전쟁포로들이 감옥 안밖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 ○ 그들은 조선정전협정과 포로대우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정전직후 공화국 북반부로 송환되었어야 함. ○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 당국자들의 인권탄압 만행을 문제시 하며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노인들에 대한 송환의 목소리를 높여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며, 고발장을 발표함.
<p>1997. 4. 2</p> <p>한성렬 유엔주재공사 인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食糧支援時 4자회담 즉시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미국이 추가식량지원을 표명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을 즉시 수용할 것임. ○ 미국이 중동에서는 땅과 평화를 교환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쌀과 평화를 바꾸는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10</p> <p>金泳三 대통령 연설문</p> <p>* 제97차 국제 의원 연맹 총 회 개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에 4자회담 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共存共榮을 위해 북한은 성실한 자세로 4자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함. ○ 북한이 4자회담에 적극호응한다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실리,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두루 도모할 수 있을 것임.
<p>1997. 4. 14</p> <p>한·일 외무장 관 회담</p> <p>* 柳宗夏 외무 장관, 池田行 彦 외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위해 긴밀 협력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4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대해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또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황장엽비서의 망명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공조체제 유지 및 UNHDA의 3차 대북식량 지원문제를 협의함.
<p>1997. 4. 16</p> <p>4자회담 관련 「3자설명회」 후 속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주장·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당면한 식량사정을 설명하고 올 연말까지 식량부족예상 규모인 250만t 가운데 1백만t은 자체조달, 나머지 150만t은 추가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 내부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4자회담이 합정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전언.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11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p>	<p>「동남아 비핵지대화 창설에 관한 조약」 발효 환영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東南亞 非核地帶化 創設에 관한 조약의 발효를 환영하며, 핵보유국들은 이 조약의 제반원칙들을 받아들이고 안전 담보제공을 공약해야 함. ○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 군사 장비 반입등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고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18</p> <p>姜英勳 「韓赤」 총재 전화 통지 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4자회담을 전제로 한 대북 추가 식량지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신뢰구축에 성의를 보이고 4자회담에 조속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최근 여러 국제기관 단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귀측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접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귀측의 식량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국제적십자 연맹과 협력해 왔음. ○ 이에 귀측에 대한 구호식량 및 물품제공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대표접촉을 쌍방적십자 사무총장(서기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바라며 귀측의 호응을 기대함.
<p>1997. 4. 20</p> <p>외무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황장엽 전 비서 韓國到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는 황비서가 지난 12일 북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래 67일만인 오늘 무사히 서울에 도착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19 「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 남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수용의사 표명 및 북경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적십자 단체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호상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받은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으며 귀측에서 민간급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적십자 대표접촉을 가지자고 한 것은 이러한 선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간주함. ○ 이같은 입장에서 북남적십자사 단체들 사이에 접촉을 가지되 쌍방은 각기 서기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3명씩 하고, 장소는 서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중국 베이징으로 하며, 시일은 5.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21</p> <p>3자 설명회 후 속회의 대표단 기자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황비서의 망명문제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 中國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황비서의 체류를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해준 필리핀 정부 및 국민의 우의·협조에 사의를 표명 <p style="text-align: center;">〈황장엽 도착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은 사회주의와 현대판 봉건주의, 군국주의가 뒤섞인 기형적 체제로 변질되었으며, 경제는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들어 갔음. ○ 북조선 당국이 인민들을 굶어죽는 상태에 두고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수십년 동안 키운 막강한 무력을 사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음. ○ 북조선 당국이 남조선 혁명 노선을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호소함. <p style="text-align: center;">3자설명회 후속회의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은 이날 실무접촉을 갖고 뉴욕 3자 후속회의를 마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3국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음. ○ 우리측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 회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자회담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부였음.
<p>1997. 4. 22</p> <p>유종하 외무장 관 국회 보고 * 통일외무위원 회</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과 식량지원 분리 입장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4자회담의 원칙적인 수락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는 4자회담 수락과 회담개시를 분리하면서 식량지원을 획득하려는 전술로 분석됨. ○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수락하는 대가로 사전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 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22 「한민전」 대변 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도착 황장엽 격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장엽은 애국애족과 매국매족도 분간하지 못하고 전쟁과 평화도 식별하지 못하는 정신 분열병자로서 북과 남 어느쪽에도 이롭지 못한 우환덩이임. ○ 김○○일당이 이 우환덩이를 서울에 끌고온것 자체가 북에 대한 도발일 뿐아니라 남의 광범위한 민중과 각계인사들에 대한 도전이며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24</p> <p>「한적」姜英勳 총재 대북전통 문</p>	<p style="text-align: center;">판문점 적십자 실무요원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8 구호식량과 물품제공에 따른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 제의에 귀측이 호응해 온 것을 환영함. ○ 귀측이 사무총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가 5.3 북경에서 만나기를 희망해 온데 대해, 나는 남북적십자인이 모처럼 만나는 장소를 굳이 남의 나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남북 적십자간 대표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장소문제를 포함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실무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쌍방 각기 3명씩의 赤十字 實務要員이 판문점 「평화의 집」이나 「통일각」에서 4.29 10:00에 만날것을 희망함.
<p>1997. 4. 24</p> <p>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3+1」 회담 제의 거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3+1」회담 제의는 4자회담 참석전에 한미 양국으로부터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또한 뉴욕에서 열린 3자 설명회 후속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유엔의 3차 대북지원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동참한다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22</p> <p>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당은 황역적을 끌어와 반복성명을 발표케 함으로써 사실상 북에 대고 불질을 했고 선전포고를 한 셈임.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고, 전쟁이 터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일당이 지게 될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3+1」 형식의 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이 보다 실속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앞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측이 참가하는 3자 협상을 더한 다음 4자회담에 들어 갈 것을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30 「한적」 강영훈 총재 대북전통 문</p>	<p>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지원 규모·품목·발표시기를 집중논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북경 개최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간에는 재해를 당했을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일도 있는 만큼 남북적십자인들이 굳이 남의 나라에서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그러나 접촉장소문제로 더이상 시일을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 조치로 5.3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와 3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을 북경에 보내기로 함. ○ 북경 현지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판문점 적십자 상설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하면 될 것으로 봄. 귀측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주기 바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7. 4. 28</p> <p>「북적」 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 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경 접촉 동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사이에 접촉의제와 형식, 대표단 구성등 기본문제에 합의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봄. ○ 장소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것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한다면 구태여 문제를 복잡하게 중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함. ○ 베이징은 과거 전례도 있고 현시기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임. ○ 귀측이 다른 목적이 없다면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베이징으로 할데 대한 우리측제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는 5.3 베이징에서 만나는데 동의할 것을 기대함.

찾 아 보 기

찾 아 보 기

ㄱ

경수로도입 관련	111 147 170 249 263
경수로협상 공동발표문	173
고려연방제통일방안	239 271
국가보안법철폐주장	153 167
국가환경보호위원회	207
김영필입북	294 297
김일성사망 관련	95 96 197
김정일LA사진전시회	325

ㄴ

나진·선봉투자설명회	292 30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172 178
남북기자교류제의	140
남북불교인접촉제의	208
남북원자력협정	176
남북인간띠잇기	96 99 101
남북정당회담제의	171
남북정상회담	26 38 85 86 88 95 100 105 122 226 254
남북정상회담경호실무접촉	92 93
남북정상회담예비접촉	86 87 88 89
남북정상회담통신실무접촉	93
남북폐쇄정책	319
남북자문제	248 302

ㄷ

단군릉	121 123
당사자원칙	96
대북경협관련조치	18 140 141 144 162 194
대북수해물자제공제의	246
대북지원유화조치	332
대학총장회담제의	286
동남아비핵지대창설에 관한 조약	335
동북아다자안보대화	167
동학혁명100주년기념	31 32

ㄹ

러시아의 다자간협상제의 관련	50 53
-----------------------	-------

ㅁ

문익환조문	31 63
미국경제제재완화조치	165
미군유해발굴	263
미군직송기사건	155 157
미북3단계고위급회담	60 83 89 105 125 129
미북경수로회담	147 204 205
미북연락사무소전문가회담	149
미북장성급접촉	212 213 225 230
미북전문가회담	117 139 145

찾 아 보 기

미북준고위급회담217 219
 미북준고위급회담공동발표문219
 미북폐연료봉전문가회담공동발표문.....165
 미전향장기수송환 관련61 64 65 75
 127 133 137 139
 261 299 300 303
 311 323 333
 민속예술경연대회128

ㅂ

박용길 밀입북233 235 237
 범민련29 63 103
 북경살회담222 228 234 242
 250 283
 북일관광협정163
 북일수교회담249 261
 붉은기사상319

ㅅ

4자회담282 285 286 288
 290 296 333 334
 4자회담공동설명회287 328
 3+1회담340 341
 3자설명회후속회의334 338
 서울불바다발언56 61
 시베리아 벌목공55 73 74
 쌀수송선억류관련236 238 241 242

ㅇ

IAEA사찰.....31 34 44 48
 53 63
 IAEA탈퇴83
 염분진호송환.....278 279
 우성호송환216 220 234 247
 248 257 264
 원자력총국47 73 81
 유엔 대북결의안9
 유엔안보리의장성명52 55 78 79
 138
 을지포커스렌즈훈련113 294
 야당인사방북28 29 87 168
 171
 이산가족문제26 65 70
 일팔타결방식11 83

ㅈ

잠수함침투사건302 304 305 307
 308 309
 적십자실무요원접촉340
 적십자연락관접촉218
 적십자회담관련70 104 109 238
 302 336 337 340
 342 343
 정전협정68 153 282
 제네바미북기본합의문125
 제한사찰19
 조미잠정협정276 321
 조선인권연구협회101

찾 아 보 기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75 83
 조선종교인협의회99 101
 조소조약폐기.....244 245
 종교대표자회의공동합의문276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회의 ...176 177 181
 주한미군철수.....245 298
 중감위사무실폐쇄209
 중국 군정위철수114 115

ㄷ

차관급회담168 171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12
 최덕근영사 피살사건307

ㅋ

카터 방북85 86
 KEDO관련150 186 188 191
 콜레라방역조치123

ㅌ

통일대축전 관련230 235
 특별사찰107 111 112 119
 특사교환17 34

특사교환실무대표접촉7 38 43
 44 46

ㅍ

판문점연락사무소철수310 311
 8.15남북공동예배198
 8.15통일대축전77 198 227 230
 평화보장체계67 68 117 156
 163 183 211
 223 245 262
 275 281
 평화협정 관련.....71 255
 포로수용소유품15

ㅎ

한국형경수로.....115 165 187
 191 196 208
 210 215 220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08 11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72 74 80 143
 한반도평화정착기본원칙240 258
 핵경협연계완화138
 황장엽망명324 325 327
 330 336 339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4 卷
〈1993. 11 ~ 1997. 4〉

1997年 5月 24日 發行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非 賣 品〉

